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6회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 편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인쇄 2012년 1월 31일

발행 2012년 1월 31일

편저 제주평화연구원

발행처 제주평화연구원 출판부

등록 제 652-2008-00002호(2008.5.31)

주소 697-1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전화 (82-64) 735-6500

팩스 (82-64) 735-6512

전자우편 jejuforum@jpi.or.kr

홈페이지 <http://www.jpi.or.kr>

디자인·인쇄 (주)늘품플러스 (070-7090-1180)

Copyright © 2012 by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ISBN 978-89-93764-04-8 93340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제6회 제주포럼 결과보고서

발간사

2011년 5월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국가정상, 국제적 석학, 국내외 지도자, 각 분야 전문가, 경제인, 언론인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를 주제로 3일 간에 걸쳐 나눈 열띤 대화와 토론을 간추려 책으로 발간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제주포럼에서 나눈 지혜와 비전이 세상에 두루 알려지고 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이 찾아오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4.3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한 바로 그 제주에서 평화와 번영을 논하는 국제적 포럼이 매년 열리게 된 것은 실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불과 10여 년 전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던 아시아가 세계금융위기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고 세계경제회복의 원동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의 주제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는 바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론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주의 노력과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아시아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평가하고, 아시아 기업이 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제주포럼이 이처럼 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는 종합포럼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기쁘며, 2012년 제7회 제주포럼에서도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에 관한 다양하고 폭 넓은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제6회 제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재단과 동아시아재단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포럼을 주관한 제주평화연구원, 그리고 포럼을 후원한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제주대학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코리아 DMZ협의회, 유엔거버넌스센터, 현대자동차,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PRIO),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한지질학회에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책자를 발간하는 데 수고하신 제주평화연구원 관계자들과 회의내용을 정성껏 정리해준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통역번역센터 교수님과 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제주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1월

제6회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2011년 제6회 제주포럼 프로그램

시간	5월 27일 (금)					
13	등록					
14	00 10 20 30 40 50	유엔과 보호책임	DMZ 평화·생태적 이용·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경제발전에 따른 국격에 맞는 선진원조 동향	유엔글로벌 컴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 목표(MDGs)에 기여 I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진 및 쓰나미 위험
		49p	113p	150p	137p	134p
15	10 20 30 40 50	커피브레이크				
		두만강 개발계획과 동아시아 평화	아시아 문화 퓨전과 공동체 건설	리딩 브랜드로의 도약: 국가/지역 브랜드 현황과 미래	유엔글로벌 컴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 목표(MDGs)에 기여 II	거세어지는 기후변화와 강력해지는 재난, 대응책은 있는가?
16	00 10 20 30 40 50	73p	301p	181p	141p	118p
		커피브레이크				
17	00 10 20 30 40 50	세계자연유산과 지질환경보존	중국 기업의 한국 상장(上場)	한국 기업의 지속경영	저개발국 감염성질병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전체회의 I New Asia Standard
		131p	212p	221p	279p	171p
18	00 10 20 30	휴식 및 이동				
19		자유만찬				

시간	5월 28일 (토)						
8	등록						
9	00	전체회의 II (세계지도자세션)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전체회의 III G20 시대, 금융시장 체제 변화와 뉴 아시아 전망 (기조연설)		
	10						
	20	41p					
	50				167p		
10	커피브레이크						
11	개회식 기조연설						
	00	23p					
12	이동						
	10						
13	자유오찬						
	30						
14	00	중국의 부상: 기회와 도전	G20과정의 금융규제 개혁과 안전망	지식 재산 시대, 여성의 중요성	비즈니스 신세력: 아시아 청년 리더	G20 이후 도시경영의 새로운 도전	Green Mega Trends in Business and World
	10						
	20						
	30						
	40						
50							
15	00	77p	153p	290p	187p	164p	177p
	10	커피브레이크					
	20						
	30	동아시아 비핵화는 가능한가? 그 기회와 제약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자상거래의 WEB 3.0 전망, 온라인 게임	G20 이후 국가와 도시경쟁력의 새로운 이슈	G20 이후 다국적 기업의 세계성공전략	한국 기업의 중국 상장(上場)
	40						
50							
16	00	66p	257p	200p	156p	159p	218p
	10	커피브레이크					
	20						
	30						
	40						
50							
17	00	동아시아 해양안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와 고등교육의 역할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협력	Creative Industry: 아시아의 美 (영화, 언론, 패션)	중국! 14억 시장으로 달려가자	아시아의 가치와 글로벌 리더십
	10						
	20						
	30						
	40						
50							
18	00	70p	262p	62p	294p	209p	193p
	10	휴식 및 이동					
	20						
1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최 환영만찬						
	30						
20	휴식 및 이동						
	30						
21	Global Asia Night						
22							

시간	5월 29일 (일)									
8	등록									
9	00	그린에너지 응용기술과 신사업 기회 125p	전체회의 IV 한·중·일 협력(기조연설)			경영디자인 기조연설 231p				
	10									
10	00	커피브레이크 83p	전체회의 VI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86p			커피브레이크				
	20									
	30									
11	40	경영디자인 유럽·아메리카· 아시아 경영의 흐름, 제주의 도시디자인 239p	전체회의 V 동양철학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지도자의 자선활동 90p			산업보안 정책의 오늘과 내일 215p				
	50									
	00						휴식			
	10						외교관라운데이블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20						휴식			
12	30	휴식	이동			203p				
	40	경영디자인 디자인경영의 교육에 대한대학 리더들의 토론 234p								
13	50	자유오찬				203p				
	00	이동								
14	00	자유오찬				242p				
	10	제주의 미래 비전 224p	북한의 권력계승과 개방개혁 전망 94p	세계무역, 통화전쟁, 자유무역협정: 보호무역주의인가? 자유무역주의인가? 147p	평화연구의 최근 이슈와 과제 52p		여성, 창조성 문화: She's Coming 285p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미래: 디자인+신표준 190p		
	20									
	30									
	40									
50										
15	00	커피브레이크				246p				
	10									
	20									
16	30	제주프로세스와 동북아 디자인보체제 구축 104p	의료관광 I 국내외 의료 관련정책 및 성공사례 발표 및 토론 265p	제주국제자유 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 98p	장수기업 196p	소셜네트웍스 시대,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298p				
	40									
	50									
	00						커피브레이크			
	10									
17	30	외신기자 라운데이블 2012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치변동 예측 56p	국제보호구역과 제주형 보전모델 121p	의료관광 II 제주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론 271p	장수인의 비밀 275p	경영디자인 워크숍 III Convergent Education 250p				
	40									
	50									
	00									
18	10	휴식 및 이동				250p				
	20									
19	3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최 폐회만찬				250p				
	00									

차례

발간사

제1장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개회사	17
환영사	20
기조연설	23
세계지도자세션	41

제2장 평화와 안보: 세계와 아시아

유엔과 보호책임	49
평화연구의 최근 이슈와 과제	52
201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치변동 예측	56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협력	62
동아시아 비핵화는 가능한가? 그 기회와 제약	66
동아시아 해양안보	70
두만강 개발계획과 동아시아 평화	73
중국의 부상: 기회와 도전	77

제3장 평화와 안보: 한반도와 제주

한·중·일 협력	83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86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외교관라운드테이블]	90
북한의 권력계승과 개방개혁 전망	94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	98
제주프로세스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104

제4장 환경과 국제협력

DMZ 평화·생태적 이용·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113
거세어지는 기후변화와 강력해지는 재난, 대응책은 있는가? ..	118
국제보호구역과 제주형 보전모델	121
그린에너지 응용기술과 신사업 기회	125
세계자연유산과 지질환경보존	131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진 및 쓰나미 위험	134
유엔글로벌콤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여 I	137
유엔글로벌콤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여 II	141

제5장 경제

세계무역, 통화전쟁, 자유무역협정: 보호무역주의인가, 자유무역주의인가?	147
경제발전에 따른 국력에 맞는 선진원조 동향	150
G20과정의 금융규제개혁과 안전망	153
G20 이후 국가와 도시경쟁력의 새로운 이슈	156
G20 이후 다국적 기업의 세계성공전략	159
G20 이후 도시경영의 새로운 도전	164
G20 시대, 금융시장 체제 변화와 뉴 아시아 전망	167
New Asia Standard	171

제6장 경영: 세계와 아시아

Green Mega Trends in Business and World	177
리딩 브랜드로의 도약: 국가/지역브랜드 현황과 미래	181
동양철학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지도자의 자선활동	184
비즈니스 신세력: 아시아 청년 리더	187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미래: 디자인+신표준	190
아시아의 가치와 글로벌 리더십	193
장수기업	196
전자상거래의 WEB 3.0 전망, 온라인 게임	200
융합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의 미래	203

제7장 경영: 중국과 한국

중국! 14억 시장으로 달려가자	209
중국 기업의 한국 상장(上場)	212
산업보안 정책의 오늘과 내일	215
한국 기업의 중국 상장(上場)	218
한국 기업의 지속경영	221
제주의 미래비전	224

제8장 경영디자인

경영디자인[기조연설]	231
디자인경영의 교육에 대한 대학리더들의 토론	234
유럽·아메리카·아시아 경영의 흐름, 제주의 도시디자인	239
Collaboration	242
Mutual Learning	246
Convergent Education	250

제9장 교육과 의료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	257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와 고등교육의 역할	262
국내외 의료관련정책 및 성공사례 발표 및 토론	265
제주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론	271
장수인의 비밀	275
저개발국 감염성질병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279

제10장 여성과 문화

여성, 창조성, 문화: She's Coming	285
지식 재산 시대, 여성의 중요성	290
Creative Industry: 아시아의 美(영화, 언론, 패션)	294
소셜네트웍스 시대,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298
아시아 문화 퓨전과 공동체 건설	301
한·중 예술관광	306

제6회 제주포럼 역할참가자 명단	309
-------------------------	-----



제1장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 개회사
- 환영사
- 기조연설
- 세계지도자세션



개 회 사

우 근 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황식 대한민국 국무총리,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필리핀 전 대통령,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외사위원회 자오치정(趙啓正) 주임, 전 세계에서 오신 각국 정부의 귀빈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평화재단 그리고 동아시아재단이 공동주최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 모두를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곳에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뛰어난 전문가들을 한번에 모시게 되어 저희로서는 큰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각 세션의 기조연설과 패널리스트들의 사려 깊은 기고가 제주포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 포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것을 희망합니다.

제주도는 “제주 4.3사건”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초월하고, 전도 양양한 미래를 지닌 평화의 도시가 되기로 단호히 결단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소련에서 온 세계 정상들이 세계평화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던 곳이 바로 이곳 제주도였습니다. 그 결과로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확립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정부는

2005년 1월에 제주도를 공식적으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하고, 자유국제도시로 제정하였습니다.

오늘날 국제경제의 중심은 아시아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030년경이면 아시아경제는 세계경제의 약 40%를 담당할 만큼 성장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써 아시아 표준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중국 비즈니스 리더들을 이곳에 함께 모시게 되어 저희로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글로벌 리더들이 함께 모인 이 회의가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이끌어줄 평화와 번영을 토론할 좋은 기회가 되어, 한층 높은 아시아 표준을 창출하고 경제 운용 협력을 이끌어내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스위스의 다보스가 ‘세계경제포럼’의 연례회의 주최지가 된 것처럼, 제주도는 오늘을 기점으로 ‘아시아 다보스 포럼’의 탄생지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대표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전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셨고, 미국, 유럽, 호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학자와 리더들이 귀빈으로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므로, 아시아의 협력과 조화로운 공존, 더 나아가 전세계 평화와 번영을 창출해 내기 위해,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우리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떠맡는 일에 참여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핵 위기와 북한의 핵개발은 생명보존과 아시아 안보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안전과, 이웃 국가간의 협력, 그리고 평화공존이 한층 더 널리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연환경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일에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제주포럼은 정치, 경제, 환경, 문화, 여성 문제, 디자인, 도시 재구성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슈들을 출중한 인재들이 모여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희망하는 것은, 이 포럼에서 세계안전, 미래발전, 동북아의 평화, 환경보존, 신 성장엔진 세대, 자유무역과 네트워크, 여성의 사회적 역할 등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많은 논쟁과 제안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겸허히 요청하는 것은, 저희의 큰 염원인 한국의 통일에서 어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생겨날 것인지 예측해 달라는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지성적인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서 제주도를 방문해 주셨으니, 새로운 “세계 7대 자연경관” 캠페인에 후보지로 참여하게 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를 맘껏 즐기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평화재단 그리고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오늘 참석해주신 국내외 모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김황식 국무총리,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외사위원회 자오치정(趙啓正) 주임 그리고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전 대통령께 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전 포럼들에 비해 크게 확대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새로운 출발에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특히 제주도가 금년 11월에 열리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캠페인의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옛 속담 중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대로 아시아의 국제적 지위는 10년 전에 비해 훨씬 격상되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

며, 따라서 국제적 정치 경제도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변화와 재확립이라는 중요한 시기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시아의 좀 더 종합적인 포럼으로서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풍랑을 겪으며 교훈을 얻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잠재가능성을 증명해 보인 아시아인들에게는 이번 포럼이 스스로 변화하여 ‘글로벌 시대의 아시아인’ 즉, ‘글로벌 아시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풍부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재단은,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인간 및 지식 네트워크를 통한 평화번영과 신뢰구축’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공익재단입니다. 따라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럼”은 동아시아재단 비전의 중요한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재단은 2005년의 제3회 제주포럼과 2007년 제4회 포럼, 그리고 2009년 제5회 포럼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리더와 지성인들이 참석한 이번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상호신뢰와 집단적 지혜를 향상시켜줄 의미심장한 회의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회의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저희가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 환영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특히 이 회의를 조직하고 후원해주신 모든 기관과 임원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김 황 식

국무총리

존경하는 아로요 대통령과 한승수 전 장관님,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이번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럼을 다시 한 번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주도는 그 아름다움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사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선두 후보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멀리까지 와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저의 열렬한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우근민 제주도지사, 제주평화연구원의 한태규 원장, 그리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저는 이번 포럼이 종합적인 포럼으로서 확고한 모습을 확립해 가면서, 평화와 번영의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환경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로까지 토론을 확대해 가고 있는 점을 크게 환영합니다.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19세기는 유럽의 세기였다고들 합니다. 20세기는 서구가 지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이들이 금세기는 아시아가 빛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

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가면서, 아시아가 다시 한 번 부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하고 세계의 지배구도를 개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는 G20의 핵심 존재로서, 이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어느 때보다도 동아시아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높습니다. 그러나 사실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 동아시아 앞에는 많은 도전과 문제가 놓여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일 것입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국제적 제재에 시달리면서도 아직도 군사 모험주의나 그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했으며, 2회에 걸쳐 핵실험을 한 것 외에도, 최근에는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ranium Enriched Program, UEP)을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그런 북한의 모험주의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사실상 아시아 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지역적 불안정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우선 순위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군사적 신뢰와 협력의 추구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부족하여, 안보문제는 지역적 무기경쟁과 결합된 채 여전히 아시아 지역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상처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지역갈등과 같은 독특한 역사적 경험들이 아직도 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의 씨앗으로 남아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에너지난과 식량난, 테러리즘, 사이버공격, 마약거래 등

과 같이 비전통적인 위협요소들이 우리 아시아 지역의 안보 해결과제의 새로운 원천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경제적 해결과제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 경제는 외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영향을 느낍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불안정성, 계속되는 세계 불균형,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경제에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 발전성장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중대 과제의 하나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GDP가 1인당 3만 달러 이상인 선진국도 있지만, 보통사람이 하루 1달러 미만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최저개발 국가들도 있습니다.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아시아 시대는 희망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기 전에 미리 그 도전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비핵화된 한국이라는 목적을 실현하여,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북한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가 되어있으며, 6자 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관한 생산적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 어린 희망입니다. 북한은 남북한 대화를 통해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5월 9일 독일 방문에서, “만일 북한이 국제사회와 비핵화를 단호히 동의한다면,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을 봄에 핵안보정상회의에 초대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우리는 북한에게 비핵화에 관한 우리 제안을 명확하고 빠르게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지역적 안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기적으로 안보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수적인 선행조건인 “6자회담”과, 아시아 지역의 다국간 안보 협력을 위한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이 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귀중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테러리즘이나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같이 비관행적이고 초국가적인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야 합니다.

부유하고 번영한 동아시아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한데 모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 시작점은 이 지역의 자유 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일입니다. ASEAN 국가들 사이의 FTA와, 한국, 중국, 일본 간의 FTA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촉매 역할을 해왔습니다. 만일 ASEAN+1 체제가 경도선 역할을 하고, 세계무역의 17.6%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간의 FTA가 위도선 역할을 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FTA 네트워크는 더욱 조밀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국가간 경제통합 논의가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45개국과 FTA 협정을 맺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은 ASEAN 국가들 및 인도와 FTA 협정을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중국, 일본과는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FTA는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를 소생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한국의 FTA 장려활동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상호번영을 촉진하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동아시아는 번영의 성과를 모두가 공유하는 공존의 영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달성해야 하며, 국가 간 발전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반세기 동안 전쟁의 잣터미에서 일어나, 원조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국제원조의 가치를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저희 한국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했으며, 2015년까지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규모를 2010년 수준의 3배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우리의 성공적인 발전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 지역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금년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동아시아 번영의 토대는 녹색성장

과 지속 가능성이 되어야 합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그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 등과 같은 녹색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온실가스방출의 감소를 돕기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한국은 “OECD 녹색성장전략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이번 주 초 프랑스에서 열린 OECD 각료회의에서는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OECD 녹색성장전략”이 출범하였습니다.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포부가 큰 녹색성장의 리더, 한국은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8)를 유치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이곳 제주도에서의 ‘스마트그리드 시연프로젝트’ 추구 또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부분입니다. 지난 4월에 열린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BFA)”의 제 기조연설에서 저는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발전”을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아의 번영”이라는 비전 하에,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간 발전의 갭을 메우는 작업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도 균형 잡힌 접근 방법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동아시아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ASEAN 국가들은 모두 합쳐 전 세계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GDP의 20%, 그리고

총 무역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안정된 안보 시스템 및 지역경제의 통합을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갈등과 논쟁을 해결하고, 국제적 무역 및 투자 활동에 가해지는 제제를 제거하며, 다양한 문화와 사회 간의 상호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미래의 아시아 커뮤니티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접근방법을 수용하여,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뿐만 아니라, 국제적 커뮤니티 전체에 걸친 상호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문제들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SEAN+3 정상회의와 APEC,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기타 지역 협력들뿐만 아니라, 지난 주에 도쿄에서 열린 제4차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는 모두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한국은 동아시아 커뮤니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길 희망합니다. 다음 이틀 동안에도 건설적인 많은 의견과 왕성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우근민 도지사, 자오지청(趙啓正) 주임,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이번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의 기조연설자로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 제주평화연구원에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아와 전 세계의 역사에 있어 중차대한 이 시기에 이번 주제는 아주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아시아는 가난에 찌든 냉전의 전쟁터에서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1975년에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1990년대에 러시아 군이 중앙 아시아를 포기하고 물러난 이후, 우리 아시아 지역은 감사하게도 여러 곳이 빠르게 번영해갔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경제 규모가 6년에 한 번씩 두 배로 커졌고, 이에 따라 가난에 시달리던 수천만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보다 적은 경제규모의 동아시아 국가들도 세계적인 경기후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 8번째 지진으로 인한 참해와

혼란을 제외하면 경제사정이 좋아졌습니다. 한편 북미와 서유럽 지역은 경제적 우환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가로막히고, 남미와 아프리카 등 넥스트 경제에게 돌아갈 결정적 수익이 제한을 받는 등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아시아가 2050년까지 최근 계획대로 계속 성장할 경우, 전 세계의 자국 상품 무역 및 투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그 이후 더욱 확대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6배로 크게 증가하여 오늘날의 유럽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고, 아시아인 30억 명이 추가로 풍요로워 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약 250년 전에 누렸던 지배적인 세계적 경제 지위를 다시금 얻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이 가능성을 일컬어 ‘Asian Century (아시아 세기)’라고 합니다.

이 ‘Asian Century’는 아시아가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때입니다. 아시아가 성장하여 세계경제의 성장발전을 주도하자는 비전, 아시아에서 빈곤이 최소화되고, 이로 인해 탄탄한 중산층을 일으키자는 비전, 아시아 모든 국가의 경제를 2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지위로 끌어올리자는 비전, 아시아 천연자원의 사용 효율성을 높이자는 비전, 아시아 국가 및 소 지역 전체의 불균형을 줄이자는 비전, 아시아가 훌륭한 탄소발자국을 남기자는 비전, 아시아가 강력한 제도를 확립하여 현대사회 전체의 귀감이 되자는 비전, 어떤 이들에게는 아시아의 새로운 비전이 경제성장으로 책임감 있게 사회와 환경 조직을 떠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이런 계획이 있으므로 저는 아시아가 그 비전을 달성하는 궤도에 잘 들어서게 될 것이

라고 낙관합니다. 아시아의 성장엔진은 각 나라의 경제를 활기 띠게 하여 가난한 이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것을 약속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엔진이 아시아 전체를 세계 초일류의 지위로 밀어 올릴 때 우리는 빈민의 전쟁터여서도 안 되며, 또한 환경을 희생시켜서도 안 됩니다. 한 지역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익을 위해 겨루면서도, 동시에 그 동안 많은 국가를 괴롭혀왔던 현대화의 실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가난한 이들을 들어 올리고 공평하고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 첨단기술, 소액금융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저의 조국인 필리핀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큰 제조기반을 계속 개발해야 하며,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경제를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저희는 에너지 소비에 있어 좀 더 자급자족하고 비용 효과적이 되어야 합니다. 혁신과 적절한 정책입안, 일심동체가 된 정치 및 시민 지도자들을 통해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낼 수 있습니다. 한 때 저는 필리핀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바이오 연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투자와 혁신에 힘입어 일자리와 기술 그리고 자립심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저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에게 모델이 된 국가는 브라질이었습니다. 바이오의 필요성과 바이오 연료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와 아시아지역으로부터 계속 배워야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저희 필리핀이 중국을 발전모델로 삼아 배울 것이 아주 많습니다. 중국의 놀라운 부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희망과 도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거대한 시민 집단이라는 인적 잠재성을 풀어 놓으며 첨단기술과 과학 그리고 공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극적인 성장을 이루며, 수백만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끌어올리고 그들의 국가를 새로운 글로벌 파워로 단호히 세계무대에 올려놓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지역에 중대한 기회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제가 대통령을 지내던 기간에 필리핀 국민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중국과 저희 필리핀의 전체 관계는 더욱 자신감 있고 성숙하며 종합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프로젝트들로 강조된 이 깊은 교류는 무역과 투자를 포함하는 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저희의 강력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저희는 거기에서 상당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광업의 경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금속 소비국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필리핀의 광산업에게는 광물 수출의 상당한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1조 달러 가치의 광물 보유고를 개발하려는 시기였기에 더욱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필리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위협이라기보다는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사는 세계적 수준의 화이버 플랜트를 중국 대

신 필리핀에 건설하려고 17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특별 섹터에서 생산되는 저희 전력(電力) 사업에 크게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투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저희 정부는 국가의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비용을 낮추며, 금융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하고, 한계 없는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크게 투자하였습니다.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기회는 남북한의 궁극적인 통일일 것입니다. 이 통일은 비무장지대의 양측 국가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의 통일이 단기적으로는 경기하강을 먼저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남한이 북한의 경제 생산성과 소득수준을 끌어올리면서 반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바로 지금 여전히 핵 문제 때문에 제기되는 상황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시아 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와 발전 그리고 안정을 확보하는 열쇠입니다. 최근 북한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한 일이 핵 교착상태에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 전 지역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데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보게 될 것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1950년, 한국이 형제끼리 대립하며 이데올로기 속에서 들끓고 있을 때, 전 대통령이셨고 작고하신 저희 아버지 디오

스다오 마카파갈(Diosdado Macapagal)께서 당시 아직 국회의원이셨습니다.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지는 국회 결의안을 입안하고 후원하신 분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이로써 필리핀은 평화를 사랑하는 남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 군인을 파견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입안하신 그 국회 결의안의 전제는, 유엔의 활동이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이며 보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원조하기 위해 유엔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필리핀은 결국 자국의 방어에도 참여하는 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저희 아버지의 이런 노력에 대해 공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시고 나자 몇 년 후에 한국정부는 아버지를 공식초청 손님으로 초대하여 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전쟁 동안 남한 국민들과 함께 있으며, 자유라는 공동의 꿈을 위해 함께 피를 흘리고 목숨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남한은 저희와 같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 승리했고,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좋은 친구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저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의 공명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2003년에 한국을 국가원수 급으로 공식방문을 하였고, 2009년에는 공식방문을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5년에 답방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 학생, 노동자, 선교사, 한 국민의 배우자로서 약 5만 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남한에서

제2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2003년에 제가 공식방문을 하는 동안 저는 2004년에 실행되기 시작한 해외노동자 고용허가제도를 이룩시켰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수혜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에 30만의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남한은 우리나라에 관광객으로 가장 많이 오는 국가입니다. 필리핀은 영어를 해외에서 더 공부하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저렴한 대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노바디’와 같은 대중문화는 필리핀에서 크게 히트치고 있습니다.

저의 재임기간 동안 또한 필리핀은 남한에 살기를 원하는 탈북자들의 정규 중간정유지 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때 한국은 필리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가장 큰 투자자 중 하나가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조선, 전력, 에너지, 전자, 관광 등에 투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필리핀의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와 공항 몇 곳을 포함해, 공식적인 개발원조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이 아름다운 섬 제주도로 한국을 방문하러 다시 한 번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필리핀의 국민들이 함께 계속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를 희망합니다. 또 하나의 바람은 제주 포럼이 ‘Asian Century’를 정말 실현시켜줄 아시아의 정신들을 한데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력해야 할 전부일 것입니다.

개회식

아시아는 갈등과 굴욕의 역사에서 벗어나 이제 세계 정치, 경제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에서 점점 비중이 더 커가고 있는 아시아가 잘 단합되고 지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입장에서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시아의 여러 지도자들로부터 장차 다가올 아시아의 미래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소중한 견해를 들어보는 자리가 되었다.

- 아시아의 세계사적 전환점
- 새로운 아시아에 대한 비전제시
- 중국의 부상, 한반도 통일 등 도전과 기회

■ 개회사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제주포럼 조직위원장)

■ 환영사

공로명(동아시아재단 이사장)

■ 기조연설

김 황식(대한민국 국무총리)

자오지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글로리아 아로요(전 필리핀 대통령)

2011년 5월 28일 11시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를 주제로 제6회 제주포럼이 공식 개막되었다. 개회사를 통해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3의 아픔을 겪은 제주가 평화와 번영을 논의하는 포럼을 열게 된 기쁨을 피력하며 발전하는 아시아에서 향후 제주포럼이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주변국가간 협력과 평화공존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번 6회 제주포럼을 통해 평화를 갈망하는 전 세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전 외무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10년간 변화한 아시아의 위상을 설명하며 무엇보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전 세계에 부각된 위기 극복역량을 강조하고, 동아시아 재단의 비전인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의 “인간네트워크를 통한 신뢰 구축”은 이번 제주포럼의 평화와 번영 및 상생 발전이라는 모토와 일맥상통하는 바, 이번 포럼을 통해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견이 도출되어 위기에서 평화 번영으로 도약하는 아시아가 되는 데 일조를 담당하기를 희망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제주포럼이 평화와 번영 외에 기후와 환경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종합포럼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치하하며 아시아의 부상과 발전의 길목에서 최근 조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북한의 핵개발 위기와 기후변화, 자연재해, 에너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의 비전통적 위협 및 동아시아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21세기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면한 북한발 위기 극복을 위해 비핵화 실현을

위한 생산적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6자회담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남북한 대화로 서로의 진정성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공동번영을 위한 역내 FTA네트워크 확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서 ASEAN+1의 틀을 기반으로 역내국가간 경제 촉진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번영 또한 친환경적인 녹색번영 및 지속적인 번영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고용창출과 빈부격차 해소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잠재력이 큰 동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서 한국은 범세계적인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피력했다.

자오지청 중국 인민 정치 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은 기초연설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여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현 상황과 미래비전에 관하여 언급했다. 중국의 GDP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어도 1인당 GDP규모는 100위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이는 거의 노동에 의한 것이어서 지속적인 개혁과 시장 발전 추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중국은 5년마다 거시경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중국 내 내수시장 확대, 투자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첨단과학에 의존한 선진 제조업발전에 관한 관심과 열정을 피력함과 동시에 보건, 교육에 투자를 늘리고, 안보에 대한 범세계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북-중 관계에 관한 한국의 우려와 불만에 관하여 중국은 균형적인 구도를 위해 대화를 통해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며 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패권’이나 ‘세계지배’가 아닌 ‘조화’이며 일부에서

는 중국 모델을 경계하고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6회를 맞는 제주포럼이 세계적인 포럼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기원했다.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향후 아시아의 중심적 역할에 관한 기대와 전망을 설명하며 빈곤퇴치, 중산층 확대, 천연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환경보호와 경제부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빈곤 퇴치, 소외층의 중산층으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고 천연자원의 효율적 활용, 환경 보호 및 경제 부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평화와 안정구축을 위해 한반도의 통일은 매우 중요하며 통일 후 단기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임을 예상했다. 아로요 전 대통령은 한국전 파병 및 현재 인적 교류규모 등 한국과 필리핀 간의 오랜 우정과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향후 필리핀은 한국과 더 확대된 관계를 갖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세계지도자세션

이 세션에서는 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미래 비전, 그리고 아시아인의 역할에 대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아시아 각국 간 경제협력, 자유무역지대 창설안은 물론 아시아인들 간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식 및 문화교류 등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세계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아시아의 성장 동력
- 아시아 경제의 상호의존과 자유무역
- 아시아에서의 공동체 의식과 다자협력의 발전

■ 사회

박진(국회의원/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 발표

글로리아 아로요(전 필리핀 대통령)

한승수(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번 세션은 박진 국회의원의 사회로 글로리아 마파카발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및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미래비전, 그리고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의 당면과제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글로리아 마파카발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은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 하였으며 아시아 공동체, 특히 한중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을 역설 하였고,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아시아 지역공동체의 통합노력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국의 성장, 일본 대지진 이후 불거진 원자력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각국 간의 협력 방안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다.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은 아시아 발전에 관하여 되짚어 보며 아시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발전이 필요하고 지적하고, 중국의 급속한 발전과 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경제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 경제대국들이 긴밀한 공조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서 아세안 공동체가 평화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고 아세안 국가들 간의 FTA에 가까운 협력이 있다는 것을 지적, 아세안 국가들이 세계 경제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연합과 공조를 통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아시아의 긴밀한 공동체 협력을 위한 과제로서 아세안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결속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아시아만이 이러한 공동체가 없으나 현존하는 지역 공동체를 활용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이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난점으로서 다양한 인종구성과 식민유산의 한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나 제주포럼이 이러한 논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로요 전 대통령은 중국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발언한 바, 미국도 이 시장에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아시아의 통합을 위한 한중일 협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아세안+3가 생겨났고 큰 틀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합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주제발표에서 동북아시아는 현재 역동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지역으로 부흥하였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동북아시아에는 안보리스크,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문제가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이러한 정치적 쟁점에 관해 섬세하게 분석, 접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이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녹색경제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각국이 시작했고 세계적으로 CO₂ 고 배출 국가가 아시아에 집중이 되어 있으나 한중일은 에너지 효율 높이기 등의 노력을 통해 녹색 성장을 이끌고 있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뿐만 아니라 한·중·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의 긴밀한 공동체 협력을 위한 도전과제에 관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속도는 매우 더디게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유럽의 경우에는 EU를 통

한 유럽 경제 협력체를 구축하는 여러 협약을 달성해 내었지만 유럽에 비해 아시아는 이러한 노력이 없었으나 현재 젊은이들의 교류가 있으며 여러 협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성장이 가져올 기회와 도전에 관해서는 중국은 아시아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였으나 인플레이션과 빈부 격차 등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GDP를 하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인도 또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을 것이며 중국의 성장은 공동체 구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APEC의 경우 미국의 참여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긍정적이라고 언급하였다.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에 관해서는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의 고통에 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의 경우 3국이 원자력 의존이 높기 때문에 원자력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 간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적 공조의 실질적인 결과도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원자력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대안이지만 안전한 원자력이 필요하며 많은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중 관계와 남북통일을 위한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북한은 중국을 모델로 발전해왔고 매우 폐쇄적인 형태로 발전하였으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북한을 세계경제에 참여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내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대체 안에 관

한 언급을 통해 현재 교토의정서의 대체 안이 없으나 UNFCCC에 한국이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며 기후변화 문제는 현 세대, 미래세대에도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기후변화를 위해서 국내적 노력으로 시작해야 하며 지난 2년 반 동안 국내에서도 관련 대응 체제를 갖춰 왔으며 녹색성장연구소는 전 세계의 지도자,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성장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가장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 세션을 종료하면서 두 지도자는 비록 아시아가 인종적, 역사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아시아 공동체의 강화 및 확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 공감하였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비핵화가 필수적이며 기후문제 해결, 안전한 핵에너지의 사용과 그 대안마련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공조체계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평화와 안보: 세계와 아시아

- 유엔과 보호책임
- 평화연구의 최근 이슈와 과제
- 201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치변동 예측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협력
- 동아시아 비핵화는 가능한가? 그 기회와 제약
 - 동아시아 해양안보
- 두만강 개발계획과 동아시아 평화
- 중국의 부상: 기회와 도전



유엔과 보호책임

국가 간의 영토보전과 주권수호를 의미하는 전통적인 국가안보(State Security)의 틀로는 개인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본 세션은 억압받는 자국민의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에 의존하여 출발한다. 유엔에서는 ‘누구의 안보 누구의 평화인가’라는 측면에서 국가중심의 전통적인 안보개념 대신 개인의 안녕과 복지가 안보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는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론을 제기하였다.

- 최근 새로운 안보 이슈로 등장한 ‘보호책임’론의 현재 동향은 어떠한가?
- 과연 오늘날 국가들은 ‘보호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 ‘보호책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본 평화구축이란 무엇인가?

■ 사회

최종무(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전 주네덜란드대사)

■ 발표

보리스 콘도호(유엔평화대학 교수/아시아평화안보센터 소장)

■ 토론

조창범(한국유엔협회 부회장/전 주호주대사)

크리스티안 바우레더(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보호담당관)

이번 세션에서는 최근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관련하여 주요쟁점으로 부상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보리스 콘도흐 유엔평화대학 교수/아시아평화안보센터 소장은 보호책임에 관한 개념의 발생과 주요쟁점을 발표하였고, 이어 최종무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전 주네덜란드대사의 사회로 크리스티안 바우레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보호담당관, 조창범 한국유엔협회 부회장/전 주호주대사의 지정 토론 및 자유토론으로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가 주권과 국제 규범 사이에서의 보호책임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따른 인권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며 앞으로 국제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보리스 콘도흐 유엔평화대학 교수/아시아평화안보센터 소장은 200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관련 ‘보호책임’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법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함으로써 르완다 및 코소보 학살 이후 반성적으로 제시된 국제사회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시민 보호 관련 움직임과 규범을 유엔의 개입, 특히 안보리의 역학관계와 연결하여 설명했으며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반인륜적 사례가 포착되고 있으나 중국이 안보리에서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하였다.

조창범 한국유엔협회 부회장/전 주호주대사는 지정토론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작동하게 된 보호책임 규범은 국제사회가 이룩한 중

요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국가 차원에서 시민 보호책임을 방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구체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크리스티안 바우레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보호담당관은 보호책임 개념이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호책임 관련 국제사회 개입 4대 조건을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 요건들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인 시민 보호를 위한 표준화 프로세스 및 합의의 기제를 도출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토론을 전개하였다.

참석한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이 세션을 종료하면서 국가 주권과 국제 규범 사이에서의 긴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호책임 규범은 일정부분 제한이 상존하고 선별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제 인권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가 부상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나아가 제주포럼에서 이 문제를 향후 보다 깊이 다룸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인권과 시민보호 쟁점을 이문화 시킬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평화연구의 최근 이슈와 과제

21세기를 접어들면서 평화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탈냉전시기를 전후한 시점까지는 국가 간의 군사적 분쟁으로부터의 평화가 전통적인 주관심사였다면 이제는 세계적으로 전통적 안보의 개념에 인간 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면서 다원화된 평화의 개념이 연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평화연구의 최근 이슈와 과제에 대하여 세계적인 평화연구기관인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한국 외국어대학교, 제주 평화연구원이 공동으로 평화연구의 큰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러한 트렌드의 동아시아에 적용가능성 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 평화연구에 대한 국제적인 트렌드와 동아시아의 현 상황
- 평화연구에 대한 리뷰를 바탕으로 철학적 사상, 이론적인 아이디어, 분쟁지역의 활동상황 검토
- 평화연구를 통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동아시아와 전세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이론적인 지식제공과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 사 회

이상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발 표

스캇 게이츠(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연구교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제임스 미어니크(노스텍사스대학교 교수)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1950년 설립되어 세계 최초의 평화연구소로서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PRIO)의 스캇 게이츠 연구교수는 과거 평화연구의 흐름을 소개하고 향후 평화연구의 과제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의 이성우 연구위원은 세계평화지수의 측정방법을 소개한 후 그 적용에 관해 미국과 6자 회담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와의 협력과 갈등의 경향을 예로 제시하며 살펴보았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션은 스캇 게이츠 연구교수와 이성우 연구위원의 발제와 더불어 제임스 미어니크 노스텍 사스대학 교수, 정기용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평화연구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스캇 게이츠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시대별 평화연구를 5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1950년대 후반 이전까지 ‘평화연구’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 현실주의에 입각한 전쟁연구에 치중되어 있었음을 밝히고 두 번째 시기인 1959년 이후 사회학, 경제학을 포함하여 이상주의,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평화연구가 시작되었음을 소개하였다. 이후 사회주의 혁명의 시기와 평화의 측면에서 황무지 같았던 시기를 거친 후 평화연구가 고립된 주제로서가 아닌 다른 학문과 연계되어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게이츠 교수는 평화연구의 흐름에 따라 세 가지 형태의 평화에 관해 논의한 바, 자유주의적 평화, 헤게모니적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소개하고 현재 평화연구는 지속가능한 평화에 관한 고민으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전쟁과 갈등의 부재뿐 아니라 긍정적 평화의 기능을 영속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평화연구

의 흐름에 관한 논의를 마쳤다.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까지의 전통적인 방법의 평화지수산출이 너무 다양한 개념적 지표를 하나의 숫자로 통합하였기 때문에 평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논의의 기반으로 삼는 데 문제점이 있었음을 밝히고 평화지수산출에 있어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누가, 어떤 형태로 어떤 행동을 어떤 대상에게 언제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사건 측정을 통한 평화 지수의 산출’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위원은 상기 방법론은 부정적 평화, 즉 갈등과 전쟁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어 평화연구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사건 측정’을 통해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미국과 6자회담 국가들과의 갈등과 협력관계의 흐름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행한 분쟁적인 행위의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상기 기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분쟁의 촉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협력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은 가장 높은 레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적 측정을 통해 미국의 6자회담 국가들 간 갈등과 협력 관계의 정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데,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과의 협력관계 정도에 있어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순으로 협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위와 같은 평화지수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 간 협력과 갈등 관계에 대한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적 수치로서 활용될 것을 기대하였다.

토론자인 정기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는 상기 두 발표에 대해 보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통합적인 평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 등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분야 또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연구의 일례가 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제임스 미어니크 노스텍사스대학교 교수는 평화연구의 향후 도전과제로서 평화연구가 단지 연구그룹 내에서만 회자될 것이 아니라 정책적 함의를 지닐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방법론과 수치로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평화라는 개념이 1960년 히피문화로 떠올러지는 것에 반하여 평화연구보다 개인의 안보에 초점을 맞춘 인간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려는 축에 대해서도 평화연구의 한 도전과제로 지적하였다.

이번 세션의 참가자들은 이러한 평화연구의 과제들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평화의 개념과 그 형태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평화연구가 보다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에 많은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201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치변동 예측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일정과 국내적 상황을 보면 2012년에는 새로운 지도자들의 등장 등 많은 권력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북한은 지도자 교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한국, 미국,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선거 등으로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국의 지도자 교체와 권력변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매일 매일의 정세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주한 외신기자들로부터 전망을 들어보았다.

- ‘대 정치변동의 해, 2012’ 내외신 기자들은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북한의 정치 변동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 그리고 이러한 국내 정치적 변동이 역내 지역 질서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 사 회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발 표

마틴 팩클러(뉴욕타임즈 아시아특파원)

아르템 산지에프(로씨스까야 가제타 한국특파원)

세바스티엔 팔레리(르 피가로 한국특파원)

수미다 타쿠시(교도통신 한국특파원)

이병종(전 뉴스위크 한국특파원)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일정과 국내적 상황을 보면 2012년에는 새로운 지도자들의 등장 등 많은 권력변동이 예상된다. 중국과 북한은 지도자 교체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한국, 미국,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선거 등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이러한 주요국의 지도자 교체와 권력변동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하여 매일 매일의 정세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주한 외신기자들로부터 그 전망을 들었다.

마틴 팩클러 뉴욕타임즈 아시아 특파원은 일본은 앞으로 흥미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그 나름의 속도로 변화를 겪어왔는데 경제침체를 맞아 전 세계 일본이 누리던 명성도 줄어드는 모습도 보이지만 앞으로는 변화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째, 일본의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간 총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으며 제2의 고이즈미와 같은 인물이 부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둘째, 중앙정부에 대해 지역사회가 흥미로운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인데, 후쿠시마 몇 개 도시에서는 학교 아이들이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고 지역사회가 정한 자체적인 조치를 취할 뿐이라고 말했다. 원래 일본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체제였지만 지역사회의 이니셔티브가 부상하고 있고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이 중앙정부로부터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아래로부터의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선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심판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북한과의 냉각상태를 이명박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고 한미 FTA는 농업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FTA문제를 대선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세바스티엔 팔레리 르 피가로 한국특파원은 용의 해인 2012년은 합의나 협상에 좋은 해라고 평가했다. 이 시점에서 2012년을 내다보면 6자 회담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배후에 몇 가지 노력이 있으며 향후 6개월 안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은 6자회담 해당국가 중 4개국에서 지도자 교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 측에서 미국의 대선과정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연결고리는 유지하되 대통령입장에서 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대응에 관해서는 다음 중국 지도부는 현재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대선에 관해 북한도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 간에 북한 문제에 관한 입장이 다르지만 이 판도에 북한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예상했다. 큰 그림을 그려보면 2012년은 여러 가지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해이고 극적인 타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해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수미다 타쿠시 교도통신 한국특파원은 2012년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미래에 대해 희망은 있지만 국가재해가 많아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지도자, 간단한 행정조직과 의사결정제도,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간단한 행정조직과 의사결정제도가 가장 중요하며 행정조직이 매우 복잡해 개혁이 필요하고 앞으로 일본에 3개의 큰 지진이 올 것으로 예측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일본의 이런 상황이 한국, 미국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문제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우려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아르템 산지에프 로씨스까야 가제타 한국특파원은 내년 러시아의 대선에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대선에 관련하여 푸틴은 러시아 정책에 있어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경제의 현대화가 큰 관건이며 현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APEC회의가 러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중요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러시아의 대동북아 정책을 살펴보면 현재와 거의 같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6자회담에 있어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해오고 있다며 한국과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라는 입장에 있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북한과 협력해 한국과의 관계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았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남북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동문제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 같은 중동국가는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중동변화가 중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한편, 일본은 3월 대참사를 비롯해 원전사태 등 큰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1~2년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일본의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전략인데, 에너지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재생에너지 같은 대안에너지를 이용하려는 정책변화가 일본경제에 단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종 전 뉴스위크 한국특파원은 2012년에 한국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제외한 각국의 선거를 볼 때 정책변화의 큰 시사점, 특히 대외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지도자들이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과거 선거를 보면 정권교체가 있을 때마다 대대적인 정책변화가 있었다며 한국의 선거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선거결과에는 정책적인 시사점이 있는데, 최근 한국의 선거를 보면 주로 경제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내년선거에서도 경제문제가 매우 중요할 것이며 복지문제 역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결과가 반드시 대외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2년 3월에 서울에서 열릴 핵 안보 정상회의가 중요하다고 하며 일본의 핵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핵 테러리즘, 북한 핵문제등

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협력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와 민족이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상생(相生)하고 공영(共榮)하는 지혜와 교훈을 탐구하여 공유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역사문제의 갈등은 지역 내 평화와 협력에 장애물이라는 인식하에 동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문제에 대한 갈등을 논의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과 평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세션은 유럽의 역사적 갈등과 이에 대한 해결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아시아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 유럽의 과거사 극복 성공사례 분석
- 동아시아 지역의 과거사 극복을 위한 시사점
- 과거사 문제가 공동체 건설에 미치는 영향

■ 사회

정재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발표

신정승(중국연구센터 소장/전 주중국대사)

스벤 살러(일본상지대학교 교수)

웅켅용(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책연구소 이사)

피터 더즈(스텐포드대학교 명예교수)

이번 세션에서는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이라는 주제로 유럽의 과거사 극복 성공사례 분석, 동아시아 지역의 과거사 극복을 위한 시사점, 과거사 문제가 공동체 건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각국의 역사교과서 비교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스벤 살러 일본상지대학교 교수는 독일과 일본의 역사 접근법은 서로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인식 프로세스와 과거에 대한 사과가 늦게 시작되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하나의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이 마련되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이는 동아시아에서도 가능할 것이며 현재 이러한 동아시아 정체성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사교육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 지역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고 애국주의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피터 더즈 스탠포드대학교 명예교수는 동아시아 국가 간에는 상당한 수준의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그 기본 원인이 역사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교과서에서는 다른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해당국가의 입장에서 선택되고 역사교육에 있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를 생각해봐야 하며 역사교과서도 역사적인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더즈 교수는 역사학자들이 모여 공통된 동아시아 근대역사를 다시 쓰려 노력하지만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완벽한 조화와 화해보다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새로운 합리적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며 역사교육에 있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충적 의견들의 제시,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인식과 이해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동아시아의 경우, 역사교과서에 자국의 경험이 타국의 경험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가 포함되어야 하고 자국의 역사를 알려주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결론적으로 완벽한 역사화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동북아시아국가들이 하나의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그는 중국의 경우 자국이 번영의 발원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위치와 인종 때문에 자신들이 아시아인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서구국가들과의 문화적 연대감을 크게 느낀다고 하므로 지역사회의 개념과 공동체의 개념이 동아시아에서 부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신정승 중국연구센터 소장/전 주중국대사는 한·중·일은 동북아시아 역사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완전한 공감대형성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렇다하더라도 그러한 노력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하나의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그는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역사인식의 갈등이 공동체 구축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고 역사화해는 수백 년이 걸리는 끊임없는 긴 여정이므로 설득과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옹캥용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책연구소 이사는 지난 45년간 동남아시아국가 또한 중국과 일본과의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한국과는 충돌이 없었고 지난 40여년에 걸쳐 동남아

국가의 발전모델은 교역과 성장, 경제재건에 집중해 온 결과 동남아지역 국민들은 일본, 중국과 탄탄한 경제관계구축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동남아국가와 한·중·일 관계는 각각의 교역·경제발전이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지만 역사에 관한 접근논의는 많지 않았으며 한·중·일에서는 국가재건노력, 국가정체성 확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동남아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일이 역사적 차이에 관하여 갑론을박하기보다는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중·일 간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제2차 세계 대전에 관한 문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한·중·일 간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하나의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도 다양한 국적과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고 특히, 아세안지역에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일과 동남아가 동아시아 공동체 또는 커뮤니티로서 단일의 요소가 없을 수도 있으나 평화로운 상생과 경제발전을 위해 함께 공통분모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국가나 인종이 배제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는 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번영에 대한 열망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 비핵화는 가능한가?

그 기회와 제약

동아시아에서 핵 상황은 다양하다. 최고의 핵무기 기술을 가진 나라와 약착같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나라, 핵무기 보유에 대비하여 고도의 핵기술을 유지하려는 나라 등이 공존하고 있다. 자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이유로 핵개발 기술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자주와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주장 하였고, 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다자 안보체제가 없는 동북아시아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핵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심각히 강구해야 할 때이어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핵없는 동아시아’는 가능한가? 그 대안은?
- 북한 핵의 검증가능한 해체는 가능한가?
- 6자 회담은 아직도 유용한가? 다른 대안은 있는가?
-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원자력의 미래에 어떤 함의를 주는가?

■ 사회

피터 헤이즈(나우틸러스 안보지속가능성연구소 소장)

■ 발표

가렛 에반스(호주국립대학교 총장)

김봉현(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아베 노부야수(일본국제문제연구소 군축·비확산촉진센터 소장)

최 강(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판젠창(중국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교수)

안보의 최대 사안 중 하나인 핵 이슈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서 핵 상황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최고의 핵무기 기술을 가진 나라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나라, 핵무기 보유에 대비해 고도의 핵 기술을 유지하려는 나라 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자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이유로 핵개발 기술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피터 헤이즈 나우틸러스 안보지속가능성연구소장의 사회로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첫 발표를 맡은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단순히 핵무기 관련 이슈뿐 아니라 핵 테러리즘 쟁점에 관한 관심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 안전, 핵 안보, 핵 비확산 문제를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 핵 안보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면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다양한 핵 안보대책을 논의 중이고 핵 안보에서 핵 안전까지 논의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원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테러리스트가 원전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핵폭탄과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며 핵 안보와 핵 안전이라는 이슈는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관점, 중국과 북한의 관계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핵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며 그 후에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판젠창 중국 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교수는 동아시아 비핵화와 관련된 장애물에 관해 설명하며 동아시아는 비핵화, 핵무기 비확산 문제를 동시에 다루기 위한 역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해당사관련 국가들이 협력적

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노부야수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군축비확산촉진센터 소장은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핵보유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미국을 주축으로 전술핵무기 폐기를 진행해야 하며 러시아와 미국이 주축이 돼 전략적으로 핵무기 폐기를 진행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또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핵 보유량은 적다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폐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국도 비핵화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하면 북한에게 핵무기 폐기를 종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언급하며 지난 20년간 북한과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협상을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점을 되짚어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북한에게 보상이나 큰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국제사회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렛 에반스 호주 국립대 총장은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비핵화에 동참을 해야만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많은 노력, 시간, 시도가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기를 최소화 즉, 2025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10%정도 줄이는데 기술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점을 들어 쉽지 않은 일임을 설명했다. 기존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 핵 억지력 차원에서 핵무기를 버려야 한다는 고전적인 사고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국가 간 협약에서도 많은 변

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최 강 교수는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의 차이가 존재하다고 설명하며 한국은 핵 역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동시에 핵 안전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 사고방지도 중요하지만 사고 지역관리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이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더 중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에 인내하며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보고 북한이 핵무기라는 것을 현대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이해를 강조했다.

동아시아 해양안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양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세계적인 수출입국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 해양은 역내 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 간의 해양에서의 갈등은 영토 분쟁과 경제적 이용 문제 등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도 주로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인 해양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최근 중국의 해양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가까운 시일 내 항공모함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역내 해양 세력 구도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였다. 향후 동아시아 해양안보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였다.

- 부상하는 중국, 왜 해군력 증강에 역점을 두고 있는가?
-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역내 해로안전과 영토분쟁에 주는 함의는?
-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해로안전의 효과적 관리 방안은?

■ 사회

후나바시 요이치(전 아사히신문 주필)

■ 발표

백진현(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사투 리마예(워싱턴 이스트·웨스트 센터 소장)

연쉐통(칭화대학교 국제연구소 소장)

존 아이켄베리(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동아시아 지역 해양 분쟁은 상존해왔다. 하지만 유독 2010년은 남중국해, 센카쿠열도, 천안함 사태 등 해양 관련문제가 대두된 해였다. 특히,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아시아 해양 국가들이 중국의 미온적인 입장을 지적하고 센카쿠열도 사태로 일본과 중국이 대립하는 등 중국책임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해양문제의 심각성을 중국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의 사회로 관련 당사국들의 해양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가졌다.

사투 리마예 워싱턴 동서문제연구소장은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 간 해양 마찰을 통해 얻은 교훈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찰활동을 줄이고 각국의 해양협약비준을 통해 이러한 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해상에서의 패권 장악욕구, 그리고 미국의 해상 권리보호욕구가 상충하면서 해상 마찰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지역안보구조의 구축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칭화대학교 연쉐통 교수는 해상마찰은 언제나 경제적 이해와 주권을 동시에 수반하는 특징이 있고 경제적 이해가 걸린 문제는 비교적 해결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격의 문제를 분리하여 관리·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있어 당사국 외 제3국의 개입은 사태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자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인 백진현 교수는 해상안보문제가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언제나 존재해온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결국은 국가들 상호 간 신뢰를 증진하고 국제해상법 준수를 통한 법적정당성의 확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 문제는 영토분쟁과, 대륙-해양세력 간 경합, 해상수송로 안전 항행권 및 해양경제개발 등의 제 이슈가 맞물려 있으므로 국가 이익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는 쟁점이므로 향후 제주포럼에 이러한 해양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주제라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두만강 개발계획과 동아시아 평화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는 두만강 개발계획은 지난 2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이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의 부상,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동아시아 다자협력에 대한 기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평화적 대안의 모색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 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 Tumen Initiative)은 주변국으로부터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동아시아의 다자협력의 시도라는 점에서 당사국과 GTI 담당자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을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두만강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 동북아 지역 발전을 위한 한·중·일·러의 협력
- 중국, 러시아 등의 변방 낙후지역 개발
- 북한의 개혁·개방과 연계

■ 사회

이수훈(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전 동북아시아대위원회위원장)

■ 발표

공계유(상하이 국제학연구소 부소장)

제임스 미어니크(노스텍사스대학교 틀루즈대학원 원장)

주수(두만강개발사무국 담당관)

타가 히데요시(와세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원장)

홍면기(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년의 역사를 두고 느리게 진행되어 온 두만강 개발계획이 GTI (Great Tumen Initiativ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GTI는 지역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그 초석을 다지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장점을 가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의 주제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수훈 교수의 사회로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평화세션이 진행되었다.

제임스 미어니크 노스텍사스대학교 툴루즈대학원 원장은 미국 대외정책의 시각에서 남북관계와 중국의 부상에 초점을 두고 두만강 지역의 다자협력을 논의하였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모험주의를 통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 조건이고 미국은 북한 내 체제변화에도 관심이 있으며 특히 북한의 평화, 안정, 개방적인 체제가 구축되어 인권, 민주주의, 경제발전이 북한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GTI를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보고 두만강개발계획이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진다면 북한경제개방과 북한주민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고 북한의 경제개방이 북한의 호전성을 감소시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GTI가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달성하더라도 미국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 첫째, 두만강 지역에서 개방과 교류가 확대되면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교역과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둘째, 북한 정치구조가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경제번영의 결과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추진하는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셋째,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가 높아지면 인권, 비핵화 등의 문제에 대해 중국은 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주수 GTI 담당관은 동북아가 교류와 협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도전과제들도 있음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정치적 차이, 경제적 협의체의 부재, 상이한 경제수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GTI 회원국들은 주된 목표는 상호이익을 높이고 기술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협력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회원국들은 교통, 관광, 에너지, 환경, 투자의 다섯 부문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타가 히데요시 와세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원장은 일본이 두만강 개발계획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이유로 네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지자체의 참여를 가로막는 일본 국내의 정치적 장애물 즉, 중앙정부가 대외정책의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점, 둘째, 동해의 해안지역은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고 대부분의 투자와 노동력이 태평양벨트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셋째, 일본정부는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두만강지역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고 주요 정당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두만강개발계획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 넷째, 일본 북부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장애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타가 히데요시 원장은 일본의 입장에서 두만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려면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견차를 극복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주도권을 허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은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주변국이 공동으로 어떤 형태의 소지역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지 않는 한 동북아 지역은 불안정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정적인 협력관계 모색과 관련하여 각국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중국의 부상: 기회와 도전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제 경제규모로는 세계 제2위의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그 성장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의 부상이 과연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 국제정치경제면에서 주는 영향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각국의 대응책도 다양하다. 중국의 부상을 잘 이해하고 상호이익을 위해 공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 중국의 부상, 미국의 쇠퇴? 현실인가 허구인가?
-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하는가?
- 역내 국가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도전은?

■ 사회

나안 찬다(예일대학교 세계화연구예일센터 소장)

■ 발표

모하메드 자와르 하싼(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원 회장)

신정승(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소 소장)

연쉐통(칭화대학교 국제연구소 소장)

존 아이켄베리(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후나바시 요이치(전 아사히신문 주필)

개혁개방 이후 급속도의 경제발전을 통한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G2 논쟁과 맞물려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등장 가능성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온 바, 이번 회의에서는 나얀 찬다 예일대 교수의 사회로 학계, 언론계, 외교가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러한 중국의 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짚어보고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정치질서의 지형을 전망해 보았다.

모하메드 자와르 하싼 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원 회장은 중국의 부상을 사실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부상이라 규정하고 과거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아시아 지역이 부상했던 사례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힘이라는 것은 양분화 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부상함으로써 주변 아시아 국가들도 함께 부상하며 단지 부상 속도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경쟁 문제를 볼 때 2040-50년이 되면 중국의 발전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하며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것이나 군사 부문에서는 미국은 현재 중국의 6배 규모로 중국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우방국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대체할 만한 나라는 조만간 없을 것이라 진단하고 따라서 중국은 단순히 자국 경제뿐만 아니라 APEC처럼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인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발전에도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중국의 부상이 일본에게 수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었으며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 다음

으로 강력한 경기 회복을 위한 엔진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도전 과제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 증가, 노조파업,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가 현존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진단하면서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 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옌쉐통 칭화대학교 국제연구소장은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상반된 시각을 소개하며 중국의 향후 전략적 위치가 미국에 필적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뒤쳐져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설명했다. 빠른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성장이 해외 투자 확대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하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국력을 고려할 때 미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아직 많다고 분석했다. 대신 경제력, 군사력 등의 하드파워 대신 중국의 문화적 파급력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어 학습 수요 등을 통해 예측해 본다면 향후 중국 문화의 범세계적 확대는 상당히 선명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옌소장은 이에 덧붙여 최근 김정일 방중이 한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으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매년 오는 190명의 타국지도자일 뿐이며 한국 여론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의 국가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데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세계무대에서 힘의 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뿐 아니라

비 미국, 인도와 같은 아시아 그리고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국제질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언급했다. 중요한 점은 중국의 부상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현재 국제질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 또한 기존 국제질서(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고 중국에 맞춰 스스로 적절한 변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부상함으로써 2030년 이전 미국과 비등한 힘을 가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반도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중국 대북정책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국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중국이 열린 마음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부응해 더욱 책임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역할까지 해줄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통해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공세적 진출과 정치적 영향력 강화, 화평굴기와 유소작위 등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및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유엔 보호책임 관련 중국의 입장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이끌어 내었으며 향후 중국의 전략적 입장 설정이 역내·외 및 글로벌 정치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평화와 안보: 한반도와 제주

- 한·중·일 협력
-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외교관라운드테이블]
- 북한의 권력계승과 개방개혁 전망
-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
- 제주프로세스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한·중·일 협력

중국은 이미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으로 성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나라들의 경제 발전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는 성장을 계속하면서 독주했다. 중국의 성장의 내면에는 지속적인 투자와 핵심산업의 육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과 중국은 현 시점부터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아시아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야 한다. 일본은 최근에 지진으로 인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일본은 아시아 국가의 협력으로 다시 새로운 미래를 찾아갈 것이며, 이와 같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일본도 한국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부흥의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미래 산업 지도자, 중국 경제를 주도하는 대기업 지도자, 한국과 중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국과 한국의 협력의 미래를 조명하였다.

■ 좌 장

한태규(제주평화연구원 원장/제주포럼 집행위원장)

■ 기조연설

김도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양수길(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이희범(STX에너지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자오샤오강(중국 남차그룹 회장)

히로유키 아라이(전 일본 자민당간사장/일본 신당개혁 간사장)

새로운 아시아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중국의 부상”이라는 이슈를 빼놓을 수 없다. 한·중 수교 이래에 급속히 교류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관련한 각 분야에서는 다양한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중 양국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장의 사회로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 이희범 STX에너지 회장 및 자오샤오강 중국 남차그룹 회장 등 양국 협력관련 최고위 인사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은 한중 간 과학기술 협력을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중 양국만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인류를 위한 협력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한·중 양국 간 향후 과학기술협력 이슈와 관련 협력분야확대, 인적자원교류, 그리고 산·학·관 연계구축 등의 이슈에 관해 자세하게 제안하였다. 한편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은 동아시아 녹색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녹색성장전략 이행과정에서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중국 남차그룹의 자오샤오강 회장은 중국 고속철도산업의 발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인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속철도산업의 발전은 그린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녹색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고속

철도 발전정책을 확립하였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을 비롯한 쏘아시아 고속철도망구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 추진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번 회의는 한·중 양국 간 협력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산업분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였으며 국가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움직임에 따라 기존의 기술과 인적자원 간 협력에서부터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그린에너지 산업에 이르기까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참가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한반도가 분단된 지 60여 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남북한 간 교류는 거의 단절된 상태이다. 남북한은 제각기 통일에 대해 말은 아끼지 않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 내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전망은 서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3대 세습체제 추진으로 한반도에는 변화의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였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과 더불어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다. 지금 당장 한반도의 통일 기회가 주어질 경우 주변국들의 반응을 점검해 보았다.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경제적으로 강력한 통일 국가의 출현에 대해 주변국들이 긴장 할 것인지 등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화도 논의 하였다.

- 현재 한반도 통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들에게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 사회

곽승준(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 주제발표

이 근(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발표

마크 민턴(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발터 클리츠(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소장)

수창허(상해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대학 학장)

에브게니 아파나시예프(러시아 외교부 인사국장)

마사오 오코노기(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

2011년 제6회를 맞은 제주포럼 3일째인 5.29(일) 오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관하는 전체회의 VI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학자, 민간전문가, 주요국 대사 등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통일 관련 현안들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사회를 맡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북한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일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중국도 중국 인민을 위해 “조화로운 중국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무시한 북한에 대한 지난 20년 동안의 햇볕정책은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 논리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북한 밖에 없으며, 북한도 중국처럼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 서울대 교수는,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행복증진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북한 지역의 발전과 남한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통일이 되면 남한의 기업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2류 시민’ 취급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행정적 시스템을 미리 갖추어야 하며 남한의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저야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마크 민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와 같은 점진주의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할 것을 주장하며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서울의 평양사

무소'와 '평양의 서울 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직에서 은퇴한 외교대사를 책임자로 임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평양사무소'와 '평양의 미국사무소'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발터 클리츠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소장은 남·북이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금강산관광과 같은 상호 교환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람들이 계속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통일, 비핵화와 같은 최종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작은 이슈들부터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수창허 상해외국어대학교 학장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그들이 한국, 일본, 대만과 맺은 안보조약이 한반도의 통일뿐 아니라 중국의 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데 남·북 간의 대화, 교류, 협력이 가장 효율적이며 6자회담 메커니즘은 한반도 이슈를 논의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에브게니 아파나시예프 러시아 외교부 국장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4가지 전제 조건(△국제적 여건 형성,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정치 엘리트들의 의지, △통일을 위한 물질·재정적 분배 시스템 확보, △남·북한 정신적 이질성 극복)을 제시하며,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인프라건설사업(시베리아와 남·북한을 잇는 철도사업, 파이프라인 건설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마사오 오키노기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는 북한이 최근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과 같은 대남 무력도발을 시도한 이유는 그 동안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였으며 새로운 슈퍼파워인 중국

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자신감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분석하였다. 특히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체계를 완성하기까지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그때까지 북한은 남·북한 사이의 균형을 무력도발하고 그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외교관라운드테이블]

한반도 주변 정세, 남북한 관계 및 통일전망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 통일전망 등에 대해 학자와 언론의 시각에서 벗어나 한반도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한 주요국대사들로부터 그들의 보는 관점과 견해를 들어보았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 이후의 각국의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들어보았다.

-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주변국들의 시각 및 입장
-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한 주변국 주요 대사들의 평가
- 한반도 통일 이후의 협력

■ 사회

곽승준(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 발표

마크 토클라(주한 미국부대사)

스칸드 란잔 타알(주한 인도대사)

이준규(외교안보연구원 원장)

콘스탄틴 브누코프(주한 러시아대사)

토마스 코즐로프스키(주한 EU대사)

이번 세션에서는 광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를 주제삼아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크 토콜라 주한 미국부대사는 미국은 지속적으로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시아 국가들의 번영과 나아가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확고한 의지로 여러 일들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은 한반도 통일로 한국이 글로벌 국가로서 세계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글로벌 거버넌스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고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러시아는 현재 중단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 6자회담의 실무특별의장국으로서 6자회담의 지도원리(guiding principles)를 마련함은 물론 회담 국가들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으며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대사는 EU는 유럽의 직접투자대상 국가로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경제, 지역 문제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EU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북한 재건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크 토콜라 주한 미국부대사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반대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화적이며 건설적인 한국의 통일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모든 협력들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의지를

가지고 회담에 참여해야 한반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미국은 앞으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번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나아가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확고한 의지로 여러 일들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은 한반도 통일의 이점은 첫째, 한국이 평화롭고 핵 없는 국가로서의 통일한국을 구축함으로써 녹색평화를 통한 녹색성장을 이루고 G8에 걸맞은 글로벌 국가로서 세계안보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둘째, 남북한의 분단 극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寧으로 전 세계 평화와 안寧에 기여할 수 있고, 통일을 통해 이산가족, 전쟁포로 관련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고, 셋째, 한국 정부의 새로운 비전으로 사람들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고, 넷째, 통일은 세계화 속 한국의 역할 증대를 가져와 글로벌 거버넌스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한반도 발전은 러시아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한반도 문제가 러시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지만 한국과 북한은 아직도 60년간 냉전 중이고 언제든 전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계속된 노력으로 북한과의 갈등이 올해 초부터 완화되기 시작했고 북한과의 교류에서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러시아는 6자회담 내 실무특별의장국으로서 현재 중단된 6자회담 지도원리(guiding principles)를 마련했고 회담 국가들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대사는 미국만이 한반도 상황에 관심이 많아 보이지만 EU도 한반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는 EU의 안보, 정치, 경제 모든 분야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EU는 유럽의 직접투자대상 국가로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경제, 지역 문제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조성한 긴장은 EU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북한의 열린 대화와 민주화, 국교 정상화 없이 실질적 통일은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재건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랐으며 6자회담과 같은 국제사회의 다자간의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의 권력계승과 개방개혁 전망

북한에서 추진 중인 세습적 권력계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사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대내외적인 변화와 맞물려 어떻게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 북한의 세습적 권력승계, 성공할 것인가?
- 북한의 권력세습 과도기에 권력투쟁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 권력세습 과도기에 북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가?
- 북한 정권이 불안정하게 될 때에 미국 중국 한국은 각각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 세습적 권력승계는 개혁 개방과 양립할 수 있는가?
- '북한식 현대화'는 과연 실현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 사회

티 제이 펨펠(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정치학 교수)

■ 발표

마사오 오코노기(게이오대학교 법정대학 명예교수)

조동호(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교수)

존 들러리(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조교수)

존 스웬슨 라이트(캠브리지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소장)

진징이(북경대학교 코리아연구센터 교수)

북한에서 추진 중인 세습적 권력계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사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북한의 안정성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안보문제와 관련되는 바, 이번 세션에서는 미 버클리대 펄펠 교수의 사회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의 각계 안보 관련 석학들이 모여 향후 북한의 권력승계 및 이와 관련된 개방가능성 문제를 짚어보며 향후 평화구현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마사오 오키노기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권력승계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에서 30년 만에 당 대회가 열려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정은을 임명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이에 따라 권력승계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내다봤다. 또 경제부문에 대해 북한은 중국을 대상으로 개혁개방을 지지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오히려 호전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며 그 근거로 시장규모의 확대와 북-중 교역의 심화를 들며 교역량 증가와 대중수출량의 증대를 예시했다. 반면 시장 확대와 관련해 부작용도 노정되고 있어 소득, 삶의 질, 계층 간·지역 간 격차 발생, 공장부문 감소 등의 문제들이 부상한다고 보았다. 정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지만 경제는 자유 시장을 허용한다는 것이 모순이긴 하지만 북한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일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조동호 교수는 북한의 미래에 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내년 북한의 강성대국 선언은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새 지도자 김정은은 발전, 성장 같은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워야 할 것이므로 경제개혁, 문호개방 같은 혁신적인 노선의 등장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존 들러리 연세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변화와 안보, 북한의 경제정책이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를 국제사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안보우선정책, 계획경제와 개방경제 사이의 딜레마 등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에 가능한 한 북한에 대한 경제정책의 촉진을 강조했다. 교역뿐 아니라 지식교류, 인력육성 등 북한주민들이 외부로 나갈 기회를 주고 외부인들로 하여금 북한에 들어가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주장하며 제재가 필요하지만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 가능한 한 그 범위는 좁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북한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각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존 스웬슨 라이트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는 권력계승에 관해 언급했고 김정은의 단점을 김정일처럼 18년간 후계자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정일 중심으로 20년간 정치를 한 것과는 달리 현재는 군당정이 서로 경쟁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에 실질적인 시장변화는 있었지만 민심의 필요 때문에 국민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 보았으며 이는 국가의 권력에 국민들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북한의 핵문제 접근법과 관련하여 유럽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럽 내에 북한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적인 지원과 북한이

평양과기대학을 설립하는데 유럽이 도움을 주면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진징이 북경대 교수는 후계구도구축의 첫 단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원만하게 후계 작업을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말했다. 북한에는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과 북한은 양국 간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분석하면서 앞으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도 원만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

제주도가 그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 활용하여, 미래에 가시화 될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맡고자 하는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홍가포르’ 모델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정보의 이동이 자유로운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형성을 지향한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2005년 1월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한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를 일궈 나가기 위한 허브(hub)를 제주에 구축하려는 국가정책의 가시화라 하겠다. 그동안 이러한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향후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국제자유도시사업 추진의 현황과 평가
- 국제자유도시사업 전망
- 국제자유도시사업과 평화의 섬 달성을 위한 제주도민의 노력

■ 사회

고성준(제주국제협의회 회장/제주대학교 교수)

■ 참석자

강승화(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승한(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김부찬(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제주대학교 교수)

김성준(제주지방자치학회 회장/제주대학교 교수)

김창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

양길현(제주대학교 교수회장)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유지은(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장성수(제주특별관광경제권 MICE 인재양성센터장/제주대학교 교수)

정대연(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한국정부 대표/제주대학교 교수)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허정옥(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제주도가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 활용하여 미래에 가시화될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역할을 맡는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홍가포르’를 모델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사람, 상품, 자본, 정보의 이동이 자유로운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를 지향한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2005년 1월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및 선포한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지구촌에 진정한 평화를 일궈나가기 위한 허브를 제주에 구축하려는 국가정책의 가시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회의는 고성준 제주국제협의회 회장/제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참가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은 제주도의 미래 비전은 자유도시이고 자유도시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평화의 섬’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평화의 섬’은 국제자유도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창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은 자신이 속한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에서 주로 투자유치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9년이 지나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제주의 선도적 역할을 하느냐하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외투자유치가 필요한데 수익성은 낮고 손실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유치가 힘들고 제주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경쟁특구,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인구와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도에서는 정부를 통해 인센티브 작업을 하였으나 시일이 지나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현상 때문에 제주만의 인센티브가 갖는 독점적 성격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조달책 마련과 경제인구의 증가를 위해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외국인 경제인구의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제주를 교통, 문화, 서비스, 학술 부문에서 수준 높은 복합적 컨벤션도시가 되어야 하며 수준 있는 국내외 포럼을 유치하여 제주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면 자연스럽게 자유도시가 되며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국제도시가 된다고 말했다.

장성수 제주특별광역경제권 MICE 인재양성센터장/제주대학교 교수는 국제자유화도시 추진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졌다고 하는데 까다로운 비자가 과연 얼마나 완화됐고 얼마나 많은 제도가 정착되어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지방정부는 높은 곳을 보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젊은 경제인구의 유출 등 활동성이 위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도정부의 리더십과 함께 자금문제(투자유치), 신 성장 동력, 기술전수, 컨벤션 MICE를 통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10년을 맞는 전환점이라면서 지금까지의 성과, 한계, 앞으로의 각오를 논의하고 방향설정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새로운 1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실장은 제주도는 크게 4가지의 한계점을 보였는데, 첫째, 국제자유도시 추진 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

리지 못했고 복합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가시적인 모습들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둘째, 국제자유도시 추진 중 환경보다는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며 추진하다보니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환경갈등을 초래하여 국제자유도시 추진동력을 잃었고 셋째, 시행 당시 상당했던 중앙정부의 관심이 현 시점에서는 크게 줄어 추진력을 잃었으며, 넷째, 사업구조개편과 인프라 확충에 치우쳐 노동, 교육, 문화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연동하여 여타 다른 부분들 간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대연 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한국정부 대표/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사회는 딜레마 사회라면서 자유도시, 세계 환경수도, 해군기지건설 등 경제 및 환경문제와 관련한 딜레마를 탈출할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의 자체 정화능력은 한계에 달했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있어 경제성과 인프라구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주의 환경용량을 잘 파악하여 환경과 보존 간 어울림을 이루어야 하기에 오염총량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준 제주지방자치학회장/제주대학교 교수는 국제자유도시와 세계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자체역량과 의식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의 평화봉사단은 올해 5주년을 맞이하는데 몽골에 몇 회 다녀온 것이 활동의 전부라면서 선진시민으로서의 마음과 평화봉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견대상 국가를 선정할 때 평화와 자유 등 제주의 이미지와 맞는 국가를 선정 후 파견하여 상호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찬 전 대한국제법학회장/제주대학교 교수는 평화라는 것은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데, 올해부터 제주포럼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된다고 국제자유도시보다 평화의 섬 논의가 먼저였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평화라는 의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평화의 기반아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회장은 ‘제주가 세계로 간다’와 ‘세계가 제주로 간다’라는 모토에서 ‘제주가 세계로 간다’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해군기지건설과 같은 군사적 장식에는 단호히 반대를 한다고 말했다. 제주는 국방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낫고 이북 감귤 보내기 운동이 더욱 더 제주의 이미지 구현에 적합하다고 역설했다.

유지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 자문대사는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국제화도 꼭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마인드를 갖추도록 하고 젊은 학생들의 경우 국제화된 감각과 외국어 실력을 기르도록 해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주의 미래를 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서 정대현 교수가 말한 딜레마의 사회에 동감하고 국제자유도시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제주도가 이러한 비전에 빠져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갈등과 아픔을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연 제주가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규모, 인구규모, 제도, 실력을 갖추었는가에 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가 비교도시인 싱가포르에서 벗어나 좁은 국토 안에서 부를 이루어 독립국의 면모를 갖추었던 옛 탐라국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승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제주포럼이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추진되는 MICE산업을 뒷받침이 될 수 있어야하고 내적인 평화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라보면 그동안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향후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논의가 이루어진 심도 깊은 세션이었다.

제주프로세스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동아시아에서 다자안보체제구축을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 내 국가들 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과정을 동아시아의 현실에 적용해 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주 프로세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향후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 유럽의 유럽안보협의기구(CSCE)와 유럽연합(EU)의 초석이 되었던 ‘헬싱키프로세스’ 동아시아에도 적용 가능한가?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미래는?
- 제5회 제주포럼에서 채택되었던 ‘제주프로세스’구상의 현재와 미래는?

■ 사회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발표

노다리 시모니아(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전 IMEMO 소장)

박철희(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윤병세(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찰스 모리슨(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소장)

관젠창(중국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교수)

동아시아에서 다자 안보 구축을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 내 국가들 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세션에서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지난 제주포럼에서 채택된 제주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점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참석자들 모두 다양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다자안보구축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중개국으로써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 첫 단계로 6자회담의 중요성과 재개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효과적인 제주 프로세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더욱 명백한 비전, 니즈,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노다리 시모니아 알렉산드로비치 전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장은 현재 안보체제에 관한 개인적 소견은 분산화라는 한 단어로 표현 가능하며 따라서 빠른 시일 내 다자 안보체제 구축은 어렵다고 밝혔다. 동북아 지역은 지정학적인 면, 소련의 존재 여부 등 유럽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유럽과의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포함되어있는 다자안보체제에 중국이 동의할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포함되는 포럼이 된다면 제주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개입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판젠창 중국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교수는 지속가능한 방향을 위해 3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 첫째는 화해라고 말했다. 현재는 동

북아 지역에 국가들 상호 간 신뢰가 부족한데, 공동체 구축에 있어 불신은 가장 큰 장벽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 화해와 같이 동북아 국가들이 서로 국가 간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을 때, 즉 역사적 장벽을 넘어설 때 공동체 구축이 쉬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두 번째는 포용성으로서 지속가능한 방향을 위해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지만 동북아 지역에는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나의 세력이 집단이 안보구축체제를 장악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역내 국가뿐 아니라 미국의 참여 필요하고 미국은 공동체 구축을 위해 좋든 싫든 필요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폭넓은 참여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북한이 어떻게 참여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음 제주 포럼에 북한이 참여 가능하다면 올바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사례를 따르자면 6자회담이 첫 단계에서는 효과적 제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의도를 보면 6자회담은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뿐만 아니라 매우 유용한 다자안보협력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6자회담에서 공식트랙의 진전을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공동체 구축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제주 프로세스가 첫 단추를 끼우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자안보체제구축에는 한국이 매우 독특한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 한국이 맺는 미국, 북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도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

는 중국 정부가 안보동맹에 관하여 사고의 전환을 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중국 정부가 실용적인 측면을 중시하게 되면서 실제로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대만 관계에 있어서는 양자동맹관계가 성립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6자회담의 재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주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고 특히 많은 기업들과 민간부분으로부터의 참여를 보며 큰 감동을 받았으며 제주프로세스가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병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연결의 문제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첫 번째 트랙은 지역협력대화의 모든 밑바탕에는 비핵화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평화안보 체제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결부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CSC처럼 안보와 경제적 협력을 함께 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북한이 실질적 이득을 보고 핵무기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트랙은 어떠한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다양한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신뢰 구축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물

론 한국이 중개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다자안보체제에 있어서는 북핵문제를 지켜보며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적인 여러 아젠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굳이 6자회담을 살리지 않고 진행하려면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두 번째 트랙은 제주프로세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찰스 모리슨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소장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위해 유럽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 적합한 독자적 모델을 구축해야하고 북한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논의에 많은 제약이 있는 6자회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채널 외에도 비공식 채널로 다양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6자회담의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고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정부단계에서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면 제주도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자면 사실 일본은 역내 다자안보체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접근 방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일본의 입장은 어떠한 다자체제이든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길 원하고 미국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일본이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 중국에게 적극적인 접근이 아닌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역 내 안보보다 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본이 보다 창의적인 생

각을 가지고 다자안보체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참여를 위해 역사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접근이 변화해야 하는데, 중·일 양국의 신뢰 구축을 통해 일본이 조금 더 편하게 중국에 다가갈 수 있을 때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다자안보체제의 중심점을 찾는 데 관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6자회담에 한발만 넣고 완전히 빠지지 않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많은 일본인들은 6자회담이 현재보다는 미래에 유용할 것이라 기대하며 일본이 6자회담이 죽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회담의 재개는 한국이 주도하거나 한국과 미국이 함께 주도하길 원하며 재개된다면 고립되지 않기 위해 참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현 정부를 보면 말로는 포용하고자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대화를 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환경과 국제협력

- DMZ 평화·생태적 이용·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 거세어지는 기후변화와 강력해지는 재난, 대응책은 있는가?
 - 국제보호구역과 제주형 보전모델
 - 그린에너지 응용기술과 신사업 기회
 - 세계자연유산과 지질환경보존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진 및 쓰나미 위험
- 유엔글로벌콤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여 I
- 유엔글로벌콤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여 II



DMZ 평화·생태적 이용·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DMZ는 정치, 군사,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필연적으로 남북한의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DMZ에서의 교류 협력은 남북한 전체의 교류협력과 통일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코리아DMZ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분단의 상징으로만 알려져 있는 DMZ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공동번영에 DMZ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안보, 생태,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방안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 DMZ의 평화·생태적 가치는 무엇인가?
- 어떻게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DMZ의 평화·생태적 이용·보존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차원에서 상생과 공영을 증진시킬 것인가?

■ 사회

이춘호(코리아DMZ협의회 상임대표/DMZ미래연합 상임대표)

■ 주제발표

김귀곤(코리아DMZ협의회 상임대표/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발표

문성묵(코리아DMZ협의회 남북분과위원 원장/전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손기웅(코리아DMZ협의회 사무처처장/코리아접경포럼 대표)

이재승(코리아DMZ협의회 국제분과위원 원장/고려대학교 교수)

함광복(코리아DMZ협의회 국내분과위원 원장/한국DMZ연구소 소장)

DMZ 평화·생태적 이용·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김귀곤 코리아DMZ협의회 상임대표는 녹색경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DMZ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손기웅 코리아 DMZ협의회 사무처처장은 DMZ의 평화 생태적 가치 관점에서 DMZ 보존문제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상생공영과 녹색성장을 위해 이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함광복 코리아DMZ협의회 국내분과위원 원장은 지뢰로 인한 참상을 제시하고 리본플라워 (Re-Born Flower) 운동을 제안했고, 문성묵 코리아 DMZ협의회 남북분과위원 원장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재승 코리아DMZ협의회 국제분과위원 원장은 한국 DMZ 생태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귀곤 코리아DMZ협의회 상임대표는 주제 발표에서 DMZ는 비극적인 한국전쟁의 산물이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생태의 보고가 되었고, 따라서 녹색경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DMZ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MZ는 한국전쟁(1950-53년) 이전에는 주로 논과 밭이었다가 한국전쟁 동안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전후 반세기 동안 정치적 긴장 지역으로 인간이 접근이 허용되지 않다 보니 생태계가 자연 상태로 잘 보전되어, 그 결과 현재 DMZ는 20개 유형의 서식지와 2000여 종의 생물이 DMZ지역과 민통선 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완충지역으로 민통선 지역을 DMZ와 동일한 핵심지역으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태적 관점에서 DMZ 문제를 국가와 지방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유엔 레드플러스

(UN-REDD)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에 DMZ 지역의 생태계를 더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그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며, 또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손기웅 코리아DMZ협의회 사무처장은 DMZ 보존문제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상생공영과 녹색성장을 위한 DMZ 평화 및 생태적 이용의 의미와 가치를 제시했다. 상생공영이라는 국가 대전략의 실천 주요 방향인 녹색성장과 대북통일 정책이 맞물려 연관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해 수단과 성공의 잣대가 DMZ의 생태 실행이고 녹색성장은 진정한 복지와 인간의 번영을 위해 인간과 자연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반도 통일 정책을 철학적 정책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신성장녹색성장을 구현하고, 둘째 상생공영 아래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과 PKO활동 같은 통합 정책을 실행하고, 셋째 문화적 차원에서 문화 외교를 실행하는 것으로, 녹색성장을 상생공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체가 상생공영의 차원에서 한반도 경제 공동체와 환경 공동체를 동시에 만들어 그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때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결국 통일에 이르게 될 것이라 했다.

함광복 코리아DMZ협의회 국내분과위원장은 지뢰로 인한 인간, 동물, 자연의 피해와 경제 손실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리본플라워(Re-Born Flower) 운동을 제안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26,000명의 사람이 지뢰로 인해 살상되고 매 20분마다 지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희생자의 20%를 차지하며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3,000여 명의 민간인이 용도 폐기된 지뢰로 밟고 피해를 입었는데, 지뢰는 인간과 동물, 자연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뢰를 제거하는 데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고 말하고 지뢰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평화의 나무를 심자는 감성적인 제안을 했다.

문성묵 코리아DMZ협의회 남북분과위원장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남한은 DMZ를 평화적으로 적절하게 이용하고 생태를 보존하자는 입장에서 북한과 1992년에 DMZ의 평화적 사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고, 2000년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경의선, 동해선과 7번국도, 서쪽에는 개성공단, 동쪽에는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고 2004년에는 남북한 장성급 회담에서 심리적 선전물 중단을 합의했고, 전반적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군사 유해를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하고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DMZ 접경지역에서 유치하고 직통전화를 고위급 핫라인까지 확대해서 NLL에서 긴급 의사소통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교류 확대와 남북의 공동 번영, 통일의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승 코리아DMZ협의회 국제분과위원장은 한국 DMZ 생태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DMZ의 생태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은 전 세계 많은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제적이고 다각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DMZ의 평화와 생태를 위한 협력은 통일 이후의 미래를 지향하는 모델로서 한반도의 급변 사태를 대비해서 한국의 DMZ 사례를 국제적 차원에서 일반적 사

례로 만들어 국제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종전의 국제 프로젝트들이 개별적으로 추구되어 추진 기반이 취약한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구에서 동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 할 수 있는 국제적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광범위하고 저변이 넓은 기반을 구축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발표자들은 DMZ 평화·생태적 이용·보존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남북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말고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강조했다.

거세어지는 기후변화와 강력해지는 재난, 대응책은 있는가?

일본 대지진을 통해 현실화된 기후변화와 대재앙의 현황을 펴보고 우리나라의 재난체계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일본에서 발생된 지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 소방방재청이 구성한 지진긴급대응팀의 활동과 향후 대책,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일본 대지진을 볼 때, 우리나라도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화를 할 필요가 있는가?
- 지진, 해일, 방사능 공포와 불안감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실태와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은?
- 원전사고를 포함한 지진·해일 등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 재난상황 시 구조기관과 지원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민간차원의 대응책, 대국민 소통 및 반응체계는?

■ 사 회

허정옥(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박연수(소방방재청 청장)

■ 토 론

강은희(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박재범(서울신문 주필)

이래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상만(국립방재연구소 소장)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세션에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기존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재난에 있어서 세계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하고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한 대응책의 모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한발 앞서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분석시스템은 정확성이 80%에 이르며 세계최초로 휴대폰문자정보서비스도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진해일 예방경보시스템 및 지진해일대응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자연재해 81% 감소, 물놀이 51% 감소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2014년까지는 인명피해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장은 2천년도 들어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그 피해액이 2조원 대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는 재난관리의 선진화를 이룩하여야 하며, 국가차원에서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전폭적인 R&D 투자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레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앞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재해예방시스템을 통한 재난 관리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기후로 인한 재난보다 사람에 의한 재난의 심각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후 비록 원전사고가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방사능에게 대한 걱정 등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안겨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로 토론한 박재범 서울신문 주필은 일본의 방사능 한국

이동 가능성을 둘러싸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강은희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은 정보기술이 재난피해예방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방청객들도 토론에 참여하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평도 주민의 찢질방 거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재해난민대책이 아직도 선진국의 수준에 비하여 뒤쳐져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제보호구역과 제주형 보전모델

새로운 미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 유엔이 인정한 생물권보전 지역, 세계자연유산, 3개의 람사르사이트, 세계지질공원, 제주가 세계의 환경보물섬이 된 그 이유가 있다. 세계에는 다양한 국제보호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그 지역의 독특한 보전방식이 존재한다. 역사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듯이 국제보호지역의 보전모델 또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제주에서 찾을 가능성은 없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였다.

- 제주의 국제보호지역 보전모델은 어떠한가?
- 진정 세계에서 보편적인 모델로 제시가 가능한가?

■ 사회

최청일(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 의장)

■ 발표

이병욱(세종대학교 교수/전 환경부차관)

이상돈(이화여자대학교 교수/한국습지학회 회장)

조도순(가톨릭대학교 교수/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 부의장)

윤용택(제주대학교 교수)

제주의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세계자연유산, 3개의 랍사르 사이트,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여러 보호구역들은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국제자연보전연맹)의 기준에 따라 자연생태지역이 보호되며 생물권 보전의 차원에서 지역개발을 이루고 지역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에 맞는 보전방식이 논의되고 이 모델의 국제적인 통용성에 관한 문제의 논의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청일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 의장의 사회로 제주형 보전모델과 이를 세계적인 보전모델로써 추진을 가능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조도순 가톨릭대학교 교수이자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 부의장은 생물권 보전지역에 관한 소개와 구체적인 보전모델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현재 세계자연유산으로는 국내에서 제주도만이 유일하며 자연유산은 오로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생물권 보전지역의 경우 지역민 생활수준 향상도 목적으로 하며 개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보전과 발전을 어떻게 동시에 발전시킬 것인가의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정하여 보전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있어서는 핵심/완충/전이로 나누어 용도를 다르게 하여 보전 및 개발하는 방안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해녀들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인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녀활동 구역의 해산물 이용제한, 해녀학교 설립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또한 꽃자왈 교육훈

런 프로그램개발의 방법, 친환경 농·축산물 라벨링을 통한 지역민 이익창출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상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습지학회 이사는 현재 정부가 IUCN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단지 수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준뿐 아니라 IUCN 표준을 따를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보호지역의 Class를 설명하고 특히 Class 5, 인간과 환경의 공존,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보호지역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한 인식증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습지의 경우 보호지역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CBD는 2015년까지 60%를 달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병욱 세종대학교 교수이자 전 환경부차관은 보전의 목적이 발전을 위한 보전(For Development)인지 보전자체가 목적(From Development)인지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일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과거 설악산이나 그린벨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실패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주도의 생물보전권 관리계획을 만들어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국제단체와의 합의하에 대안을 만들어 놓고 지켜나가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앞으로 개최할 WCC에서 보전에 관한 선언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합의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과

교육노력이 필요하며 관광측면에서도 목적을 두고 논의를 한다면 제주도의 모델이 나올 수 있으며 현재의 관 주도적인 추진보다는 제주대학교와 제주도민과의 융합적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용택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가 랍사르 사이트, 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과 상충되는 문제로 인해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국제보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이유가 지속가능한 보전정책 수립보다는 관광수입증대나 개발만이 목적이라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 간 상충이 없어야 하고 자연보전을 근본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의 문제를 재고해야 하고 제주가 주요 보전모델로서 확립되려면 여러 정책들이 하나의 정책으로 묶여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들은 이 세션을 종료하면서 제주의 환경이 생물권 보전의 차원에서 지역개발을 이루고 지역소득향상에 기여해야 함을 공감하였으며 제주에 맞는 보전방식의 논의가 시급한 과제임을 공감하였다. 특히 최청일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 의장은 스페인의 경우 섬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예가 있고 지역의 확대하는 것은 품질관리와 이해 상충 면에서 문제가 되므로 전 지역의 확대가 더 나은 방안이라고 지적했으며 인간과 생물권 문제는 인간의 이익추구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품질 라벨링이 확정되면 세계적 보편 모델로서 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린에너지 응용기술과 신산업 기회

세계는 그린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운용을 국가전략으로 정하고 많은 발전을 위해 기존 산업 간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그린에너지 기술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기업의 입장에서 그린에너지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또한 기존 산업 간의 장벽을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였다.

- 그린에너지 기술의 전망, 사업 기회를 어떻게 구상하는가?
- 아시아 각국의 그린에너지 기술의 공동 개발과 협력을 어떻게 구상하는가?
- 그린에너지 기술로 인한 산업의 새로운 융합 및 새로운 사업기회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 좌 장

현오석(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발 표

린동량(IDG자본 공동설립자/회장)

문승일(서울대학교 교수)

이 철(경일대학교 교수)

최 열(환경재단 대표)

허즈이핑(아시아문화포럼 주석)

메이더원(북경환경거래소 사장)

그린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운용을 국가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과 기존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그린에너지 기술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기업의 입장에서 그린에너지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산업 간의 장벽을 새로운 기술을 등장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시장주도에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세션은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린동량 IDG자본 설립자는 중국 내 태양에너지 분야 투자에 관해 소개했다. 태양에너지 모듈의 가격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중국에서의 생산량과 소요량을 분석하면 중국은 모듈에 대한 수요에 비해 코스트 압박이 심한 상태이며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면 모듈가격의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전 세계 기업들의 비용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수요가 증가하고 전환효율도 117%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쟁중인 전지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 기업들도 생산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현재 중국의 태양에너지 생산의 최종목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3-5년 내에 효율성 증가와 함께 생산과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메이더원 북경환경거래소 대표는 중국의 탄소시장에 대해 2008년에 환경거래소 설립 이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시장은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으며 52%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위험요소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VER(Voluntary Export Restraint, 자유수출규제)시장은 중점을 두고 있는 시장이나 강제력이 부족하여 바이오시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를 합쳐도 전체 에너지의 1%미만을 차지하여 그 효과는 미비한 상태이다. 중국은 특정지역에서의 강제적인 배출감소를 시행하고 ETS에 대해 규범화, 자본화된 시장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총량 쿼터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으며 NDRC 8개 도시와 5개성을 저탄소 지역으로 지정하여 점차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 광둥, 후베성 등 6개 지역에 탄소거래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2015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이는 특정지역에서의 시범화를 통해 강제적인 탄소시장 거래규범을 만들어 나가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인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인데 VER 시장 조성, 지역적 ETS파일럿, 전국적 ETS실현 이후 2020년까지 금융시장(금융화, 자본화)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시범대상은 기업 차원에서는 산업경쟁력이 있고 비용과 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역적으로는 GDP 등을 고려한 배출효과, 강제적인 배출 감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은 개도국 특성상 경제발전의 불균형이 크므로 점진적인 방식과 이중기준을 동시에 시행하고자 하며 PANDA Standard를 통해 안정적, 효율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그린에너지 시대에 제주도의 녹색성장 가능성과 또 다른 기회를 강조하였다. 제주도 구좌읍에서는 스마트그리드의 체험 시범공간이 마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였다. 한국의 2020년 녹색에너지국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 형성이 시급하며 특히 그린에너지와 전기자동차의 발전을 위해 스마트그리드의 초기시장을 육성하고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인구 60만, 자동차 20만, 연간 600만 관광객, 최소한의 설비로 독립된 전기자동차 시스템 등 시장구현이 독립적으로 가능하며 특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특성상 빠른 행정과 효율적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녹색성장을 위한 천혜의 환경을 보유하고 초기시장을 위한 수요가 존재하여 Test-bed라는 기술실증이 아니라 시장구현의 가능성을 제주도에서 구현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철 前한국철도공사 사장/경일대학교 교수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며 이를 극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중일 국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장기보급과 기술측면이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비해 뒤쳐진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인프라, 중국의 시장수요, 일본의 기술력이 서로 합쳐지는 세계 최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 원전사태 이후 국내의 원전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대폭 상승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전 세계적 에너지 대전환 국면에서

국내 대응은 너무 늦고 부족한 상황이고 자원 확보경쟁이 아니라 자원경쟁이 되어가고 있는 에너지시장 환경에서는 한중일 협력을 통해 이른바 에너지 세계평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 열 환경재단 대표는 기후변화문제를 놓고 볼 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에너지, 식량, 물 문제는 모두 기후변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녹색에너지는 현재 고비용이지만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 비용감소 효과가 막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초기에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그린에너지를 위한 다양한 NGO활동을 소개하였다.

허즈이핑 중화에너지재단 부주석/아시아문화포럼 주석은 신에너지 관련 문제는 도덕적, 경제적, 지역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 접근해야함을 주장하였다. 에너지는 도시화, 산업화의 발전에 기여하지만 고갈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39억 명 인구가 존재하는 아시아는 신재생에너지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아시아는 도시인구 비율이 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의 도시화도 급격히 성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을 제외하고 풍력을 포함한 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 발전시키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전지화 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화, 인류 이익에 공감한 공동노력, 비전마련 그리고 기술력의 총동원으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현

재는 영미권이 석유 특허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장래에는 아시아가 에너지구조를 혁신하고 주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화석연료 고갈 이전에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관점의 정책적 차원의 노력과 시장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 했다.

세계자연유산과 지질환경보존

세계자연유산은 유네스코(UNESCO)의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보존을 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이다. 특히 자연유산은 최상의 자연현상을 보이거나, 빼어난 경관을 가지며, 지구의 역사를 간직한 지질유산, 생태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역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자연 유산은 우리인류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를 잘 보존하고 이를 통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며, 어떻게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세계자연유산 등 환경의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은?
-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유네스코 3관왕 제주도의 특징과 환경 보존과의 연계성은 무엇인가?

■ 사회

유재건(한국 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

■ 발표

기 마티니(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

김희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브라힘 코무(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망 APGGN 공동의장)

이용일(대한지질학회 회장/서울대학교 교수)

이번 회의는 세계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인류의 보편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보존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련하여 최근 부상하는 지질공원 (Geopark)의 의미와 개념, 그리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으로서 유재건 한국 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의 사회로 기마티니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 이브라힘 코무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망 APGGN 공동의장 및 이용일 대한지질학회장/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기 마티니 운영위원은 지질공원이 단순히 지질학적인 학문적 가치 보존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공동체의 전통, 문화 및 미래 지속가능발전의 자산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 세계의 지질공원 확정과 연구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바, 제주 지질공원 프로젝트 역시 역사와 문화 및 지질학적 가치 등이 풍부하므로 지오 투어리즘(지질 관광) 등의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향후 주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통해 성공적으로 가동시키기를 기원했다.

이브라힘 코무 의장은 과학적 가치로서의 지질공원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으나 문화적, 휴양적 가치와 융합된 지질공원 개념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통합된 유산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및 국가단위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생물학적, 지질학적 유산 보전을 장려하고 문화와 자연유산이 통합된 광범위한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용일 교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지질공원에 대한 관심과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인 바, 낮은 인지도, 지질학적 가치 평가 시스템의 부재, 학문적 성과의 대중 전달 부족 및 미래 비전의

부재 등의 문제가 상존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전시공간의 강화 및 확대와 지질공원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분석하면서 제주의 경우 지질공원 등재를 위해 현재까지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경험이 있으므로 여타 지자체에게도 좋은 전파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라산, 만장굴, 성산일출봉 및 남동 해안부의 지질명소들로 구성되는 제주 세계 지질공원은 향후 제주 전 지역을 포괄하게 됨에 따라 관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된 프로젝트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지오파크 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고 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진 및 쓰나미 위험

2011년 3월 일본 도후쿠(Tohoku) 지진을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진과 쓰나미의 위험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지진의 원인을 개괄해보고 지진 재난을 분류하였다. 지구물리학과 역사 기록을 토대로 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진의 위험정도와 분포를 알아보았다. 끝으로 일본 도후쿠 지진 재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진과 쓰나미 대응책의 효율성을 논의하였다.

■ 사회

신호상(서울과학종합대학원 입학·학생처장)

■ 주제발표

김재관(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이번 회의에서는 신호상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입학·학생처장의 사회로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도후쿠 지역의 지진, 해일, 재난 및 미증유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김재관 교수의 분석을 바탕으로 동북아 및 아시아 전역의 새로운 인간안보의 문제로 부상한 자연재해와 그 대응에 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발표자는 지구물리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지진 및 쓰나미 발생원인을 설명하고 티베트고원, 몽골 서북부,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 지역의 지각변동을 살펴본 후 최근 일본 도후쿠 지역의 지진과 쓰나미의 상황을 발생시간에 따라 지구물리학적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 및 고찰함으로써 폭넓은 과학적 이해를 제공했다. 또한 발표자는 재난대응에 관한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방재대책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 일반적인 일본의 지진, 쓰나미 경보시스템의 현황과 우리 시스템과의 차이점 및 3월 도후쿠 재난 당시 경보시스템 작동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의 정확성과 그 한계점을 살펴보았고 나아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쓰나미 예방대책과 그 문제점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일본의 일반적 쓰나미 방재벽은 4.5m 인 바, 일본에서 관측된 과거 쓰나미는 방재벽의 높이를 훨씬 넘었으므로 초기 설계기준의 문제를 노정했으며 초기 지진데이터 분석 수치와 실제 위력과의 차이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향후 지진, 해일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하고 파고 재난기준을 높임으로써 재난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새로운 인간안보의 쟁점인 자연재해에 대한 포괄적 대응전략에 관한 논의는 동북아 및 아시아 전역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 일본 재난을 경험한 이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였다는 평가가 중론이었으며 향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의 중요한 논의 주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여 |

서울 글로벌콤팩트연구센터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삶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빈곤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고 나아가 새천년개발계획의 실현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5W를 제시하였다. 5W는 세계(World), 기후(Weather), 물(Water), 지혜(Wisdom), 복지(Welfare)라는 다섯 단어를 선정함으로써 각각의 개념들 사이의 긴밀한 연계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는 전세계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고갈이라는 위기를 인류가 축적해 온 토착의 지혜를 통해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복지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제까지 전세계가 직면한 위기의 해결에 있어서 간과해 왔던 인류의 문화유산을 다시 돌아보고 이를 현재의 국제기구 정부, 기업, NGO 및 시민단체의 활발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그 재원에 결합시켜 문제해결의 효과를 증폭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개발의 새로운 접근방식임과 동시에 세계화의 움직임으로 소멸되어 가는 다양한 소수민족의 지혜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본 세션에서는 서울글로벌콤팩트연구센터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자들이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나은 유엔 새천년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한 개발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연구하는 5W 프로젝트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교육을 통한 빈곤탈출과 의료서비스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좌장

주철기(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전 주프랑스 대사)

■ 주제발표

김기석(서울대학교 교수)

김 전(서울대학교 교수)

이번 세션에서는 5W와 MDGs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빈곤 퇴치, 인간 삶 개선 및 가난, 교육, 남녀평등, 아동 및 산모 건강,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세계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지만 UN이 지속적으로 개도국을 지원 중이고 MDGs의 시한인 2015년까지 4년이 남은 상황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작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의 주제가 MDGs였고 금년 역시 파리에서 이와 연계하여 같은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교토의정서에 관하여 토론할 것이고 내년에는 기후협약을 논의하게 된다. 리우관련 내용을 재차 토론할 것이며 이에 한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 인권, 환경, 반부패를 강조하고 있다. 협력회사는 6,000여개이고 2,000단체(NGO, 학계 등)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5W(World, Weather, Water, Wisdom, Welfare)에 관해서 논의가 되었고, 현재 3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자원활용, 산림보호, 소멸언어와 지혜이다. 건강과 교육의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기에 이 두 가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김기석 서울대학교 교수는 빈곤해방을 위한 국제연계(Global Alliance for Poverty Alleviation)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가난한(서아프리카)나라에서 하는 활동에 관하여 설명했다. 한국은 해외원조 수혜국(1945-1990)이었고 미국, 일본에서 130억 달러를 원조 받았으며 이제는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Peabody대학이 한국 프로젝트라는 기술 원조를 진행했으며, 이제 한국은 G20에 들어갔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연계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여국으

로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빠른 속도로 해외 다른 나라들을 원조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 원조금은 3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는 아직도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UN의 리더십은 어떻게 5W목표를 달성할까 많은 고민과 노력중이라고 설명하면서 HIV가 아프리카에서 놀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나라들은 한국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GAPA는 아직은 기여도가 적지만 모든 분야에서 힘을 합하여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교육을 통해 HIV/AIDS를 퇴치하는데 힘을 주고 가난을 퇴치하려 한다고 전했다. GAPA는 한국어 발음으로 ‘값아’라는 뜻으로 우리가 전쟁 후 받은 외국의 원조를 다시 갚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EWB가 NGO로서 아프리카 대륙의 교육을 증진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김 전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평화와 번영은 중요한 화두지만 번영 뒤에는 어두운 면도 있다면서 함께 나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갈등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가톨릭교수회는(CaSA) 1997년에 무료 클리닉을 설립하고 불법 체류자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 및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고 매 일요일마다, 매월 천여 명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200~300명 이상의 의사 및 의료진들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140,000명의 환자들을 치료하였고 7개의 의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위해 이동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 의료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관해서는 인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는 것에 바탕을 두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물질, 지식 등도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해 특히 지역고유의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WB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지역지식과 새로운 외부지식을 연계하는 면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에이즈의 전이과정에 관한 교육 등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누가 오너이고 누가 서포터인가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지식을 전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정말 고귀한 사람들이고 고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곳에서 3-5년 동안 돈이 아니라 신뢰에 바탕을 두고 비전을 나누고 배움이 있었고 함께 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주는 행위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5W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고 웰빙으로 향하는 방법으로써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 걸려 물을 길어 오는데, 탱크를 설치해서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하는 법을 교육해주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주에도 이와 비슷한 처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그곳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참가자들은 해외원조와 개도국 빈곤해방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고 향후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여 II

서울글로벌콤팩트연구센터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삶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빈곤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고 나아가 새천년개발계획의 실현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5W를 제시하였다. 5W는 세계(World), 기후(Weather), 물(Water), 지혜(Wisdom), 복지(Welfare)라는 다섯 단어를 선정함으로써 각각의 개념들 사이의 긴밀한 연계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는 전세계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물고갈이라는 위기를 인류가 축적해온 토착의 지혜를 통해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제까지 전세계가 직면한 위기의 해결에 있어서 간과해 왔던 인류의 문화유산을 다시 돌아보고 이를 현재의 국제기구, 정부, 기업, NGO, 시민단체의 활발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그 재원에 결합시켜 문제 해결의 효과를 증폭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개발의 새로운 접근 방식임과 동시에 세계화의 움직임으로 소멸되어가는 다양한 소수민족의 지혜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본 세션에서는 서울글로벌콤팩트연구센터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자들이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나은 유엔 새천년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한 개발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연구하는 5W 프로젝트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물 문제해결 방안과 생태계의 효과적 보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사회

주철기(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김기석(서울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윤여창(서울대학교 교수)
이도원(서울대학교 교수)
이호영(서울대학교 교수)
한무영(서울대학교 교수)

이번 회의는 서울글로벌콤팩트연구센터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제시한 새천년개발 의제인 5W(World, Weather, Water, Wisdom, and Welfare)의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봄으로써 향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를 논의한 바, 주철기 전 주프랑스대사,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윤여창, 이도원, 이호영, 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발표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전통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 쟁점들을 해결방안을 모색을 할 수 있다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자인 주철기 사무총장 또한 발전적인 연구결과들을 취합하여 UN에 제출할 긍정적인 아이디어로써 평가하였다.

이도원 서울대 교수는 서울, 평창, 이천, 북한의 함경남도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숲 지역과 물의 위치가 거의 일치함을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고 도시에서 자연적으로 조성되었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산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윤여창 서울대 교수는 산림지역이 손실이 된 원인을 사회, 문화적인 변화, 제도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를 들어 설명하고 산림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과학자의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의 소비자들과 공급회사들도 천연자원에 대한 지식과 권리를 존중하며 공정거래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호영 서울대 교수는 모국어 기반의 교육적인 성취효과를 제시하며 한글을 이용해 멸종위기 언어의 쓰기체계를 개발 하여 이를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고양시키고 여성들의 교육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글의 전통적인 지혜를 활용하여

교육적 환경을 높일 수 있는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

한무영 서울대 교수는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빗물을 기본으로 한 물 공급의 지역 분산화를 액션플랜으로서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강수환경이 상대적으로 악조건임을 제시하며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기술이 나올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네 명의 발표자는 이 세션을 종료하면서 사회자인 주철기 유엔 글로벌컴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과 한국협회에서 제시한 5W프로젝트를 UN에서 발표를 할 것이며 인류가 당면한 근본적인 고통문제를 해결을 할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수렴해 계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에 관해 공감하였다.



경제

- 세계무역, 통화전쟁, 자유무역협정: 보호무역주의인가, 자유무역주의인가?
 - 경제발전에 따른 국력에 맞는 선진원조 동향
 - G20과정의 금융규제개혁과 안전망
 - G20 이후 국가와 도시경쟁력의 새로운 이슈
 - G20 이후 다국적 기업의 세계성공전략
 - G20 이후 도시경영의 새로운 도전
- G20 시대, 금융시장 체제 변화와 뉴 아시아 전망
 - New Asia Standard



세계무역, 통화전쟁, 자유무역협정: 보호무역주의인가? 자유무역주의인가?

지난 수년간 세계가 직면했던 금융위기는 국제경제질서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었다. 기존 선진국들의 능력만으로는 세계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특히 각국이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새로운 무한 경쟁을 야기하였다. 각국은 이제 통화전쟁, 자유무역협정 등을 경제전쟁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보호무역주의인지 진정한 자유무역주의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되는 국제 무역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 세계금융위기와 거시경제적 불균형, 그 함의는?
- 보호주의에 대한 유혹과 국제무역질서의 미래는?
- 도하 라운드 협상과 WTO 체제의 미래는?
- 통화 전쟁, 단순한 기우인가 현실인가?
- 도전 받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 그 성격과 대처 방안은?

■ 사회

안충영(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발표

에이미 잭슨(주한미국상공회의소 소장)

왕용(북경대학교 국제학대학 교수)

정인교(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석영(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미국과 중국 간 불균형, 위안화 평가절상 수준에 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한 위안화의 기축통화 채택 가능성, 도하라운드협상과 같은 다자무역협정 문제 또한 지속적인 논의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나열된 문제점들 외에도 WTO의 미래와 양자·다자 간 무역협정의 미래에 관해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소장은 현재 위안화 관련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중에도 중국과 미국이 대화체를 통해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미 FTA에 관한 양국 의회 비준에 관련하여, 올 8월 즈음 미 의회의 비준이 성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왕 용 북경대 교수는 미중 간 환율 문제는 미국의 정치적 이해가 결부된 잘못된 희생양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환율 논쟁 이후 위안화는 30% 가까이 절상됐지만 미국의 무역수지는 호전되지 않았음을 그 예로 들었다.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의 현 금융시장의 체질은 양호하지만 여전히 금융 산업의 개혁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위안화가 국제적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지지부진한 도하라운드협상과 관련 현재의 도하라운드협상테이블에 참가하는 국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합의도출이 굉장히 어렵고 내년에 예정된 각국의 정치 이벤트로 인해 협상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아시아 지

역 경제블록형성에 있어 중국주도가능성이 크며 일본의 경우 무역
진입로의 불투명성으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힘들 것으
로 내다봤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도하라운드타결을 위하여 기존의 일괄
타결방식에서 벗어나 합의도출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해가자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과 슬로우 트랙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FTA의
양국 의회비준의 경우 미 의회의 비준이 성사된다면 한국정부도 비
준 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FTA합의문 재협
상에 관해 2007년의 한미 FTA합의문을 예로 들면서 당시 여당이었
던 현 야당이 재협상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경제발전에 따른 국격에 맞는 선진원조 동향

“한국의 원조 현황 및 전망”: 한국은 세계최빈국으로서 ODA를 받던 나라였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OECD의 DAC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공여하는 국가로 변모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ODA 수원국이 공여국으로 위상이 바뀐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은 최빈곤국의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추구라는 국제적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Middle Soft Power로서 국격을 제고하고 한국의 국익을 조화있고 균형있게 추구하는 한국형 개발협력모형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본 세션에서는 한국이 추구할 ODA 정책의 대전환을 탐색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아제르바이잔 공적 원조 협력 사례”: (사)산업정책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식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여 아제르바이잔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발 관련 기관의 인적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상생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 사회

허영도(울산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백권호(영남대학교 사회교육원 원장/ 중국연구센터 소장)

안충영(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이번 회의는 세계 최빈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원조 정책 현황 및 향후 정책 전망을 다룸으로써 향후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천 방안을 모색한 바, 허영도 울산대 교수의 사회로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및 백권호 영남대 교수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발표자인 안충영 교수는 중견 국가 한국의 개발원조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경제발전경험의 공유와 전수(KSP) 및 새마을 운동 활용 등을 자산으로 향후 유엔 새천년 개발목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조정기능 강화, 국제규범에 입각한 집행체계 확립, 개도국 입장의 충분한 이해 노력, 다자 간 원조 전략의 그물망 추진 및 국제적 보편 가치와 국익 조화를 위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구축 등의 개발원조 선진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충영 교수는 하버드대 석학 조셉 나이(Joseph Nye) 교수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개념을 소개하며 이러한 소프트 파워로서 한국의 국격 제고를 위한 대외원조사업의 지향점을 자선의 측면이 아닌 수원국의 자생력 제고를 전제로 외교안보강화, 개도국 시장개척이라는 실리가 적절히 조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의 조화를 위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구축의 주요 실천 전략으로 ▲원조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프로젝트 사전 평가→이행모니터링→사후평가의 프로세스 정립, ▲민간부문과 파트너십 강화(Public Private Partnership), ▲현장 중심의 원조체계로 전환을 제시하였다.

백권호 영남대학교 사회교육원 원장/중국연구센터 소장은 구체적인 공적개발원조 사례로 신흥 경제개발 국가인 아제르바이잔 정책 경험을 분석 설명하면서 아제르바이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발, 사회 인프라 건설, 수자원 처리, 지적 재산권 관련 협력 및 산업단지 개발 등과 관련한 총괄적 협력 체제에 관한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24번째 OECD DAC회원국으로서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지원확대로 G20 Korea Initiative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주변 외교무대에서 중심무대로 이전 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한국이 주창하고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받는 위상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 구체적인 한국형 대외원조사업의 세부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실천되어야 할 것인 바,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제주포럼이 향후 한국의 발전경험과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G20과정의 금융규제개혁과 안전망

세계금융위기를 통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신흥국을 포함한 G20라는 새로운 회의체를 구성하여 각국이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과거 금융위기 극복의 모범국으로서 한국은 지난해 G20 의장국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이제 지난 수년간 운영되어 온 G20 체제의 현황과 발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세계금융체제 전반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세계금융질서 내에서 한국의 미래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세계금융위기 이후 G20이 주도해 온 세계금융체제 개혁은 어떻게 논의되어 왔으며, 금융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G20은 세계경제의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관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 사회

박영철(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석좌교수)

■ 발표

마이클 헬벡(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SC제일은행 부행장)

요시노 나오유키(게이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윌리엄 오버홀트(하버드 케네디행정대학원 선임연구원)

이장영(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홍기택(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위기관리, 특히 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과 행동지침에 관한 조율된 역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대되었고 이에 G20라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가 등장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G20차원에서의 금융규제개혁 및 안 전망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박영철 고려대 교수의 사회와 경제학계, 금융계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박영철 교수는 금융규제완화와 규제부재현상이 거품 붕괴로 이어지고, 미 주택 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는 금융시스템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G20지도자들은 금융규제개혁에 대해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세 가지 합의점에 도달한 바, 첫째, 국제금융 자본요건 강화, 둘째, 체계적인 리스크를 수반하는 거대 금융기관 규제, 셋째, 다양한 구조의 파생상품 개혁 등으로 설명했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바젤 3자본 요건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헬백 한국 SC제일은행 부행장은 바젤3 협약의 주목할 점으로 신속한 구성 속도를 들면서 그만큼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방증한다 할 수 있으며 바젤3가 부과하는 제약 때문에 적응성의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위해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의 규모와 위기 촉발을 연관시키면서 위기는 규모와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으로 모든 은행 사이에서 어떤 관리와 감독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시노 나오유키 게이오대 교수는 바젤 요건의 국가별 상대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대규모 은행들 역시 경쟁 체제를

도입해 허울만 있는 거대 금융기관을 제거해야한다고도 말했다.

윌리엄 오버홀트 하버드대 연구원은 G20의 성과에 논란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세계의 변화를 가져온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으로 은행 급여체제 규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은행에 유리한 법안을 지지하는 특정정치인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정치 자금 후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대규모 자금 유출입 문제를 언급과 함께 은행 자본비율에 따른 외환 포지션 실링 도입, 외국 투자자 국고채 원천징수 도입 등 정부 조치에 대해 유효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들 중 일부는 바젤3 협의에서 한국이 찬성과 반대 사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말하면서 일관성 있는 바젤3 실행은 다음 금융위기의 가능성과 강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금융정책 남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규제를 하더라도 잘못된 경제정책을 펼치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G20 이후 국가와 도시경쟁력의 새로운 이슈

도시 간에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도시경쟁력의 상승은 국가발전 전략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경쟁력 체계를 위한 인재의 육성, 산업 클러스터의 구축, 투자환경의 새로운 조성을 위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 도시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을 어떻게 결합하는가?
- 산업 클러스터를 어떻게 육성하고 성공의 노하우는 무엇인가?
- 투자환경과 도시경쟁력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업 그룹의 구성, 인재 육성 및 투자환경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키워드>

- 국가경쟁력, 도시경쟁력의 요소
- 국가경쟁력 및 도시경쟁력의 평가모델
- 국가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
- 정부주체의 리더십과 전략

■ 좌 장

박영균(동아일보 국장)

■ 발 표

김원태(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문영훈(행정안전부 지방경쟁력지원과 과장)

야오왕(보아오아시아포럼 집행위원장/보아오아시아연구원 상임부원장)

황요유이(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황주홍(전라남도 강진군 군수)

글로벌한 시대에 경쟁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금 도시 경쟁력의 총합이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시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제반전략과 이행방안은 기존의 하드파워 강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프트파워 개발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박영균 동아일보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션은 향후 등장하는 새로운 이슈들을 선점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먼저 김원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이 지방경쟁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친 기업환경이라는 것은 지리적 입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뿐 아니라 공무원과 시민의 자세도 중요한 투자환경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문영훈 행정안전부 지방경쟁력지원과장은 국가발전의 원천인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지방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을 들어 높아진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라남도 강진군의 황주홍 군수는 국가차원에서 한국인의 IQ는 세계 No.1이지만 국가경쟁력을 대변하는 1인당 GDP는 중상위권에 머물고 있고 OECD 국가 중 한국의 재방문율이 꼴찌를 기록한 이유를 시민성, 국민성의 이유로 설명하며 도시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시민성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황요유이 위원 역시 도시경쟁력의 원천은 인재와 문화 즉, 소프트파워이며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원동력은 선진화된 기술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아시아인 특유의 가치관 즉, 발전된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배움에 대한 열의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하는 양질의 노동력인 소프트파워에 있기에 이 분야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의 참석자들은 도시경쟁력과 지방경쟁력의 원천은 기존의 1인당 GDP와 같은 계량적인 수치의 하드파워적인 측면이 아니라 비계량적인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의 제주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촉망 받는 경쟁력을 갖기를 기대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G20 이후 다국적 기업의 세계성공전략

세계 경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다국적 기업들은 선진국 내 투자 기회가 점점 축소되면서 아시아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다국적 기업들은 아시아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구축했지만, 새로운 환경의 변화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로 인해 새로운 시장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전략과 기업경영 원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세션을 통하여 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가들이 아시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토론하고, 중국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의 성공 경영 노하우를 토론하였다.

- 미국, 유럽, 한국 기업의 중국 성공 노하우 소개
- 현지화 전략, 마케팅, 정부 관계, 인사 관리의 향후 발전 구상
-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간의 정보 전달과 관리 시스템

■ 좌 장

정찬배(YTN 차장)

■ 발 표

김종성(보스톤대학교 교수)

김태영(주필립스전자 대표이사)

란타 헤이키(카고텍코리아주 대표이사)

로흐민 다후리(보고르 농업대 교수/ 전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

박경미(에이온휴잇 대표이사)

저우웨이민(중야 해외 회장)

천진야(알코아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회장)

후지모토 다카히로(동경대학교 교수)

세계 경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다국적 기업들은 선진국 내 투자 기회가 점점 축소되면서 아시아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다국적기업들은 아시아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구축했지만, 새로운 환경의 변화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로 인해 새로운 시장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전략과 기업경영 원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세션에서는 정찬배 YTN 차장의 사회로 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가들이 아시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토론하고 중국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의 성공경영 노하우를 토론하였다.

김종성 보스턴대 교수는 중국에서의 다국적 기업 전략에 대해 GE의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다.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할 경우 중국시장의 변화 및 중국의 본질을 이해하고 막대한 인적 자원과 중국 인적자원의 글로벌화를 인지하여 좋은 기술과 저렴한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세계화는 새로운 역발상 시도로 돈의 세계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 기법의 세계화도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태영 필립스전자 대표이사는 이머징 마켓에서의 공공전략은 도시의 메가시티화, 고령화, 저탄소화, 소비자의 웰빙 욕구 4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필립스의 성공전략을 소비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제품개발전략으로 설명하면서 Local for local(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니즈를 파악하여 지역에서 생산하고 그 지역에서 판매하는) Local to local(해당 지역에서 만들고 그 옆 지역까지 판매를 넓히는) 등 지역 커뮤니티와 공생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란타 헤이키 카고텍코리아 대표이사는 카고텍의 성공 배경을 자사의 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이라고 역설하였다. 카고텍의 가치는 함께 일하는 것,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 지역 서비스를 바탕으로 입지 확보로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등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신뢰 육성,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하는 것, 투명하고 동기부여 가능한 인사정책, 전 세계 모든 직원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실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시함과 더불어 인적자원 행동 규범 등 준수, 고객에게 있어 제품에 대한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제품화함으로써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비용 대비 효율적인 고객의 니즈충족을 위해 로컬화를 통해 고객의 니즈충족을 실현하는 등 가치를 기반으로 기업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를 적용함에 있어 변화의 태세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이러한 원칙도 변경하는 등 환경에 적용한 가치라고 역설하였다.

로흐민 다후리 보고르 농업대 교수/전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 세계 경제발전사례를 살펴보면 성공적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경제개발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실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99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구의 수용력은 이미 20% 이상 초과하였으며 환경오염, 동식물의 멸종 위기, 토지 침식, 지구 온난화, 빈부의 격차 등의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에 일조하는 바가 큰 다

국적 기업은 그 방향성을 잘 잡고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관해 생각해 봐야 하며 다국적 기업들이 더욱 더 친환경적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비중심의 향락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사려 깊고 남과 나눌 수 있는 공동의 번영이 가능한 세계를 마련해야하며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및 글로벌 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적 국제기관들이 필두에 서서 기존 체계를 탈바꿈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하다.

박경미 에이온휴잇 대표이사는 인재관리를 통한 다국적 기업들의 비즈니스 목표달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녀는 리스크와 제한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리소스를 살펴보고 인적자원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살펴서 직원들이 어떠한 니즈와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시아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인적자원관리에서의 리스크인 코스트 인상, M&A 등에 있어 유연성 부족 등을 인식하고 인재의 변화된 욕구를 잘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저우웨이민 중야 해외 회장은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있어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관리, 리스크회피를 위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동양 기업들의 문화와 현지문화가 융합하기 위해 선량·성실함과 함께 고객에게 감사하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전 세계에 기여해야 한다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

의 글로벌화 과정 속에서 기업의 문화가 그 이미지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해외진출에 있어 문화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 기준에 맞춰 충들을 최소화하며 현지기업과의 상생을 모색하는 등 현지화의 중요성에 관해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세계화를 함에 있어 자본과 인력의 세계화, 지배구조의 세계화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철학의 세계화임을 강조하였다.

후지모토 다카히로 동경대학교 교수는 최종생산물보다는 설계나 작업공정 자체가 중요하다며 부품설계를 서로 조정해 제품마다 최적화된 설계를 해야 제품의 전체성능이 나오는 미세조정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를 일본의 모노즈쿠리의 위축과 연결시켜 인재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일본 모노즈쿠리의 위축 원인을 해외생산체제의 확대와 핵심세대의 은퇴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로 분석하며 현장중시경영과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인재양성 및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의 변화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환경도 다변화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현지에 적응하기 위한 문화적 노력과 더불어 인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G20 이후 도시경영의 새로운 도전

국가, 기업과 공동으로 글로벌 경쟁의 3대 요소인 도시 경영은 많은 국가들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경제 이슈이다. 성공적인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도시 전략과 도시 마케팅 수단이 필요하다.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구 도심의 재생, 신 도시의 구축, 다양한 도시 경영 시스템의 구축, 녹색 Ubiquitous 도시 등의 이슈는 기존의 도시 경영방식에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도시의 경영자로서 어떻게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도시를 경영하는 노하우를 알아보았다.

- 도시 경영의 새로운 정의 및 운영 체계는 무엇인가?
(구체적 성공 사례를 통한 토론)
- 성공적인 도시 경영 시스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 G20 이후 도시의 새로운 발전 전략, 도시 마케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 신 도시 개발, 구 도시 재개발 전략과 방법은 무엇인가?
- 녹색 Ubiquitous 도시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 좌 장

신철호(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김창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

명춘(천진에코시티 개발회사 사장)

메이더원(북경환거래소 사장)

이명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토마스 찬(홍콩이공대학 공공정책연구소 소장)

양쯔저(천진 경제개발투자촉진국장)

허동연(천진에코시티 개발회사 회장)

국가, 기업과 함께 글로벌 경쟁의 3대 요소인 도시경영은 이미 많은 국가들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경제이슈가 되었으며 도시 경영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어떻게 운영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신철호 성신여대 교수의 사회로 도시개발, 운영, 경영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상기 이슈인 도시경영의 미래와 도전을 다루어보고 본격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주요 동력으로서 도시경영의 비전관련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명노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한국의 서남해안에 위치하며 76만여 명이 정주하는 한국 최초의 수변도시를 목표로 하는 한국의 새만금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인간, 환경, 문화 중심의 도시개발 비전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김창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경영기획본부장도 동북아 중심에 위치해 있는 제주도의 최대 자원인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정주, 투자, 관광 매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 관광객, 주민이 모두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의 조성과 이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2007년 중국과 싱가포르의 합작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천진 에코 시티에 대해서는 양저저 천진 경제개발투자촉진국장, 천진에코시티 개발회사의 멩첸 사장과 허동연 회장이 각각 정부 정책적 측면, 투자유치 및 관리운영의 포괄적 관점에서 소개하였다. 부총리 및 장관급 차원의 협력 시스템으로 사업추진 동력 확보, 에코시티가 표

방하는 환경에 대한 개념을 커뮤니케이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KPI지침 마련을 통한 실천력 제고, 하나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에 4개의 센터 즉, 인프라 및 운영시스템의 통일적인 계획을 담당하는 운영지위센터, 운영관리센터, 유지보수센터, 고객센터 센터를 통한 전문화되고 통합된 도시 관리 시스템 등을 다른 여타 도시개발과 차별화되는 요소로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에코시티를 추진하기에 너무나도 척박한 천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느 곳에서도 에코시티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설명하며 천진의 에코시티는 새로운 도시개발의 실험무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도 복제가능하고 다양한 그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공공주택 건설 등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환경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점으로 확대하여 전 사회에 걸쳐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메이더원 북경환경거래소 사장은 도시개발의 과정에서 탄소배출권 등 탄소시장에 대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시도에 대해 설명하였고 토마스 찬 홍콩이공대학 공공정책연구소 소장은 홍콩이 과거 탈산업화에서 금융,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이러한 개발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건립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참가자들은 인간과 환경을 중심에 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G20 이후 도시경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G20 시대, 금융시장 체제변화와 뉴 아시아 전망

세계의 금융시장은 모든 국가들의 기업경영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는 기업들의 국제경영전략 결정에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G20 이후, 세계는 점점 새로운 글로벌 금융과 경제표준 체계에 진입하였으며, 새로운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동원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새로운 경제 및 금융 환경변화를 조명하고, 아시아 국가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그 실체의 정의와 구성 내용은 무엇인가?
- G20 체계로 인한 미래 환경의 다양한 변화가 아시아의 국가, 도시,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향후의 경제 및 금융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키워드>

- 금융 시장의 미래
- 아시아의 위기와 그에 따른 기회
- 중국 금융시장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아시아 금융시스템의 협력 시스템

■ 좌 장

조동성(서울대학교 교수)

■ 기조연설

버지니아 캄스키(미국 캄스키 경영자문회사 대표)

션 닝(JP모건 아태지역 연구부 부사장)

진수형(한국거래소 부이사장)

현재현(동양그룹 회장/ 전경련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

이번 회의에서는 G20 이후 새로운 글로벌 금융과 경제표준을 모색하는 국면이 전개되는 새로운 환경을 맞아 기존의 행동 패턴에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경제 및 금융 환경 변화를 조명하고, 이 변화가 아시아 국가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동성 서울대 교수의 사회, 버지니아 캄스키 미국 캄스키 경영자문사 대표, 션 닝 JP 모건 아태지역 부사장, 진수형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및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기조 발표 및 이에 따른 토론을 전개하였다.

세계의 금융시장은 모든 국가들의 기업경영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는 기업들의 국제경영전략 결정에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된 바, G20 이후 세계가 새로운 글로벌 금융과 경제표준 체계에 진입하였고 새로운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동원칙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버지니아 캄스키 미국 캄스키 경영자문회사 대표는 중국이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향후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협력해서 세계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가 아시아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도 과학기술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향후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협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션 닝 부사장은 금융시장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명하였다. 특히 3년 전부터의 금융시장의 변화내용을 다루었다. 금융시장의 진화, 미국의 규제환경 변화, 관련 법안의 제정 및 Dodd Frank, Volcker rule, Barsel III 등 규제제도의 진전에 관해 설명하며 이

와 더불어 중국 금융시장은 앞으로 정책과 규제에 관심을 갖고 강한 인프라와 규제당국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하고 중국에서 현재 파생상품 시장이 발달 중이니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금융시장이 세계에게 중국시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정책, 규제측면의 더욱 확실한 틀 제공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국, 모든 관계자들 노력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진수형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2010년 G20 정상회의 내용과 의의 및 한국의 역할논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향후 한국 코스닥 시장이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아시아와 개도국간의 대표국가 중 하나로 국제 규제창출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G20은 금융규제체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구체적 제제기준 합의, 비협조적 국가 대응방안 논의 및 금융시장의 거시 건전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G20 정상회의 이후 세계 경제의 패권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옮겨감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는 아시아 금융시장들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5대 아시아금융시장 관련 전략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G7~G20로 세계 경제 패권의 이동
- 신흥국 고도성장의 명암과 한국경험으로의 교훈
- 아시아 금융협력과 중국역할

- 아시아 금융시장전략
- 한국, 중국 win-win 전략

3년간의 금융위기 이후 일어난 세계적인 변화를 감안하면 금융시장은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중국 금융시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아시아 금융시스템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서양의 경험을 일정부분 차용하고 수용, 적용하지만 노정된 단점까지 닮으면 안 되는 바, 유연한 대처법과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동아시아 핵심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선의경쟁과 협업의 정신이 필요하며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양국은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New Asia Standard

전 세계 주요 관심사는 “뉴 아시아(New Asia)”이다. 선진국의 투자 기회가 점점 작아지면서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은 부흥하고 있는 아시아로 집중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아시아는 새로운 파워를 가지게 되었고 아시아의 입장에서 세계 질서를 새롭게 정의하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인의 “뉴 아시아 스탠다드”란 기존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재규명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시아 이외의 사업가들이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본 세션은 아시아의 발전을 조명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경제학 석학들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업가들로 구성되었다.

- “뉴 아시아 스탠다드”의 정의는 무엇인가? 뉴 아시아 스탠다드의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 “뉴 아시아 스탠다드”와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떻게 서로 융합해야 하는가? 기업은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하는가?

<키워드>

- 뉴 아시아 스탠다드
- 새로운 지배 구조
- 아시아 미래
- 아시아 융합의 기회 및 과제

■ 좌 장

강효상(조선일보 보도본부장)

■ 기조연설

려본푸(중국과학원 관리학원 상임 부원장)

리웨이안(동북재경대학교 총장)

상빙(장강상학원 총장)

윤은기(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장이청(세계화상협회 총회장)

이번 회의는 전체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새로운 아시아’에 관한 화두들을 논의하고 향후 아시아의 미래에 관한 전망을 나누는 유용한 기회였던 바, 기존의 글로벌 스탠다드 개념과 함께 뉴 아시아 스탠다드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으며 강효상 조선일보 보도본부장의 사회로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리웨이안 동북재경대학교 총장 등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리웨이안 동북재경대학교 총장은 새로운 중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논의하면서 새로운 아시아의 발전 모델로 네트워크형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였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평등한 거버넌스의 구축이야말로 혁신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의 기존의 모형에 대한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려본푸 중국과학원 상임 부원장은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례를 통해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중국 농촌의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성공 사례를 통해 생산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산업화를 뛰어넘은 포스트 모던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모델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편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은 한국의 독특한 경제성장 요인을 통해 새로운 경제모델의 시사점을 전달하였다. 한국의 독특한 경제 발전은 높은 교육률이라는 교육투자와 속도경제의 작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독특한 성공모델을 아시아적 발전 모델로 공유할 수 있다면 이는 지구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마지막으로 뉴 아시아 스탠다드에 대해 장이청 세계화상협회 총회장은 아시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녹색, 성장, 민생이 상호 결합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아시아의 지역 협력의 강화가 필요할 때라고 설명하였다. 아시아가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공동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얼마나 협력하고 단결할 수 있는지가 지역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지금 아시아 국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총아로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세계강국으로써의 아시아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아시아 스탠다드를 새롭게 세워야 할 때이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유하며 협력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제6장

경영: 세계와 아시아

- Green Mega Trends in Business and World
- 리딩 브랜드로의 도약: 국가/지역브랜드 현황과 미래
- 동양철학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지도자의 자선활동
 - 비즈니스 신세력: 아시아 청년 리더
-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미래: 디자인+신표준
 - 아시아의 가치와 글로벌 리더십
 - 장수기업
- 전자상거래의 WEB 3.0 전망, 온라인 게임
- 융합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의 미래



Green Mega Trends in Business and World

aSSIST 박사들이 바라보는 세계의 주요 현상, 산업 및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한 고찰과 토론의 장으로서 2011년 일본 동북부 지방의 대지진과 그 여파에 따른 원전 사고와 같은 글로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이후 나타날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Green Mega Trend”란 주제로 투영해 보는 세션이다. 세부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수요 변화에 대한 전망, 저탄소 시장의 흐름 변화, 그린 헬스 케어에 대한 새로운 전망 그리고 최악의 원전사고에 대비한 사전적 활동에 대한 논의 등이 토론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 사회

이상호(경성대학교 교수)

■ 발표

김성우(삼정 KPMG 지속가능경영본부 본부장)

김용언(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운영본부 책임전문위원)

윤인모(닥터서비스 대표)

한석희(린디자인아시아 대표)

이번 세션은 최근 부상하는 환경 이슈와 이에 대응하는 녹색성장 트렌드와 맞물려 Green Mega Trend란 주제로 글로벌 환경 문제와 비즈니스 환경 측면의 변화를 조명하는 회의로 구성·진행되었다. 이상호 경성대 교수의 사회로, 김성우 삼성 KPMG 본부장, 김용언 한전 전문위원, 윤인모 닥터서비스 대표 및 한석희 린디자인 아시아 대표 등 전문가들이 모여 녹색성장, 중국과 한국의 발전설비에 비교, 그린헬스케어, 저탄소시장 등의 심층적인 주제로 논의했다.

김성우 본부장은 ‘Green Growth in Carbon Constrained Society’란 주제의 기초발표를 통해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환경 영역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경우 시작은 의욕적이었으나 점차 동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하였다. 탄소의 소비는 사회적 구조와 정치적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바, 그린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탄소발생을 줄이려면 인센티브 및 기술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는 녹색이 단순히 멋을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한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규정하며 유행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고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존망과 관련된 경제, 사회, 정치적 협력체계 차원에서의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위원은 ‘Comparison of Power Industry with Korea and China-focused on Energy Efficiency’ 발표를 통해 중국에너지관련 구체적 설명을 제공했다. 한국에 대비하여 중국의 발전설비 용량은 2010년 말 기준 14배에 달하며 국민 일인당 발전설비 용량은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한국이 중국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실정으로서 향후 중국의 발전설비가 확대될 것이라 예상케 한다. 향후 발전 효율의 측면에서 중국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현재설비의 에너지 효율 증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석희 대표는 “Front Loaded DFM(Design for Maintenance) for Accident at nuclear power plant”란 발표를 통해 원자력 발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은 신속해야 하며 3D 디지털 기술을 응용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빠른 대응은 평소의 철저한 준비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건에 대한 3D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술적 솔루션을 활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3D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프로토타입(prototype)의 제작은 원전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하여 사고에 조기대응 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의 대응에 대한 핵심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front loaded DFM’을 활용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검토하고 식별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언급했다.

윤인모 대표는 미래 녹색성장의 견인차로서의 의료산업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래 의료의 트렌드는 산업 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 분업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국가 총력전을 통해 관련분야산업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료산업의 발전의 키워드는 Research and Development와 더불어 Connect and Development로 규정하며 R&D의 핵심 요소는 핵심역량, 대

규모 국책사업, 기술개발 등이고 C&D의 핵심요소는 산업 환경개선, 보건제도개선, 산업간 호환성 등임을 설명하면서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R&D와 C&D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딩 브랜드로의 도약: 국가/지역브랜드 현황과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기술격차가 점차 좁혀져 가고 있다. 따라서 무형 자산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 역시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방향을 찾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본 세션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제주 지역 브랜드의 현황과 리딩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 국가 브랜드와 제주 지역 브랜드의 현황은 어떠한가?
- 국가/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 주제발표

김윤정(탐라대학교 교수)

이남식(전주대학교 총장/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이번 회의에서는 G20 의장국이자 세계경제규모 7위의 ‘대한민국’ 브랜드가 세계 속에서 리딩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이남식 전주대학교 총장이자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이 ‘국가 브랜드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국가브랜드 향상과 함께 지역차원의 브랜드 향상 노력으로 제주도 사례에 대한 김윤정 탐라대학 교수의 ‘제주도 브랜드 현황 및 과제’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남식 총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가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가브랜드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이 총장은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세계의 다양한 브랜드 지표들을 소개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평가를 위해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삼성경제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국가브랜드지수모형’을 소개하였다. ‘국가브랜드지수모형’은 한 나라를 나타내는 척도로 경제기업, 과학기술, 인프라, 정책제도, 전통문화, 자연환경, 현대문화, 국민과 유명인의 8가지 지표로 구성되었다. ‘국가브랜드지수모형’을 통해 분석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이 총장이 선정한 5대 역점분야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매력적인 문화와 관광, 첨단 기술과 제품 홍보, 다문화 포용 및 외국인 배려,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으로 구성되었다. 이 총장은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 자신이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윤정 탐라대학교 교수는 지역 브랜드의 사례로서 제주도의 브

랜드 연구를 통해 현재 제주도 브랜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역설하였다. 제주도는 청정환경과 수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환원하는 시도가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제주도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제주포럼이나 다양한 문화 산업을 통한 외부 노출 극대화, 감귤 외 다양한 제품 of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다양한 문화, 숨어 있는 신화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주만의 브랜드를 창출할 것과 제주에 도착하기 전부터 떠올려지는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주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제품 및 경험들을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부각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참석자들은 리딩 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사례로 국민과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지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위치를 평가하고 전략을 세울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동양철학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지도자의 자선활동

세계의 경쟁은 더 이상 자원의 경쟁이 아니고 서양과 동양의 문화와 철학의 경쟁이 되었다. 성공한 기업 경영전략은 구조적인 시스템에 근거하지만, 그 내면에는 기업가의 통찰력과 사업가 정신이 숨겨져 있다. 통찰력과 사업가 정신은 항상 기업가의 개인철학과 세계관, 가치관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 기업가들은 필연적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 철학에 영향을 받아 의사 결정을 내린다. 동양철학의 주요 사상인 유교, 도교, 불교는 많은 서양 기업가들에게 미래를 예측하고 감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동양문화와 동양철학의 보고에서 발전의 원동력을 찾아 미래의 지속경영을 위해 토론하였다.

- 기업가들은 문화와 철학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영적 수련은 무엇인가?
- 동양철학은 아시아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사회

이의철(아시아경제신문 정치경제부 부국장)

■ 발표

양원찬(김만덕 기념사업회 대표)

마가렛 리우(국제백신연구소 부사장/전 빌게이츠 재단 백신 담당 고문)

스이안다(소림사 감독관리원)

이정우(서울과학종합대학원 윤리경영연구소장)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구의 경영기법과 이윤창출 전략의 한계를 넘어서서 동양철학에 천착하여 새로운 경영전략과 기업가 정신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이번 회의는 이의철 아시아경제신문 정치경제부 부국장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만덕 기념사업회 양원찬 대표는 성공한 기업가이면서 자선과 구휼의 정신을 실천한 제주출신 조선 최고의 여성 거상 김만덕의 정신과 철학을 소개하며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재 베트남 등 빈국의 국민들을 위한 구호물품지원 등의 구휼정신을 통해 향후 21세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연대책임에 기초한 행동노선을 논의했다.

마가렛 리우 국제백신연구소 대표는 본 연구소의 비전과 목표는 백신이 없어 사망하게 되는 최빈국 아이들의 생명과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해 백신을 제공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것임을 말했다. 한국 기업가들의 자비정신에 의해 설립 및 지원을 받아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인의 자비로운 정신을 이어받아 지속적인 백신의 개발 및 제공으로 감염성질환으로 인해 고통 받는 최빈국의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행복한 지구촌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스이 안다 소림사 감독관리원은 철학이라는 비세속적인 정신과 기업경영이라는 세속적인 경영마인드라는 것은 연계성이 약한 듯하지만 전통적으로 중국의 성공한 기업가들은 중국의 철학과 경영마인드를 결합하여 성공했으며 소림사의 철학과 중국의 4대 보살 정신인, 큰 꿈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며 지혜로움을 바탕으로 끈

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성공한 기업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소림사 역시 이런 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소림사의 이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정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윤리경영연구소장은 외부에서 기업 즉 조직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한 장의 그림 또는 간단한 말로 은유를 통해서 조직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은유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에서 현재 문화/언어코드까지 발전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복잡계 이론으로 대표되는 만큼 근경의 은유 즉 다이나믹 네트워킹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이나믹 네트워킹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장 즉, 터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도교의 허와 일치하며 이러한 동양의 철학을 기반으로 기업가 다시 말해 성공한 CEO의 역할은 독특한 제2의 기업가들이 양성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에서 동양의 철학은 성공적인 기업경영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하나의 지구촌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동력 위에 기업가들의 구체적인 전략이 덧붙여져서 기업의 존재이유인 이윤추구를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비즈니스 신세력: 아시아 청년 리더

기존의 리더들보다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글로벌화 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차세대 리더들에게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사회, 기업, 문화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들에게는 새로운 창조적 사고와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본 세션에서는 사회, 기업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 아시아 차세대 리더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협력 방안 등을 토론하며 각 분야에서 크게 성장한 아시아의 청년리더들의 패기와 열정을 통해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다.

- 기존의 경영 리더들보다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글로벌화 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차세대 경영 리더들이 경영권 승계 시에 나타나게 될 기업의 운영메커니즘, 기업문화 등의 변화는 무엇인가?
- 이에 대한 아시아 차세대 리더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 아시아 부흥을 위한 아시아 청년 리더의 역할과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
- 중·한 청년리더의 공동과제와 협조

■ 좌 장

최은수(매일경제 편집국 차장)

■ 발 표

리우저우웨이(21세기 경제보도사장)

부리카이(남호국제여행사 사장)

신용진((주)부세 대표)

유길상(BCE 원격평생교육원 대표)

장여우량(북경건강촉진협회 부사무총장)

추광엽(비타민하우스 상무)

판준중(중청실업 사장, 청뤄(Qing Lv)그룹 회장)

이번 세션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 주역인 청년 리더들의 자질과 방향성에 관해 성공한 각계 청년 리더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기대로 구성되었으며 최은수 매일경제 편집국 차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판준중 중청실업 사장은 제주와 중국 해안도시 간의 차별성을 언급하며 고유의 발전전략을 적용한다면 경쟁력 있는 중국관광객 유치 가능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중 양국 간의 정서적 교감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기에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길상 BCE 원격평생교육원 대표는 고령화 인구의 증가, 고도 전문화로 인한 행복감 저하, 자기계발에 대한 의지, 여가생활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기존의 공교육보다 더 큰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여 온라인 교육사업에 진출한 개인 경험을 공유하며 최근의 트렌드에 맞추어 수요를 발굴하는 아이디어는 청년들이 찾아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리우저우웨이 21세기 경제보도 사장은 아시아의 차세대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 부지런함, 열정, 상상력과 창조력이라고 강조하며 이 상상력과 창조력은 미국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열광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애플제품 등은 모두 미국에서 고안되었으며 이에 아시아도 상상력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상상력이 풍부한 청년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미적 요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관광 산업의 확대 및 건강 영양식품 분야 등 새로운 분야 발굴 및 도전에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했으며 패기와 열정으로 신 분야에 적극 진출할 것을 권장했다. 참석자들은 21세기는 백지위에 아무나 좋은 그림, 멋진 그림, 남이 생각하지 못한 그림을 그리는 리더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젊은 시절에 미래를 생각하여 도전, 창조적인 생각을 발휘, 미래를 위한 노력을 통해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점을 공유하며 진취적인 사고와 열정을 나누자고 독려했다.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미래: 디자인 + 신표준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구도하에, 후발주자인 아시아 자동차 기업들이 세계 최고가 되는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변화인 디자인과 아시아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단계에서 아시아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의 규칙들을 재정의하고 아시아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올 수 있는 새로운 게임 법칙을 만들어야 한다.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에 아시아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이슈들을 토론하였다.

- 새로운 자동차 표준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 아시아 자동차 산업이 구미 자동차 산업을 초월하는 전략은?
-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디자인 전략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는가?

■ 좌 장

현영석(한남대학교 교수/전 코리아오토포럼 운영위원장)

■ 사 회

최우석(조선일보 차장)

■ 발 표

고상근(서울대학교 교수)

김기찬(전 (사)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김종식(타타대우상용차(주) 대표이사)

서승우(서울대학교 교수)

순지연(AT 커니 글로벌 경영컨설팅(상해) 공동 출자자 / 아시아태평양지역 자동차 컨설팅 책임자)

쉬허이(북경자동차그룹 회장)

양웅철(현대자동차(주) 부회장)

전광민(연세대학교 교수)

조동성(서울대학교 교수/한국자동차공업협회 산하 코리아오토포럼 (KAF) 회장)

이번 세션에서는 현영석 한남대학교 교수/전 코리아오토포럼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우석 조선일보 차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국내외 자동차 산업관련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구도 하에 후발주자인 아시아 자동차 기업들이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에 관해 논의하고 새로운 디자인과 아시아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규칙들은 재정의했고 새로운 게임법칙들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영석 한남대 교수/전 코리아 오토포럼 운영위원장은 새로운 기준으로서의 자동차 뉴 스탠다드에 관해 화두를 던지면서 변곡점에 이른 현재의 자동차 산업 발전단계에서 스마트 트랙픽과 연동되는 아시아 뉴 디자인 구상과 향후 기존의 관성을 넘어서는 한·중·일 협력에 관한 혁명적 논의의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쉬허이 북경자동차그룹 회장은 21세기 자동차 산업경쟁력은 기술 측면은 물론 디자인 경쟁에 달려 있다고 규정하고 향후 최대 수요시장인 아시아의 요구에 맞추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도래한바, 고부가가치 요인인 디자인의 획기적인 변화를 공동으로 추구하고 이를 세계표준으로 만들어내려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광민 연세대 교수는 에너지소비와 관련하여 기후환경이슈와 연동되는 노력과 더불어 특허출원문제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고상근 서울대 교수는 IT와 자동차산업의 연계에 관한 미래구상을 발제하면서 현재 추구하는 자동차와 통신의 융합 CAR2.0에 관

해 소개하고 스마트트래픽체계가 도래할 것을 예측했다.

서승우 서울대 교수는 전기차 전망에 대해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기존 내연기관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있으므로 향후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획기적인 시스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될지도 모른다는 언급을 하며 특히 전기차 관련 아시아 국가 포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언했다.

순지엔 AT 커니 글로벌경영컨설팅 출자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급기지인 아시아 자동차산업에 혁신적인 디자인과 품질관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놓았고 향후 아시아 OEM관련 전략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용철 현대기아자동차 부회장은 자동차 시장이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이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다운사이징, 저가구조, 친환경원칙 등으로 추세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위해 현지문화를 고려해 차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경쟁원천으로서의 원천기술 및 융합기술 확보를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식 타타대우상용차 사장은 자동차란 사치성 소비재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필수재화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들을 염두에 두는 발상전환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저소득층에게 염가의 경제적인 차량 제공을 통해 그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참석한 모든 발표자들은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디자인이 가진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자동차 산업에 있어 기업은 물론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아시아의 가치와 글로벌 리더십

과거에 글로벌 리더는 서구사회 위주로 발전되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의 부상과 함께 이제는 아시아를 이끄는 리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의 리더, 나아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자질과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지 토론하였다.

■ 좌 장

김기용(카길 한국대표 회장)

■ 발 표

김성희(한국리더십연구소 소장)

김영기(LG전자(주) 부사장)

민복기(EXR코리아(주) 대표)

이보균(㈜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이사 사장)

채은미(페덱스 코리아 대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의 부상과 함께 이제는 아시아를 이끄는 리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의 리더, 나아가 전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적인 가치와 글로벌 리더십의 접목을 요구하고 있다. 동·서양 가치의 비교와 대립이 아닌 두 가치사이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모색하여 이에 바탕을 둔 글로벌 리더십을 형성해야 한다. 좋은 가치란 동·서양의 가치가 아닌 모든 가치의 총합의 가치를 말한다. 기업이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듯이 리더십도 상황에 맞춰서 발전하고 변화한다. 다양성, 공감성, 창조성에 중요성을 두고 리더가 그 가치를 만들어 가야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시대, 더 나아가 각 지역과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소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로컬라이징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회의는 김기용 카길 한국대표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성희 한국리더십연구소장은 아시아의 시대를 맞아 아시아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리더십의 상을 제안하며, 동·서양의 가치를 융합한 글로벌 스탠다드 리더십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보균 카길애그리퓨리나 사장도 동양의 가치와 서구적 실용주의는 결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접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단위에서 글로벌 가치를 수용·접목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의미를 새롭게 제안했다.

김영기 LG전자 부사장은 모든 가치 중에서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며 LG전자가 표상하고 있는 인간중심의 경영, 정도 경영, 이 모든 중심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며 고객과의 소통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특히 노사 관계에서 상호 간 Win-Win 의 소통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복기 EXR코리아 대표는 기업의 성공을 위한 로컬라이제이션 3대 키워드로 디자인과 마케팅경영, 제조, 유통부분에서 노하우 축적,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은미 페덱스코리아 대표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지속성장을 위한 여성리더십을 강조하며 감성, 소통의 시대에서 다양성과 공감성과 창조성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장수기업

현재는 수익성만을 쫓는 기업이 훌륭한 기업은 아닌 시대이다. 수익성은 계속 기업의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 산업의 변화, 기업의 흥망, 금융의 위기 등을 겪으면서 이제는 기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제는 돈벌이의 기본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사회와 더불어 오래토록 함께 가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전통적인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지속경영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장수기업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그리고 우리기업들이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 장수하는 기업에게 비결이 있는 건가?
- 장수기업을 위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 지속경영의 사례와 장수기업의 특성을 살펴봅니다.

■ 좌 장

조동성(서울대학교 교수/한국 지속경영학회 회장)

■ 사 회

안세연(서울대학교 박사)

■ 발 표

박영원(동경대학교 교수)

비스와나튼 고마트야마 기리쉬(가톨릭대학교 교수)

송창석(숭실대학교 교수)

이종욱(서울여자대학교 교수/한국경제학회 편집위원장)

현승탁(㈜한라산 대표/제주상공회의소 회장)

■ 토 론

김기찬(카톨릭대학교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양오석(한국외국어대학교 경상학부 연구교수)

이경묵(서울대학교 교수)

이윤철(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최근 국내 일부 연구단체에서 장수기업의 공통된 DNA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바, 이번 회의에서는 조동성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장수기업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왜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별로 없는지, 우리 사회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업 내부적 측면에서 어떻게 장수기업이 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다.

박영원 동경대 교수는 일본의 장수기업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여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했고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속적인 성장 역량을 조사한 결과, 실행 및 변화 능력, 지식 창출력, 비전공유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지속적 경쟁우위의 원천인 핵심역량을 발휘하는 경우, 고객을 매료시키는 능력, 좋은 물건을 만드는 능력,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능력 또한 높았으며, 이러한 능력과 함께 어떻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장수기업의 요소라고 하였다. 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에 기업이 가지고 있던 제품 및 기술,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내부적인 역량으로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외부조직 및 외부 역량(예를 들면,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기업인 (주)한라산의 현승탁 대표는 60년째 경영되고 있는 (주)한라산의 장수요소에 대해 밝혔다. (주)한라산은 지역친화적인 기업으로 제주도민의 사랑을 받으며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기반을 다지고 장수기업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꾸준한 상품개발 노력과 시장변화의 예측 및 신속한 대응력,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열정이 성공요인으로 꼽힌다고 하였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장수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미미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에 관해 조명해주었으며,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는 기업 성공 모델을 살펴보면 장수기업의 요소는 동반성장, 상생에 대한 고려, 생산성, 강건성, 혁신성, 유전적 다양성을 꼽을 수 있다고 하였다.

비스와나튼 고마트야마 기리쉬 가톨릭대 교수는 어떻게 장수기업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손꼽았다. 또한 지속가능한 브랜드 포지션을 가져야 하며, 핵심 가치와 경쟁적 우위,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장수기업 연구센터의 이경묵 서울대학교 교수는 장수한 기업의 성공모델, 장수한 기업들을 알기 위해서는 실패기업도 함께 연구해야 하며 추후 이와 관련 연구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기업에 관한 정보는 서울대학교 장수기업연구센터의 홈페이지(<http://lms.snu.ac.kr>)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장수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성장전략을 꾸준히 연구하고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얻은 장수기업의 요소는 아래와 같다. 실행 및 변화력, 지식 창출력, 비전공유력이 높고 꾸준한 상품개발 노력과 시장변화의 예측 및 신속한 대응력, 해외시장 개척을 해야 하며 동반성장, 상생에 대한 고려, 생산성, 강건성, 혁신성, 유전적 다양

성 지속가능성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지속가능한 브랜드 포지션을 가져야 하며, 핵심 가치와 경쟁적 우위, 기업문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실패기업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자상거래의 WEB 3.0 전망, 온라인 게임

WEB 2.0 시대는 이미 세계를 바꾸었다. WEB 2.0의 새로운 표준하에, 전자상거래의 형태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들의 체계와 운영 방식이 파괴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아시아인들에게 맞는 전자상거래 비법은 무엇이고 새로운 네트워크의 표준은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에 대한 설명 등을 토론하였다.

- WEB 3.0 시대의 전망은 무엇이고,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전자상거래의 미래발전 방향을 어떻게 전망할 것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의 상업화 응용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 좌 장

이학영(한국경제 편집부국장)

■ 발 표

린동량(IDG 그룹 중국 참시자)

민용재(YJM 인베스트먼트 대표)

왕슈팅(DH gate.com 사장)

왕 위(중국 CCTV 애니메이션회사 사장)

이번 세션은 전자상거래의 기존 표준으로 자리잡아온 Web 2.0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체제로 예상되는 Web 3.0과 그 운영 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하여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편집부국장의 사회, 린동량 중국 IDG그룹 설립자, 민용재 YJM 인베스트먼트 대표 및 왕슈팅 DH gate.com 사장 등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린동량 대표는 Web 3.0을 개인을 핵심으로 하는 상업 활동으로 규정하며 네트워크의 발전이 소비의 변화를 이루어냈고 소셜네트워크는 소비자들의 구매행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구매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바, 모바일 상거래는 향후 인터넷 기반 상거래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 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민용재 대표는 게임시장과 관련된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게임시장을 과거 미국, 일본이 이끌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한국과 중국의 게임시장이 전 세계 게임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온라인 게임의 수익창출 구조상 한국이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부문이 될 수 있는 바, 이 분야에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왕슈팅 사장은 중국 전자상거래의 역사와 미래를 설명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Web 3.0관련 시장의 추세와 미래를 제시했다. Web3.0시대 시장의 3가지 추세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와 단체교역이 융합·연결되고 전파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발전하므로 보다 정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

했다.

왕 위 중국 CCTV 애니메이션회사 사장은 중국의 애니메이션 사업과 관련한 설명에서 2004년 이후 중국 애니메이션의 비약적 발전 속도는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상상력과 결합한다면 애니메이션 산업은 큰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융합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의 미래

경영학은 응용학문으로서 실천지향적인 의제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답변을 추구한다. 이 활동을 위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상품 구매 및 조직활동과 관련하여 사회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동기 등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인문학적 학풍에 대한 이해 또한 필수적이다. 나아가, 국가, 사회, 기업 및 비영리단체 활동과 관련된 가치 및 책임의식을 요구하며, 창조적인 이해와 문제해결과 접목되는 예술적 소양도 요구된다. 이 세션은 융합학문으로서 경영학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목적을 갖는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에서 경영학도를 지도하는 다양한 학문분야(공학, 사회과학, 철학, 인문학, 예술학 등) 출신의 교육자들이 본인들의 경험담을 소개 하고, 현재적 상황을 진단하고, 혁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 사회

신호상(서울과학종합대학원 입학·학생처장)

■ 발표

고영희(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사례연구센터장)

송원진(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이현주(서울과학종합대학원 도서관장)

■ 토론

김신호(서울과학종합대학원 기획협력처장)

박정열(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신종화(서울과학종합대학원 여가학연구소 소장)

차경천(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경영학은 응용학문으로서 실천지향적인 의제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답변을 추구한다. 이 활동을 위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상품 구매 및 조직 활동과 관련하여 사회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동기 등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인문학적 학풍에 대한 이해 또한 필수적이다. 나아가, 국가, 사회, 기업 및 비영리단체 활동과 관련된 가치 및 책임의식을 요구하며, 창조적인 이해와 문제해결과 접목되는 예술적 소양도 요구된다. 이 세션은 신호상 서울과 학종합대학입학/학생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융합학문으로서 경영학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시간이었다.

송원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20세기 초 파리로 간 예술 테러리스트’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예술가 ‘세르게이 자길리프’의 일생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였다. 그녀는 ‘예술은 공기와도 같다’, ‘항상 우리 곁에 존재 한다’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느끼며 받아들이는지는 개개인의 몫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것은 소비자를 위해 상품을 내놓는 개발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술세계의 내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사례연구센터장은 지식재산경영에 대하여 소개했다. 최근 들어 학제적 연구라든지 학제적 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분야에서 연구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경영 분야는 기술학적·경영학적 내용이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영희 센터장은 기업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등 여러 가지 경쟁력이 중요한 요건이라고 언급했다.

이현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도서관장은 요즘 인문학의 위기가 회자되고 경영학에서는 인문학을 가리켜 화수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과연 인문학이 그토록 많은 것을 주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종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여가학연구소 소장은 우리 학교는 선도적인교육, 실천하는 교육, 윤리를 강조하는 교육, 검증된 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CEO전문가 과정과 국내최초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선도적 대학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돌이켜보았을 때 구성원으로부터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윤리 경영 교육과 사회적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정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창의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성공적 콘텐츠인 영화 ‘헤리포터’와 ‘애플’의 사례를 들며 창의적 산물, 창조능력은 기업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세션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에서 경영학도를 지도하는 다양한 학문분야(공학, 사회과학, 철학, 인문학, 예술학 등) 출신의 교육자들이 본인들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현재적 상황을 진단하며 혁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제7장

경영: 중국과 한국

- 중국! 14억 시장으로 달려가자
- 중국 기업의 한국 상장(上場)
- 산업보안 정책의 오늘과 내일
- 한국 기업의 중국 상장(上場)
- 한국 기업의 지속경영
- 제주의 미래비전



중국! 14억 시장으로 달려가자

세계 최고의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인들을 사로잡기 위한 각 나라의 성공 전략 및 중국인들이 말하는 중국의 사업 기회는 어떤 것인지 각 분야별 발표를 통하여 논의 하였다. 그 첫 번째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한국 기업의 실제 성공 사례를 들어보고, 외국인이 본 중국 시장의 사업 기회와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들려주는 중국성공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 고위 공무원들이 해석한 중국 발전 정책과 중국에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해 발표하여 실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 사 회

강미은(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 발 표

김해선(㈜썬트랜스글로브 CEO)

이선림(㈜디오홀딩스 대표이사)

조태관(㈜새미르 종합건설 대표이사)

허즈이핑(아시아문화포럼 주식/중화에너지재단 부주석/전 홍콩인정국 국장)

저우웨이민(중야해외회장)

리우저우웨이(21세기 경제보도 사장&창시자<글로벌기업가> 잡지사 발행자 겸 CEO)

중국은 ‘세계 최고의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도 이를 간과하지 않고 중국으로의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중국에의 사업 진출이 성공하기 위한 기획 및 방법에 관한 해안들을 나누어야 할 필요에 의해 이번 세션이 기획된 바, 강미은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의 사회로 중국관련 사업가들 및 현지 사업관련 관료들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저우웨이민 중앙해외 회장은 ‘도시화’에 집중했다.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인데, 그 속에는 다양한 산업 체인이 생성된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식당, 부동산 등의 성공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하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관련기업의 협력을 통해 시장에 적응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일 것”이라고 전했다.

리우저우웨이 21세기 경제보도 사장은 미디어의 입장에서 중국 시장의 트렌드에 관해 말하며 “중국 로컬 수요에 관한 이해가 높은 기업들이 성공할 기회가 많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중산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소비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욕구에 따라 변화되고 발전하는 중인 중국시장을 이해하면 중국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관 새미르 종합건설 대표이사는 “중국과의 경제교류에는 흐름이 있다”며 “지킬 것만 지키면 성공 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경제 교류과정에서 다양한 정책변화가 있었는데, 한국의 일부 기업들이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경우가 많았다. 결국 중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피해를 봤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은 적게, 그리고 중국경제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지 파트너 없이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짧은 기간 안에 자본과 기술 등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선 썬트랜스글로브 사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돈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중국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진출할 때 가장 안정적이게 진입할 수 있다”며 “성숙한 파트너로서 협력하게 된다면 전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이선림 디오홀딩스 사장은 ‘관광’에 집중했다. 중국 사람들 중 10명 중 9명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쉽게 중국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유이다. 하지만 저가 관광 상품으로 인해 만족도가 낮은 것이 문제점이 된다. 또한 많은 기업에서 한국 또는 중국 진출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비하다. 그것은 “마케팅 전문가와 협의되지 않는 일반적인 우리 생각을 가지고 계획했기 때문”이라며 “중국과 한국이 서로의 문화를 융화시키는 사업계획으로 비즈니스가 창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의 한국 상장(上場)

한국주식시장의 기본 현황을 소개하고, 시장 특징을 설명하는 세션이다. 기업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 상장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주식시장의 장점을 소개하였다.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요건, 절차, 상장 심사 이슈, 그리고 회계, 법률 등 실무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

- 한국주식시장: 한국거래소(KRX) 소개, 시장 특징
- 한국 상장개요: 상장 요건, 절차 등, 외국법인 상장 이슈
- 중국기업 한국 상장 하는데 회계, 법률 이슈 소개

■ 발표

고낙섭(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노 광(삼성증권 과장)

송해성(삼성증권(주) 이사)

최광호(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추원식(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기업의 한국 상장 전문가인 삼성증권을 비롯하여, 상장에 관련된 회계 실무의 전문가인 딜로이트와 법률실무 전문가인 법무법인 광장 등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중국기업들의 한국 증시에 진입하여 상장하는 사안에 관한 필요성과 장점, 그리고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이슈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삼성증권의 송해성 이사는 중국어로 멀리서 온 중국기업인들에게 반갑게 환영사를 하였다. 삼성증권의 노광 과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특징, 한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의 현황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특히 한국 증시의 상장 절차 및 상장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에 관해 소개하였다.

한국 딜로이트의 고낙섭 본부장은 중국기업이 한국 상장에 적용된 회계기준, 중국기업이 한국증시에 상장할 때 걸쳐야 하는 IFRS 회계심사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한국 상장시 중국기업의 내부제어 회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며 딜로이트 글로벌 및 딜로이트 한국지사 에 관한 소개와 함께 딜로이트의 선진회계심사시스템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법무법인 광장의 추원식 변호사와 최광호 변호사는 주로 중국기업의 한국상장에 대한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였다. 한국에서 상장이 가능한 중국기업의 형태부터, 주주구성의 유의점,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제한, 주관 증권사의 선정시기, 변호사 선임 등 한국 시장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적인 문제까지 심층적으로 소개하였다.

중국기업의 한국 상장 세션에서는 중국기업이 한국 상장에 있어 기존에 개념적이고 형식적인 소개가 아니라, 삼성증권, 한국 딜로이트, 그리고 법무법인 광장 등 한국 대표적인 중국기업의 한국 상장에 대한 업계전문가들의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소중한 실무 노하우를 중국에서 멀리 제주도까지 찾아온 중국기업인들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중국기업들의 한국증시 상장에 있어 많은 실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보안 정책의 오늘과 내일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 기업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기업경영의 중요 요소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산업보안은 기업의 존립기반을 강화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보다 더 확실하고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내외 산업보안 정책의 흐름과 방향을 살펴보고, 2011년 3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 최근 해외의 산업보안 정책추진 동향
- 한국의 기업보안 실태와 개선방안
- “개인정보보호법”제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좌 장

정진홍(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원장)

■ 발 표

성선제(고려대학교 초빙교수)

양승원(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이길규(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최근 현대캐피탈, 농협이 해킹, 전산망 중단 사건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기업의 보안정책과 시스템의 중요성이 인지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진홍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장의 사회로 전문가들이 모여 이러한 보안정책의 현재와 미래의 행보에 관해 논의해보고 법적·정책적 함의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양승원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는 산업기술보호 협회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수준의 격차가 심하고 업종별로는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정보통신과 생명공학분야가 취약함을 지적했다. 또한 이미 사용이 일반화 된 스마트폰의 잠재적 보안문제에 대해 기업의 인지가 부족하며 한국기업에서 기술유출은 주로 퇴사한 사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정보보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36.5%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기업보안의 개선방향으로는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핵심이며 중소기업 여건에 맞는 시스템정비 및, 교육강화, 보안전문가 및 보안기업 양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성선제 고려대학교 초빙교수는 미국의 산업보안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며 자국의 산업과 기업보호를 위해 법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소개하였다. 불법적 기밀유출, M&A를 통한 합법적 유출, 전략물품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 등으로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사고 발생비율이 높으나 피해 금액이 한국보다 적은 것은 미국 기업이 보안투자에 적극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은 직원들의 보안의식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기본에 충실한 방식으로 보안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길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옥션과 GS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예로 들며 개인정보침해 사고가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기존의 법체계가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있으며 향후 기업의 CEO가 정보보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기업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업이 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관리책임자를 육성, 지정, 내부 정책과 지침의 정립, 개인정보 보유현황 및 위험분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상장(上場)

중국증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은 제한된 문호개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기업의 증시상장은 전무한 상태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현재는 자금초과 상태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국제화를 도모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더라도 중국 자금의 조달 필요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점증하는 한국 기업의 중국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아가 현지화 전략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상장은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이다. 중국은 경제의 시장화와 글로벌화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외국기업에게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주기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중국 상해 증권거래소에서 외국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게 되었다. 본 세션에서는 관련 업계 및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어내는 촉매역할을 강조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중국 금융시장의 대외적 개방 변화
- 외국계 기업 중국 증시 상장의 의미와 절차
- 외국계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과 지켜야 할 원칙

■ 좌 장

강정 호(서울과대학종합대학원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전 한국 거래소 이사장)

■ 발 표

김현영(대우증권 캐피탈마켓 본부장/상무)

임병익(투자금융협회 박사)

전병서(경희대학교 교수)

중국증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중국시장은 제한된 수준에서만 문호개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기업의 증시상장은 전무한 상태로서 향후 중국의 관점에서 현재는 자금초과 상태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국제화를 도모할 것이 분명한 바, 한국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더라도 중국자금의 조달 필요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점증하는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촉진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현지화전략차원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상장은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이다. 이번 세션은 강정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지속가능경영원장의 사회로 전문가들이 한국기업의 중국 상장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김현영 대우증권 상무는 한국기업의 중국의 상장 관련 연구부족 상황을 설명하며 향후 관련부문의 활성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기업이 한국시장에만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여타 세계시장에 편입되어 있을 때 리스크 분산을 통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정보이전효과, 증자의 주가하락 압력 해소, 지명도 향상 및 인지도 재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상장과 관련된 의미를 모색했다.

임병익 투자금융협회 박사는 중국 주식시장의 특징을 외국인 투자시장과 홍콩달러 투자시장으로 양분되는 현상으로 설명하며 홍콩의 경우 상장된 1,500개 기업들 중 본토관련 기업이 약 60%, 거래비중은 70%정도이고 시가총액은 상해와 심천을 합쳐 약 5천조로 세계 2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주식시장으로의 진출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전병서 경희대 교수는 중국 주식시장의 제한적 개방 그리고 중국의 입장과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와 관련하여 설명하며 한국기업의 중국상장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현실임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경제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외국기업에게 중국시장 진출 관련 보증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2011년 하반기부터 상해증권거래소에서 외국기업의 상장을 허용한 바, 이번 회의의 참가자들은 이러한 중국의 개방과 관련된 우리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되 모든 위험요소를 고려하는 신중함도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 기업의 지속경영

지속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기업의 목표이며 필수가 되었다. 이는 이익 극대화라는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과 사회의 기대에 책임을 다하는 세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본 세션에서는 한국기업의 지속경영 베스트 프랙티스를 소개하고 기업 간의 지속경영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국내 기업들이 지속경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국내 기업들의 지속경영을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 사 회

김재은((사)산업정책연구원 원장)

■ 주제발표

박태진(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송명식(유한킴벌리 부사장)

이채욱(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지속경영은 시대적 요구에 의해 이제 기업의 목표이며 필수적 고려사항이 된 바, 이는 기업이 이익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의 개선과 사회적 기대에 책임을 다할 때 실현할 수 있다. 김재은 산업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션에서는 한국기업의 지속경영관련 최고의 사례를 소개하고 지속경영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1등을 위한 차별화 방책으로 “cultureport” 문화공항 전략을 채택하고 다양한 공연, 문화센터 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천공항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 이채욱 사장은 덕을 갖추고 성장을 주도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최고의 인재가 모여들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직과 신뢰가 있어야 하고 수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경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인천공항은 세계최고수준의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인재양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민간 기업 중에서도 특히 지속경영개발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한킴벌리의 송명식 부사장은 유한킴벌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족친화경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행복을 가진 근로자가 가장 큰 목표이며 직원들이 지속경영의 Key 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한킴벌리는 위험한 과로 대신 직원들의 평생 학습과 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가치 창조적이고 유연한 근무체제를 시행

하고 있다고 송 부사장은 설명하였다. 사회적 책임과 공헌의 실천과 관련하여 유한 김벌리는 “우리강산을 푸르게 푸르게”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한김벌리가 가족친화경영과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와 같은 사회적 책임실천을 넘어서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큰 숙제가 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기업환경의 변화로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은 현재에 안주하면 안 되고 앞으로 유지될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지속경영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있었다. 인천공항 백정선 차장은 인천공항 기획 당시부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개장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포스코 파워 이윤 상임 감사는 지금까지 존경받는 기업은 재무가치로 평가받아 왔지만 이제는 직원의 가치, 파트너의 가치로 평가받는다 고 지적하고 성장과 이익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김진태 페니슐라 전 회장은 재무제표의 계량적인 면만으로는 기업의 지속경영개발을 측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지속경영개발을 측정하고자 지속경영개발평가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제주의 미래비전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도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적 변화에 따르는 기회와 위협요인들을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제주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제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많은 변화와 노력을 하고 있다. 제주의 청정자원과 1차생산물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 있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주요도시와 직항노선을 늘려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제주는 세계적인 환경과 녹색성장의 모범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청정한 자원을 활용하여 첨단재생에너지산업을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다.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하는 사안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제주는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 논의의 장으로서,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새로이 구성되는 제주도 국제고문단 위원들로부터 이러한 제주의 미래 비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 사회

이태식(SK에너지 고문/전 주미국대사)

■ 발표

권병현(전 주중대사)

모리스 스트롱(북경대학교 명예 교수/전 유엔사무차장)

버지니아 캄스키(미국 캄스키 경영자문회사 대표)

스펜서 김(미국 CBOL 그룹 회장)

알란 팀블릭(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소장)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유종하(대한적십자사 총재)

이상준(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

윌리엄 오버홀트(하버드 케네디행정대학원 선임연구원)

장시엔원(중국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 회장)

국제자유도시로 자리잡아가는 제주는 최근의 다양한 발전 사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도약하려 하고 있는 바,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협력 및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국제적인 미래 비전을 논의하였다. 새로이 구성된 제주도 국제고문단 위원들로부터 이러한 제주의 미래 비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태식 전 주미대사의 사회와 우근민 지사 등 주요 인사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제주의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우근민 도지사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위양 받은 특별자치지역으로서의 장점을 언급하며 새로 출범한 제주도정은 제주도의 가치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음 제주도의 4가지 핵심 발전 전략을 소개하였다.

1. 수출 진흥
2. 해외관광객유치 확대
3. 첨단녹색산업 육성
4. 환경/문화가치를 세계적 브랜드화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제주도의 장점을 살려 세계적 교육/행정/경제/관광 도시로 발전하도록 제주도 전체구성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장점으로 경쟁도시인 싱가포르 및 홍콩보다 넓은 면적 및 저렴한 토지가격, 뛰어난 자연환경, 특별자치도시로서의 법적인 지위, 영어교육도시 등 국가차원의 지원 등을 언급하

였으며 하나하나의 진주를 엮어 값진 목걸이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모리스 스트롱 북경대학교 명예교수/제주대 석좌교수/전 유엔사무차장은 제주도가 세계적인 자연환경과 편리하고 앞선 제반시설로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입지를 갖춘 만큼 그에 걸맞은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중 하나로 제주포럼을 세계경제포럼에 필적할 포럼으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세계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시대흐름이 제주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화해로 이끌어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주도에 UN환경대학 설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주도의 도약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 캄스키 미국 캄스키 경영자문회사 대표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의제와 관련 중국계 미국인의 입장에서 재생에너지와 관광 영역에 관한 조언을 하였다. 중국과 미국 모두 주요 발전전략 중의 하나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이라고 언급하였다. 관광에 있어서도 의료관광 및 노인요양관광지로서 제주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해외명문대학유치가 제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도 지적하였다.

권병현 전 주중대사는 제주와의 오랜 인연과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열정을 언급하였으며 우근민 지사의 제안 중 좀 더 전문적 개발이 필요한 영역은 국제적 환경문제와 관광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다보스를 넘는 세계적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이슈인 환경문제와 녹색개발 문제에 집중해야하며 제주포럼의 메인테마를 ‘지속가능한 개발’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토양, 공기, 물 부족 등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주문하였다.

장시엔원 중국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 회장은 남태평양 투자계획 중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행정적 지원, 지리적 이점 등에 매료되어 제주도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제주포럼의 발전을 기원했다. 1-2시간의 비행거리에 수많은 잠재적 관광객과 투자자들이 있는 만큼 관광산업을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음식 등 관광객의 요구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제주도에서 고급교육시장을 만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어/중국어/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동아시아 교육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윌리엄 오버홀트 하버드 케네디행정대학원 선임연구원은 제주도의 발전전략이 시대의 흐름과 같이 가고 있는가에 관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청정에너지 개발에 있어 미국의 풍력발전이 성공적인 면도 있지만 더 고려해야할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주도는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전문성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예: 도박/환경/테마파크/문화관광지/생태관광/회의나 쇼핑/은퇴 후 삶)

스펜서 김 미국 CBOL그룹 회장은 리더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발전전략 중 구체적 실천방안(How)에 관하여 발표했다. 제주도의 관광객유치에 있어 차별화해야 할 것은 2-3일 머무는 장소가 아닌 7.5일 머무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

다고 언급하였다.

알란 팀블릭 서울특별시 글로벌센터 소장은 8년째 서울의 공공분야에서 일하고 있어 제주도를 잘 아는 만큼 실질적인 제안을 하였다. 먼저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100년을 내다보는 자세를 가질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관광중심지로서의 매력을 강조하면서 제주 디지털 드라마 축제와 아시안 건축 대학 등 새로운 동력이 될 프로젝트도 제안하였다.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제주의 미래비전을 위한 개발 방안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이며, 꿈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도지사의 제안을 미래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자문단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지사와 도민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프라시설을 강화하고 전 세계를 향한 제주도홍보의 필요성과 창의적 구상의 중요성도 지적하였다.

제8장

경영디자인

- 경영디자인[기조연설]
- 디자인경영의 교육에 대한 대학리더들의 토론
- 유럽·아메리카·아시아 경영의 흐름, 제주의 도시디자인
 - Collaboration
 - Mutual Learning
 - Convergent Education



경영디자인

[기조연설]

‘경영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며, 경영에 디자인을 접목한 세션이다. 제주도의 도시디자인 과제, 제주도의 디자인정책에 대한 연사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 사 회

조동성(서울대학교 교수)

■ 기조연설

리처드 부캐넌(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 교수)

리차드 부캐넌,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수는 경영디자인트랙이라는 주제로 경영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초연설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들은 우리 삶에서 디자인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자인은 쉽게 정의될 수 없고 우리가 그동안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면 오늘날의 디자인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으며 디자인은 이슈를 찾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디자인이란 이슈를 정의하는 것이지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는 과정보다 넓은 범위에 속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디자인은 조직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과정인데 즉,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물건이 ‘유용한가(Useful), 사용할 수 있는가(Usable), 바람직한가(Desirable)’를 고려하고 그 물건이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조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자들은 학교나 스폰서들이 학생들이 디자인경영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스폰서들은 그들의 디자인 초본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에게 단 하나가 아닌 가능한 한 해결책을 10개까지도 찾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디자인에서 실행가능성(Feasibility)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날의 많은 디자인경영학교들이 이 실험단계를 현명하고 신중하게 교과과정에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연설자들은 미래에는 환경의 변화가 엄청날 것이고 인구증가와 함께 많은 것들을 조직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여생

의 디자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생각하며 보낼 것이라는 말과 함께 연설을 마무리했다.

디자인경영의 교육에 대한 대학리더들의 토론

‘경영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며, 경영에 디자인을 접목한 세션이다. 제주도의 도시디자인 과제, 제주도의 디자인정책에 대한 연사의 발표가 있었다.

- 현대사회에서 경영디자인의 전략적 역할은 무엇이며, 대학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주제발표

이남식(전주대학교 총장/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유르겐 파우스트(독일 CAO IED/ Milan, MHMK Munich대 교수)

모쉴 포라트(미 팩스 경영대학장)

요네쿠라 세이치로(일본 히토츠바시대학 혁신연구소장)

이번 세션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경영디자인의 의미와 그 전략적 역할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특히 대학 지도자들의 경영디자인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나아가 향후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었다.

이남식 전주대학교 총장은 전주대학교의 생존전략과 지속가능한 노력에 관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속가능성과 디자인의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최근 CDO(Chief Design Officer)를 새로 영입하고 K5와 스포티지에 신 디자인 도입으로 단기간 15배 주가 상승한 기아가 대표적 성공 사례로서 이것이 디자인의 힘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지방대학 활성화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학들은 인구문제(인구감소, 저 출산율)로 큰 위기 봉착할 것이므로 전주대학교만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슈퍼스타가 나오는 대학이라는 의미를 가진 심볼을 도입했는데, 이는 세상속의 큰 인재 그리고 기독교 대학으로의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 아이디어를 다양한 캠퍼스 영역에 응용했다고 밝혔다. 브랜딩에 가장 중요한건 일관성이므로 모든 대학건축물과 집기를 일관성(스타피트니스, 스타센터 도서관 멀티플렉스)있게 정비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양한 학문간 융합에 있어도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전주대학교 디자인 경영이 낳은 효과:

1. 지난 8년간 학생 수 3배 증가
2. 총 수입 2배
3. 학생만족도 상승

4. 지역 내 사회인지도 상승
5. 대학의 브랜드가치 상승
6. 대학의 지속가능성 향상

유르겐 파우스트 MHMK Munich대의 교수는 지속가능성이란 3E(environment, ethics, economy)에 집중하는 것이고 경영과 디자인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는 것이며 지능, 디자인, 선택 의 세 가지에 뛰어나야 훌륭한 경영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디자인 하듯이 경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쉴 포라트 미 팩스경영대 학장은 예전에는 디자인이 하나의 방식이지 해결법은 아니라 생각했으나 지금은 디자인경영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대학경영은 하나를 새로 도입하면 다른 하나가 빠져야 하는 제로섬이고 새로운 과목을 도입하려고 하면 빠져야 하는 과목이 생기게 되어 교수진들 간 경쟁을 심화시키게 되므로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일단 작은 규모의 시범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좋아하는지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용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택과목으로 두었다가 필수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요네쿠라 세이치로 히토츠바시대학 혁신연구소장은 국제적 위상 하락, 경제적 위기, 정부의 리더십 부재, 쓰나미 피해 등 최근 일본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전에도 히로시마 원전 등의 위기가 찾아왔으나 성공적인 재건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하

나의 목표가 생겼을 때 큰 힘을 발휘하는 일본 특유의 민족성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메이지유신, 석유파동, 쓰나미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디자인 경영에 있어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먼저 코페르니크라는 작은 회사는 가격이 매우 저렴한 디자인(태양열 전기램프, 보청기 등)을 취급하지만 가격을 떠나 향후 잠재가능성이 큰 디자인으로 일본 역시 배워야할 점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이노지마 박물관을 예로 들었는데, 이노지마의 철학은 기존의 요소들을 활용해서 과거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박물관 역시 과거의 공장시설을 개조한 것이며 특히 에어컨 없이 자연적으로 공기순환을 통해 박물관의 온도를 조절한다고 말했다. 최근 쓰나미 이후 도쿄에 세워지는 모든 학교는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건립하는데, 앞으로 초·중·고에 필요한 것은 도서관이 아닌 인터넷 시설인데 일부 개도국 혹은 오지와 같이 전기 공급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태양열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물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일본 토토 회사는 수도에서 물이 나올 때마다 다음 사용자를 위한 전력을 생산하도록 디자인 했는데, 이는 방글라데시나 인도와 같이 인구가 많고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유용하다고 말했다. 그는 타타 자동차는 컴퓨터보다 저렴하고 로트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 EV가 에너지 효율성의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노를 모토를 삼으면 세계가 달라질 거라면서 디자인이 과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니의 로봇애완견 같은 디자인은 초기에는 비판을 받았으나 향후 심각해질 노령화 문제와

관련 외롭지 않은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반려동물의 역할을 대체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럽·아메리카·아시아 경영의 흐름, 제주의 도시디자인

‘경영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며, 경영에 디자인을 접목한 세션이다. 제주도의 도시디자인 과제, 제주도의 디자인정책에 대한 연사의 발표가 있었다.

■ 주제발표

조동성(서울대학교 교수)

그린 리(미 IBM 브랜드 경험 및 전략디자인 사업부 부회장)

저스투스 다이너트(독일 댁스타드대학교 교수)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경영의 흐름, 제주의 도시 디자인 세션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디자인이 단지 몇몇 특정 분야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디자인을 통한 제품과 회사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며 공공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통로의 확보와 제도적 지원 그리고 디자인을 통한 경영 개선과 회사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린 리 IBM 브랜드 경험 및 전략디자인 사업부 부회장은 디자인과 경영 미래 트렌드에 관한 발표를 통해 경영은 협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IBM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기업들의 변화는 기술의 발전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5-10년 전보다 디자인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고 인간의 지능과 합리적 생각 그리고 과학을 통해 인간, 사회,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이 IBM의 목표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IBM이 추구하는 가치를 언급했는데,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 회사와 사회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것, 모든 관계에 있어 신뢰를 쌓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스터스 다이너트 담스타드대학교 교수는 산업화에 장·단점이 있는데, 산업노동으로 인해 사람다운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자 현대적 삶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관한 실용적 아이디어들이 교육, 보건, 의료, 식량, 삶 개혁 등과 관련한 총체적 아이디어를 생산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예로 영국의 가든시티 모델의 개발을 언급했다. 또한 슈트트가르트 철도역 재건설을 예로 들면서 디자인하는

데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단순한 반응에서 창의성으로 발전한 예라고 평가하면서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아시아의 디자인 역사는 짧고 기업의 제품서비스수준에 비해 제품디자인은 발전 속도가 느린 탓에 디자인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공공디자인 정책과 관련, 적극적으로 도시경관디자인정책 등을 추진 중인데, 제주의 자연경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고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며 정책에 있어서 자연을 지키면서 삶의 풍족함을 유지하기 위해 제주의 이미지인 여유나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Collaboration

‘경영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며, 경영에 디자인을 접목한 세션이다. 제주도의 도시디자인 과제, 제주도의 디자인정책에 대한 연사의 발표가 있었다.

- 경영디자인 분야에서 다급하고 긴박한 사회적 도전과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사 회

유영진(미 템플대학교 폭스 경영대학원 교수)

■ 발 표

정경원(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 본부장(부시장)/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제이머 헛트(미 파슨스 디자인대학 교수)

제니퍼 와잇(영국 리딩대학교 교수)

마크 스틱돈(오스트리아 MCI전문대학원 교수)

김미소(미 카네기멜론대학 교수)

김원택(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경영에서의 디자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며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경영분야와 디자인 분야가 융합하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관해 유영진 미 템플대학교 폭스 경영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경영과 디자인의 융합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노하우에 관해 토론하였다.

김원택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시대를 가속화된 변화의 시대로 정의하며 이러한 시대에서의 디자인의 역할에 관해 발표하였다. 경영디자인은 개방형 혁신으로서 Web 2.0 Design 2.0 Business 2.0 XYZ2.0의 도구로 변화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디자인의 새로운 역할은 경영디자인이 결국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며 IEDO의 Keep the Change 프로그램을 그 실례로 들었다. 결국 서비스를 시각화, 표준화, 경험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산업구조가 서비스 산업위주로 바뀌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경험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디자인으로의 전환은 앞으로의 중요한 패러다임이며 마케팅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정경원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 본부장이며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는 디자인서울의 성공요인을 발표하였다. 서울의 다리 디자인 인공 폭포 디자인을 예를 들며 디자인영역의 확대가 디자인서울의 성공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경영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시장, 디자인 담당자), 시스템(서울디자인 위원회)이며 서울의 디자인 조직은 문화, 관광, 디자인을 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

대화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은 2010년에 꼭 가봐야 할 도시로 선정되었고 유네스코의 2010년 창조적 도시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도시 경쟁력을 2010년 9위, 2014년까지 5위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히며 디자인은 과거의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제이머 헌트 미 파슨스디자인대학 교수는 디자인에서의 규모(Scale)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양적인 상승보다는 질적인 상승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데, 자전거를 예시로 들면서 자전거의 디자인은 제품의 기능성에서 시작이 되지만 더 넓은 규모에서 보자면 자전거의 문제는 도시문제, 도로디자인문제가 되고 결국 서비스 문제와 국가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더 넓게 보자면 자전거의 국제적 유통과 글로벌 환경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디자이너라면 어떤 것이 적절한 디자인인가 하는 문제를 낳게 되며 이때마다 프레임을 변경하는 혁신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제니퍼 와잇 영국 리딩 대학 교수는 비즈니스 디자인 융합방안에 관해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디자인에 적용되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특히 지구 온난화문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집적된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다자간의 디자인 융합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협력조직의 복잡성은 디자인적인 도전과제를 만들어 내며 해결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크 스틱돈 오스트리아 MCI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인 디자인경영의 변화 트렌드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첫째로 디자인은 제품에서 서비스로 전환이 되고 있으며 제품생산에 따른 이윤을 추구보다 본질적인 서비스에 좀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는 고객의 서비스경험이 경영디자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소셜미디어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영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모든 당사자들이 디자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자가 의견교환을 하려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미소 미 카네기멜론 대학 교수는 서비스 디자인 경영방안으로 서비스 블루프린팅을 제시하며 경영비전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잣대로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 제시 가능한 도구를 서비스디자인에 관한 다자의 의견을 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서비스 블루프린팅의 장점은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관찰 및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호 반응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Mutual Learning

‘경영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며, 경영에 디자인을 접목한 세션이다. 제주도의 도시디자인 과제, 제주도의 디자인정책에 대한 연사의 발표가 있었다.

- 상호 학습: 경영자와 디자이너가 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구체적으로, 디자인 산업을 경영하는 것 외에 디자이너가 경영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상품 설계, 그래픽 디자인, 상호 디자인과 브랜딩 외에 경영자가 디자이너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발표

김태영(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권유진(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라스 레이드마체르(독일 메크로미디어 언론정보대 교수)

MB 사카르(미 템플대 경영학과 교수)

니콜라스 버렌트(미 조지아대 교수)

에린 조(파슨스 디자인 스쿨, 디자인 경영학과 교수)

신상(중국 홍콩 폴리텍 대학 교수)

김태영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는 그의 다양한 디자인 공모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서 디자인에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잘 어우러지게 하여 통합적·전체적으로 디자인에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자이너들은 상상력을 동원하고 커다란 비전을 고려하며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유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문화(브랜딩)전략에서 본 사고에 관해 없애야 할 신화와 만들어야 할 신화에 대한 발표를 했다. 문화 브랜드의 정체성은 이데올로기, 신화, 문화코드를 접목시키는 것이다. 문화 브랜딩 전략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사고와 통합적 과정을 거쳐야 하고 경영자들은 디자이너의 접근법을 더욱 이용하여 문화적 직관을 가질 수 있으며 디자이너들은 더욱 소비자 중심적인 접근으로 시장과 상호작용하는 경영자들의 접근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에린 조 파슨스 디자인 스쿨, 디자인 경영학과 교수는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혁신과 크라우드 소싱의 차이점을 낚싯대와 그물로 비교했다. 크라우드 소싱이 문제해결을 위해 개방과 혁신보다 더 많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크라우드 소싱은 특히 디자인 위주의 창조산업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산업에 있어서 크라우드 소싱을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디자인과 사용자들의 소속감이 중요하다며 사용자 커뮤니티의 행복감의 정도가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라스 레이드마체르 독일 메크로미디어 언론정보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조직형태를 위해 ‘누구(Who)’에서 ‘어떻게(How)’로 전환했고 누가 디자인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디자이너와 경영자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교육받았으며 이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경영은 복잡성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디자인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복잡성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상호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B 사카르 미 템플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신흥시장에서 일어나는 혁신을 소개했고 인도의 저렴한 냉장고, 탄자니아의 모바일 뱅킹, 시골지역에 은행 소 지점 개소로 금융서비스가 연결된 사례 등을 소개했으며 또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디자인은 삶을 변화시키고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며 빈곤문제를 완화시킨다고 말했다. 바로 이것이 디자인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콜라스 버렌트 미 조지아대 교수는 경영과 디자인이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 발표했다. 경영과 디자인은 서로 분명히 다르지만 서로 상호관계가 있으며 훌륭한 경영자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으며 훌륭한 디자이너도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경영, 과정 향상, 경영의 변화, 역사, 시행착오, 구현, 미학, 생산성 등의 효과를 상호간에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디자이너들이 경영에서 배울 점은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면을 존중하되 디자이너들의 내적인 만족도 역시 존중하며 사

회적인 가치 인식, 보완적 전문기술과 상대방의 접근법 학습 및 서로의 행복과 번영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자이너들은 상상력과 커다란 비전을 고려하며 디자인을 해야 하고 문화(브랜딩) 전략에서 본 사고에 관해 없애야 할 신화와 만들어야 할 신화,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 지속가능한 조직 형태를 위해 ‘누구(Who)’에서 ‘어떻게(How)’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신흥시장에서 일어나는 혁신, 경영, 디자인은 서로 분명하게 다르지만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경영에서 배울 점, 즉 원칙적인 면에서는 전체적인 면을 존중하되, 디자이너들의 내적인 만족도 역시 존중하며 사회적인 가치 인식, 보완적 전문기술과 상대방의 접근법 학습 및 서로의 행복과, 번영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Convergent Education

‘경영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며, 경영에 디자인을 접목한 세션이다. 제주도의 도시디자인 과제, 제주도의 디자인정책에 대한 연사의 발표가 있었다.

- 우리는 우리 사회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전문가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통합된 대학교육과 대학원 교육을 개발할 수 있는가?

■ 발표

김원택(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신수진(연세대학교 교수)

브리짓 보르자 드 모조타(프랑스 파리 파슨스대 교수)

조 에린(미 파슨스 디자인스쿨 교수)

카자 투밍 부캐넌(클리블랜드 예술대학 교수)

이기품(미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교수)

최수신(미 신시내티대 교수)

조동성(서울대학교 교수)

이순종(서울대학교 교수)

이번 회의에서 발표자들은 디자인과 경영 분야의 통합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신수진 연세대 교수는 과학과 예술 간의 의사소통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심리학과 사진학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과거에는 예술과 과학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목표를 위한 접근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해결방법의 차이라는 것이다. 현재 예술과 과학의 차이는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야는 함께 같은 목표인 창의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우리는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학생들을 교육해서 창의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서로간의 논쟁에서 나타나는 가치들을 통합하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고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 어떻게, 왜 라는 단어들을 마음에 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창의성은 개인의 천재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치와 방법을 통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순중 서울대학교 미술학부 학장은 서울대학교 융합창조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후 21세기형 통합디자인 가치창조 리더를 육성하고 예술, 인문, 사회, 과학 분야와 산학적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학제 간 융합디자인 교육모델을 통한 21세기형 디자인 교육 및 연구와 구조적인 혁신에 대해 설명했다.

신수진 연세대 교수는 디자인에 있어 통합교육이란 통합적 교육과 학제적 교육으로 나뉘볼 수 있다면서 이를 종합하면 디자인에 있어 인문, 기술, 관리 그리고 기계공학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이다. 영역이 나뉜 것이 아니라 함께 결합되어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연세대학교 디자인스쿨은 2012년 개교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브리짓 보르자 드 모조타 프랑스 파리 파슨스대 교수는 디자인 관리는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사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디자인 경영의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디자이너들이 사회 프로젝트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카자 투밍 부캐넌 클리블랜드 예술대학 교수는 디자인과 경영의 학제 간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의 조건 설정과 과정 확립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 기존의 해법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으며 이는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의 이해와 참여로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수신 미 신시내티대 교수는 디자인과 디자이너를 통해서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며 디자인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원천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오늘날의 경영디자인의 핵심 의제는 창조성과 공유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대변될 수 있고 디자인과 경영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양측이 서로 지식을 공유해야 하며 교육은 미래의 디자인과 경영 분야의 인재들이 이러한 창의성과 공유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디자인과 경영, 이들의 융합과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개념 또한 변화하고 있다.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디자이너와 경영자 모두 이러한 변화를 잘 파악하고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참가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교육과 의료

-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와 고등교육의 역할
- 국내외 의료관련정책 및 성공사례 발표 및 토론
 - 제주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론
 - 장수인의 비밀
- 저개발국 감염성질환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

21세기를 흔히 ‘지식 정보 시대’로 이야기한다. 이는 과거에 비해 지식과 정보의 확산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공유되는 지식의 범위 역시 넓어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식의 공유는 서로에 대해 알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서로의 의도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대결과 배타적 각축보다는 협력과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혹은 세계 차원의 지식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교육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이를 감안, 2011년부터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KF Global e-School’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를 넘어선 교육협력을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어떤 장애요인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각국 전문가들의 솔직한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지식 네트워크는 지역 평화와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교육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는가?
-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가?
- 현재부터 각 국가 및 공공기관들이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 공통의 가치 발견과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노력은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 사 회

문우식(서울대학교 교수)

■ 발 표

시에타오(북경외국어대학교 교수)

존 던컨(UCLA대학교 한국학센터 소장)

최현선(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사업부 부장)

크리스틴 리(와세다대학교 교수)

이번 세션은 동북아시아 지역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세계적으로 한국학에 대한 관심 촉진과 확대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시에타오 북경외국어대학 교수는 동북아의 교육협력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 존 던컨 UCLA 한국학센터 소장은 그 간의 한국학 e-learning course 실행 경험을 통해 중남미 지역의 한국학 프로그램 개설 수요 방안을 제시하고 크리스틴 리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한국학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짚고 추후 일본에서의 한국학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최현선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사업부장은 올해 출범한 ‘Global E-School’ 프로그램을 통해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뿐 아니라 한국학 확대 방안을 소개하였다. 사회자 문우식 서울대 교수 또한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례로 한국 교육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 아시아’를 소개하였다.

시에타오 북경외국어대학 교수는 한국, 중국, 일본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는 다르게 세계 상위 100위 대학에 13개 대학밖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등 고등교육에서의 성과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바를 지적하며 이 지역의 세계경제 경쟁력과 경제적 성공 및 문화적 호감을 지속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의 육성을 위한 한·중·일 3개국의 고등교육 지역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고등교육 지역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네 가지가 제안된 바, 첫째 이 지역 혹은 이 지역 외의 우수 학생들을 모집할 뿐 아니라 지역 간 대학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 및 비정부 차원의 장학금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것, 둘째, 지역 간 협력과 기금 공동부담을 위하여 정부기관 및 대학 행정가들의 적극적인 추진이 있을 것, 셋째, 이 지역의 정부와 대학이 서구 엘리트 대학들에서 가르치거나 공부하고 있는 국외 우수한 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모든 제도를 강구할 것, 마지막으로 정부 또는 민간 기금을 통하여 해외 대학 캠퍼스에서 각 국가의 언어 및 문화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존 던컨 UCLA 한국학센터 소장은 지난 수년간 미국 및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기술적인계로 인해 e-learning course 실행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공유하고 현재 상당 부분 개선되어 효율적인 e-learning course가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의 증진으로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바,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 민주화, 북한문제, 한류 등 다양한 주제로 관심이 높아져 이에 대해 한국의 대학과 협력하여 UCLA 한국학센터에서 중남미 국가에 한국학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제 간 차이와 시차 등의 문제가 여전히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존 던컨 교수는 한국학 프로그램 설계 시 미국이나 캐나다만의 시각을 제공하는 것보다 중남미적 시각으로 한국에 대한 중남미의 이해관계, 국제적 논의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디자인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크리스틴 리 와세다대학 교수는 일본에서 한국학이 직면한 과제를 설명하고, 일본에서의 한국학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에 관해 논

의하였다. 일본에서 한국학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흐름은 ‘조센고’이며 다른 한 가지는 ‘칸고쿠고’인데, 일본은 칸고쿠고를 제외하고 조센코 중심의 한국학을 설명함으로써 불균형한 시각을 내포하고 있음을 짚었다. 이와 함께 일본 내에서의 재일동포들의 정체성 문제와 투표권 문제 등으로 차별받는 현실로 인해 일본에서의 한국학이 소수민족의 권리를 개선하고 상생의 인식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

이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최현선 부장은 올해 3월 출범한 ‘Global e-School’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소프트파워’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인재육성 과정의 하나로 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적 시각은 물론 세계적 관점을 갖추어 향후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식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이자 발표자인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교육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 3개국 정부가 고등교육의 학술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3개국 간 실질적인 학생 교류가 없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 하여 3개국 총 300여명의 학생들이 다른 국가에서 공동학위 또는 이중학위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다섯 명의 발표자는 이 세션을 종료하면서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한국학 확대 발전 방향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한

국국제교류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Global e-School’과 ‘캠퍼스 아시아’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진정한 인식론적 공동체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와 고등교육의 역할

아시아 사회도 이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더 이상 일반적인 단순한 국민교육만으로 커져 가는 국민들의 욕구와 복지를 만족시킬 수 없고 나라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다. 오늘날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를 육성해야 할 대학의 역할은 이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 아시아 각 대학의 지도자들과 함께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미래의 대학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 세계화의 시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등교육에는 어떤 도전과 기회가 있는가?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학은 어떤 목표를 성취해야 하며 왜 그런가?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학의 미래는 비관적인가, 낙관적인가? 왜 그런가?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절한 방식으로 배출할 수 있는가?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학은 도덕적 의무와 경쟁력이란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가?

■ 공동사회

허향진(제주대학교 총장)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발표

가렛 에반스(호주국립대학교 총장)

고충석(전 제주대학교 총장)

리웨이안(동북재경대학교 총장)

세이케 아쭈시(게이오대학교 총장)

툰누티 닌(베트남 트라이비에트대학교 총장)

이번 회의는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상하는 현 시점에서 아태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고등교육의 역할과 의미에 관해 전 세계 주요 대학 총장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허향진 제주대 총장,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공동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기조 발제자로 나선 허향진 총장은 이제 아태지역의 중요성이 새롭게 해석되는 현시점에서 이 지역의 역사적 과제와 책임이 커지는 바, 이제 과거 외국 대학문화와 그 시스템만 그대로 적용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태평양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튼누티 닌 베트남 트라이비에트대 총장은 빈곤퇴치의 한 수단으로서 고등교육의 역할과 의미를 재해석하고 향후 교육을 통해 국제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교육시스템을 추구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이케 아쭈시 일본 게이오대학 총장은 연구와 교육기능의 동시 발전을 추구해야 할 대학의 숙명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향후 연구주제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부문을 많이 다루어야만 고등교육을 통해 인류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리웨이안 중국 동북재경대학교 총장은 세계금융위기가 해소되고 새로운 발전의 시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새로운 고등교육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데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고등교육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위 교육품질관리 및 규제개선 및 다양한 협력모델구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대학의 역할에 관해 논의하며 특히 제주대의 중요성과 의미를 설명함과 동시에 동북아 도시들 간 연대 및 협력과 관련한 대학들 간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가렛 에반스 호주 국립대학교 총장은 호주가 최근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보다는 지역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중시하려 하는 상황인 바, 고등교육은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하므로 호주는 아시아 대학과의 연대를 강화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교원평가, 행정관리, 유학생 지원 등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소회와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러한 교육과 행정 책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등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주포럼의 새로운 의제 발굴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국내외 의료관련정책 및 성공사례 발표 및 토론

성공한 싱가포르의 레플즈 부원장, 중국 의료관광을 총괄하는 인사들과 함께 기타 국내 의료관광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산업간 융합화가 본격화 되면서 의료가 국가 차원의 신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의료 관광은 의료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의료관광 세션의 전반에서는 국내외 의료관광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통해 의료관광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해외의료관광 성공사례

■ 사회

표정호(순천향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이 철(연세의료원 원장)

프렘 쿠마 나이어(레플츠병원 부원장)

■ 토론

강창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민정(딜로이트 컨설팅 이사)

이기효(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조현준(현대메디스 이사)

진수남(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 단장)

한동우(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정책팀장)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산업간 융합화가 본격화 되면서 의료가 국가차원의 신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의료관광은 의료산업의 새로운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표정호 순천향대 교수의 사회로 싱가포르의 레플즈 부원장, 중국 의료관광을 총괄하는 분들과 함께 국내 의료관광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이 철 연세의료원 원장은 의료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과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태국, 싱가포르, 인도와 같은 전통적 의료관광의 강국들뿐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 같은 신흥국들도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신흥소비국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적으로는 해외에서 온 환자의 수가 2009년 6만 명이었으나 2013년 2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급 의료기관의 85%가 의료관광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국내외의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의 의료관광은 국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는 의료관광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환자를 위한 메디컬 비자제도를 2009년에 이미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급 종합병원으로 해외환자가 집중되는 현상, 성형과 미용 위주의 치료프로그램에 편중되는 점, 대다수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소비자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의료수준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수준에 부응한다며 이에 걸맞은 서비스와 마케팅을 접목하여 신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렘 쿠마 나이어 래플츠병원 부원장은 아시아는 10년 전부터 의료관광으로 각광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비용문제도 크지만 9.11 사태 이후 미국의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의료관광은 운용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기반과 서비스 인프라는 물론이고 최고 수준의 의료진, 자체적 인증시스템, 환자의 안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프렘 부원장은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는 세계 6번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며 GDP의 4%를 의료서비스에 지출하는 등 중요한 벤치마케팅 대상국가라고 언급했고 투명한 비용 역시 의료관광을 성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딜로이트 컨설팅 이사는 한국의료기관들의 전략은 첫째, 앞선 의료의 질과 성과, 둘째, 국제 환자들에 대한 선진화된 관리, 셋째, 환자들에 대한 마케팅, 넷째,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방문하는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 다섯째, 환자의 안전과 보호, 여섯째, 편리한 교통, 일곱째, 의료와 관광을 연관시킨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료관광의 문제점은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별한 상품을 만드는데 고민이 적다는 것으로써 이는 상품을 만들고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한 불명확성이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는 외국인 환자가 장기적으로 병원에 어떻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장기적 로드맵을 설계하여 그에 따른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관련된 많은 리소스와 지원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이 에이전시와 환자 사이에서 중심축이 되어 경쟁력 있게 움직이고 정부도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관광은 국경을 초월한 의료 서비스로 한국의 의료관광은 해외 환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환자의 요구는 첫째, 원활한 의사소통과 진료진과의 충분한 물리적 접촉, 둘째, 질환과 진료 절차에 관한 전문적이고 상세한 상담, 셋째, 애프터케어, 넷째, 영어로 표기되는 의무 기록과 서류 다섯째, 질환별 가격책정과 정확한 진료비 고지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해외 환자를 위한 전용인력과 전용공간을 확보, 둘째, 해외 환자 신속 처리를 위한 별도의 검사 및 체계 확립, 셋째, 해외카드 사용가능체계를 구축, 넷째, 해외 보험사와의 환자송출 계약체결을 기관과 협력하며 마지막으로 다섯째, 치료패키지개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비 산출 애프터케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준 현대메디스 이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시장주체인 의료기관과 유치업체간의 파트너십 모델의 가이드라인 제시하여야 하고 유치업체의 기능 확대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역할을 제시하여야 하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대표브랜드를 개발 및 지원하여 한국적 의료관광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국적으로 특화된 브랜드를 만들고 1·2·3차 시장에 선순환 접근이 가능해지도록 하며 의료관광비자의 원활한 발급절차 운영과 타깃지역의 전문 마케터 및 컨설턴트에 대한 전략적 육성과 시장수요를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의료관광객에게 단순정보만 주는 것이 아닌 동기, 정보, 접근성을 제공

하는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외국인에게 단순 정보의 제공이 아닌 상품을 제조 및 홍보하는 마케팅의 승리가 되어야 하고 정부, 의료, 유치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하며 실제 유치된 환자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진수남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 단장은 미래에는 의료관광객의 수와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므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한국의 의료관광은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별 홍보 마케팅 대상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해외에서의 한국의료관광 인지도를 제고해야하고 환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한국 의료서비스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는 마케팅의 문제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형 모델을 발굴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고 한국의 의료관광은 향후 서비스 산업 차원에서 융합하고 커져야 하며 관광과 의료가 합쳐져서 휴양, 질병 예방, 삶의 질 향상이 의료관광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동우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정책팀장은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이 외국인 환자에게는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데, 두루미 집을 방문한 여우의 심정일 수도 있다면서 환자의 심리적 안정은 치료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식단, 의사소통, 문화 이해, 환자 가족에 대한 배려는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정서적 안정을 주어 치료에 도움을 주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문화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팀장은 한국의 의료시장이 연평균 30%씩 증가하고 있으나 어느 순간 그 추세가 꺾이는 변곡점이 올 것이고 이 변곡점을 가능한 늦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

올려 미국, 일본, 중국 시장에서 벗어난 신흥시장을 겨냥한 마케팅과 중증환자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국가 브랜드와 의료기관의 연계에서 만들어지는 시너지 효과와 통합브랜드를 기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론

천혜의 자연환경과 접근성으로 의료관광활성화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제주 지역의 의료 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주도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 사 회

김철중(조선일보 기자)

■ 주제발표

이동선(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 처장)

김상훈(제주한라병원 대외협력처장)

■ 토 론

김형진(KPMG 상무)

이상준(아름다운 나라 피부과 원장)

이선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왕준(병원협회 정책이사/명지병원 이사장)

인요한(연세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최 건(서울 우리들병원 원장)

이동선 JDC의료사업 처장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개발전략과 목표에 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상훈 제주한라병원 대외협력처장, 이상준 아름다운 나라 피부과 원장,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 및 명지병원 이사장, 인요한 연세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및 최건 서울 우리들병원 원장의 ‘투자개방형 병원’의 제주도 도입과 제주도의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션은 의료관광산업은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토론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제주도 고유의 특성을 극대화하면서 세계적 의료기술수준을 결합하여 1단계는 ‘Wellness Park’, 2단계는 ‘Medical Park’, 3단계는 ‘R&D Park’로 확대되는 것으로 총 8000억 원의 투자 중 6700억 원은 민간투자합작회사에서 조달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해 이동선 처장은 제주도와 국토해양부 등 정부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자 중 제주도에서 의료관광산업을 생존전략으로 4년 전부터 추진 중인 한라병원의 김상훈 대외협력처장은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성공모델에 관한 분석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한 네트워크가 전무하다는 점과 의료관광산업의 대상지역별 법률의 차이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나 법률자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제주도의 의료관광산업 추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안전위원회 소속 이선화 의원은 제주도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주도민이 그간 낙후된 의료시스템 속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의 도입으로 의료수가 상승 혹은 제주도가 이러한 시스템의 테스트베드로서 이용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두려움의 해소를 통해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형진 의료경영 컨설턴트를 비롯한 서울 각지의 의료관광 전문가 세 명은 제주도가 의료관광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지라는 것이 자명하고 투자개방의 필요성 및 기존 의료시스템의 취약부분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옴으로써 일부 해소될 것을 기대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히 이상준 아름다운 나라 피부과 원장은 의료가 뷰티나 힐링과 같은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료관광산업이 있지만 그 기본은 반드시 의료기술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항공과 같은 관광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투장개방형 병원이 기본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내국인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강점을 발휘하여 제주도가 의료관광의 대상과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울 것을 제안하였다.

최 건 서울 우리들병원 원장도 인접국가인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의료인 육성에 최소 20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의료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것을 활용하고 첨단과학기술 및 IT분야와 접목하여 의료관광산업을 국가브랜드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요한 연세세브란스병원은 ‘의료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고 이것이 제주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대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어떤 분야의 어떤 의료기술로 마케팅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뒷받침되어야한다며 고령화 인구를 위한 고관절 수술을 예로 들었다. 그는 끝으로 의료관광산업 성공의 핵심은 환자에 대한 서비스라는 것을 강조하며 논의를 마쳤다.

장수인의 비밀

장수하는 비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관심사이다. 정말 장수하는 비밀이 있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 ‘장수비밀을 아는 사나이’ 혹은 ‘장수의 달인’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박상철 교수가 장수인의 특징과 웰빙·장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책, 건강하고 행복한 웰에이징(Wellaging)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수 지역 중 하나인, 제주도의 장수마을과 장수인의 특성에 대해 고승한 박사가 발표하였다.

- 생명의 원칙, 건강의 진리, 장수의 길은 무엇인가?
- 제주지역의 장수인, 장수마을, 장수비결은 무엇인가?
-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통해 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 좌 장

양영오(제주발전연구원 원장)

■ 주제발표

박상철(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발 표

고승한(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박주희(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령화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장수하는 비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모든 이들의 관심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 원장이 사회로 장수인들의 특징과 웰빙, 장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책, 건강하고 행복한 웰에이징(wellaging)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장수비밀을 아는 사나이’ 혹은 ‘장수의 달인’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가 발표를 맡아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장수의 길과 장수 비결이 무엇인지 말하였다.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이 제주장수문화의 계승과 보존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은 제주, 장수사회를 위한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박상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장수의 지역적 특성이 높은 지역, 숲이 우거진 지역, 기온이 따뜻한 지역, 비가 많이 온 지역이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남자와 여자 연령별 수명자료를 볼 때 남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여자보다 적었다. 여자는 환경이나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남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남자들은 생활패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생활패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통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병이나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자료를 통해 나환자들이 일반 한국남자들에 비해 7년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나환자들은 100% 신앙인들로 생활규제가 높기 때문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다 병이나 장애가 있다는 생각은

틀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제주장수문화의 계승과 보존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에 관해 말을 전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장수에 미치는 다양한 환경변화들을 직면하고 있는데, 100세 장수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반면 위험사회, 재난들을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0년 전국적으로 85세 인구비율이 7.12% 비해 제주는 9.40%로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주의 장수 요인으로는 물, 공기 등 깨끗한 청정자연환경, 식생활 문화(야채, 콩, 해초, 생선류), 독특한 가족문화(생활주거 공간, 독립생활, 친밀감, 유대감 등), 노동문화, 사회 심리적 특성(검소, 근면, 강인, 소박, 긍정, 배려, 나눔 등)이 있다. 이러한 제주의 장수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청정의 환경보존(선 보존 후 개발), 장수노인 건강지원체계 구축, 장소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제주장수노인에 대한 학제 간 연구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제주 장수사회를 위한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사회가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는 인식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 사회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하며 장수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장수노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존중과 유지를 위해 노인복지실천원칙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역부족이며 한국사회는 노인복지에 대한 투자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장수사회인 제주도는 앞으

로 이를 위해 100세 장수노인을 위한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른 별도의 장수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장수노인을 위한 주택개량을 지원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 9770명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5년의 약 961명에 비해 약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는 지금 이른바 '100세 시대'가 눈앞에 있으며 앞으로 100세 이상 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축복과 재앙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오래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부담을 수반하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오히려 축복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제주도는 한국의 대표적인 장수지역 중 하나로서 앞으로 제주의 장수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저개발국 감염성질병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백신의 부족과 미개발로 인해 매년 700만 명의 어린이가 전염병에 쓰러지고 있으며, 이들 희생자의 대부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다. 개발도상국 어린이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연구개발과 접종을 위해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 설립된 IVI를 한국에 유치하게 된 경위와 IVI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주요 연구성과 및 향후 IVI가 나아갈 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좌 장

박상대(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이사장)

■ 주제발표

방연호(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실 과장)

앤써니 플린(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존 클레멘스(국제백신연구소 자원개발담당 사무차장)

■ 발 표

조동성(서울대학교 교수/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회장)

조완규(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상임고문)

국제협력의 여러 아젠다 중 저개발국의 감염성 질병퇴치 관련 이슈는 인류 보편의 복리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바, 본 회의는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박상대 이사장의 사회로 교육과학기술부 방연호 과장, 국제백신연구소 앤써니 플린 사무총장, 존 클레멘스 국제백신연구소 자원개발담당 사무차장이 발표를 맡아 진행되었다.

방연호 과장은 한국의 국제백신연구소 유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고 현재 백신관련 과학기술분야 연구역량의 축적과 비약적 발전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향후 국제백신연구소의 역할에 관한 기대감을 피력하였다.

존 클레멘스 사무차장은 유아사망률과 유아기 질병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백신 연구 개발 및 보급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금마련, 정치적 의지의 수렴, 건강증진체계의 발전, 개도국 백신 개발 보급 확대 및 혁신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다. 백신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바, 생물학적 혁신뿐 아니라, 개발, 시설확충, 민간협력 등의 전략적 접근을 시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앤써니 플린 사무총장은 국제백신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로 백신개발과 확대를 통해 관련 지식을 개도국에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국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40개국 이상의 적극적 참여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제품개발협력(Product Development Partnership, PDP) 구도 하에 SK, LG 등 민간 주요 기업이 함께 후원에 동참하고 있음을 소

개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백신연구소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고, 향후 5천만 달러의 기금을 연구재단을 통해 출연하여 연구개발 활성화를 더욱 지원할 계획인 바, 참가자들은 본 포럼을 통해 이러한 국제협력의 절실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성과 문화

- 여성, 창조성, 문화: She's Coming
 - 지식 재산 시대, 여성의 중요성
- Creative Industry: 아시아의 美(영화, 언론, 패션)
 - 소셜네트웍스 시대,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아시아 문화 퓨전과 공동체 건설
 - 한·중 예술관광



여성, 창조성, 문화: She's Coming

여성의 감성과 소통, 나눔과 관계, 그리고 창조성은 지식 창조의 시대에 가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여성들은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는 가운데 스스로가 문화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활발하게 문화적 소양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여성들이 보다 새롭고 다양한 스타일의 삶을 마음껏 디자인하고 자유롭게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화 산업 내에서 구현되는 여성들의 창조활동들에 대해 토론하고, 여성의 창조성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시아 문화를 형성하는 영화, 미술, 패션 산업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동시에 여성의 창조성과 역량을 다방면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경험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각도로 모색해 보았다. 더불어 여성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여성의 문화적인 잠재력과 가능성을 풀어내는 무대를 연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ABC 방송이 선정한 '20세기를 빛낸 여성 100인' 중 한 사람이자 아름다운 선동가로 알려진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여성해방 운동사를 스토리로 풀어서 흥미진진하게 들어보는 자리가 되었다.

■ 사 회

이혜경(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 주제발표

글로리아 스타이넘(미 페미니스트/저널리스트)

■ 토 론

구어엔원(미국아시아협회 사무총장/상해재경대학 EXPO 경제연구원 부원장)

김홍희(전 경기도 미술관 관장)

도성희(키위스톤 연구소장)

장필화(이화여자대학교 교수/아시아여성학회 회장)

정현경(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 교수/뉴욕 관음 선원 불교법사)

조세린(배제대학교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여성의 감성과 소통, 나눔과 관계, 그리고 창조성은 지식창조의 시대에 가치 있는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세계적인 페미니즘 저널리스트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주제발표가 중심이 되어 이해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문화산업 내에서 구현되는 여성들의 창조활동에 관해 진지하고 흥미로운 토론을 하였다.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문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 지느냐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여성은 자연이라는 것에 비유되면서 변화하기 힘들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페미니즘 없이는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념주의가 존속하는 이유도 여성이 아직도 억압당하기 때문이며 인종주의도 여성에게 억압을 준다면 모든 여성에게 인종주의를 철폐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평등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특히 가족 내에서 가정폭력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안타깝고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 여성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마치 하느님이 지배계급처럼 보이는 것이 의구심이 든다며 도대체 왜 하느님을 남성으로 표현하는 것인지에 관해 그리고 남신(男神)을 더 숭배하는 것에 관해 제국주의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술에도 정치적인 요소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도 천재적인 음악가였지만 평생 음악선생님으로 살았고 오빠는 음악가로 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는 시대의 혁명과 혁신의 근간이 될 수 있고 여성 개개인들의 창의성을 발휘함으로써 혁신과 혁명을 꾀할 수 있으며 문화는 민주적인 틀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성들은 모든 요소마다 차지하고 있고 진정한 페미니스트 시각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제주도에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박혀있다고 본다면서 많은 해녀들이 해녀의 삶을 딸들에게 전수하고 있는데, 평화의 섬 제주에서 남성우월주의 문화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희 전 경기도 미술관장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환경과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콘텐츠의 시대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적인 감수성과 사고방식은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이 중심이었던 페미니즘의 역할은 문화의 정체성을 바꾸는 페미니즘 담론으로 지평을 바꾸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미니즘에 있어 문화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20세기 이후 아시아는 글로벌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대에서 이제는 히스토리가 아닌 ‘허스토리’로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을 피력했다.

구어엔원 미국 아시아협회 사무총장은 여성문화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하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유·무,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에 관해서 논의되어왔던 주제들을 정리했다. 여성이 자기만의 문화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담론이 확산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포용하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

을 증시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예전보다는 독립성을 획득했고 여성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플라톤의 이데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여성과 남성은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여성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 바, 여성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현대적인 역할로의 전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변화, 약자의 태도에서 스스로 강함을 믿는 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는 새로운 여성상을 창조해야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도성희 키워스톤 연구소장은 ‘여성, 창조성, 문화’라는 주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숙고해야 하는 테마이며 그 이미지와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하기에 이제는 일방적으로 작가가 만들어 보라고 던지는 시대가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관계 맺음이 달라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경 미 유니온신학대학원 교수는 한국 사회의 자살률과 고통의 증대 문제는 겉으로 부각되는 한국의 이미지와 배치되는 아픈 부분인 바, 특히 여성 자살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문화가 자리잡아오면서 여성들이 가장 자기답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우리는 한과 흥의 변증법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다시 흥하게 하는 ‘살림의 힘’은 여성들이 새로운 세기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어 놓았다.

무한경쟁과 갈등구도의 사회에서 진정한 여성성의 발견과 이해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비경쟁적인 방식으로 여성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제주도가 아시아의 허브로서 여성이 창조적인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이번 포럼은 그 시작이라는 데 회의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동감했다.

지식 재산 시대, 여성의 중요성

미래 사회를 규정짓는 변화의 인자 중 하나로 보여지고 있는 여성의 파워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 재산 시대에 서 여성들의 창의력 개발과 지식재산권 활동은 국가 산업 경제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동 현황, 성공한 여성 특히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전략 등을 토론했고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좌 장

한미영((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수석대표)

■ 발 표

문승자(케이제이알텍(주) 대표)

윤명희((주)한국라이스텍 대표)

정정례((주)해누리 대표)

예 잉(NALCO 글로벌 부총재)

미래 사회를 규정짓는 변화의 인자 중 하나로 보이고 있는 여성의 파워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입증 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재산 시대에서 여성들의 창의력 개발과 지식재산권 활동은 국가 산업 경제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미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여성들이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있는 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션에서는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의 사회로 각 분야 여성 리더들을 초청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동 현황, 성공한 여성 특히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전략 등을 토론 하고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예잉 NALCO 글로벌 부총재는 기초 발제를 통해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을 위해서 감성(EQ)과 지성(IQ)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특성은 생명의 근원인 물에 비유할 수 있는데, 특히 물 자체의 특성은 약하지만 한 방울이 계속되면 돌도 뚫을 수 있는 강인함과 어려운 문제를 쉽고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통달(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대표적이라고 분석하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된 현재에는 여성의 부드러움과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은 번영을 위한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능력을 통해 남성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성간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공존을 모색해 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전통발효 식품인 해누리의 정정례 대표는 사례 발표를 통해 해누

리는 청국장을 이용한 짬으로 발효 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 시장에서 저평가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청국장 짬으로 현재 일본 등지에 수출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일반적으로 발명을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생각해진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에서 쉽게 시작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여성은 특유의 섬세함과 관찰력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들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포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라이스텍의 윤명희 사장은 현미도정기술에 대한 발표를 통해 웰빙 시장에 대한 소비자 관심의 증대 및 소비자의 다양해지는 기호를 쌀 시장에 접목하여 ‘즉석 맞춤 쌀’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하였고 지식재산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작용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현실에 대한 전망, 새로운 시장 창출, 시대적 환경이라는 3요소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작은 일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여러 가지 성과를 돌이켜 보았을 때 자신이 여성이자 가정주부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케이제이알텍 문승자 사장은 여성이라고 하여 발명에서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는 없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여성의 장점인 섬세함을 이용하여 남성의 전유공간이라 여겨지는 전자시장에서도 여성이 훨씬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도 세계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한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실현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전하였다.

각 참석자들은 여성만이 지닌 잠재력과 장점을 피력하면서 지식재산권이 하나의 각광받는 영역으로 떠오른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능력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여성의 사회 진출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식재산 시대,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은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화 및 사업화하기 위한 창의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 요소라는 측면에서 잠재된 여성의 소프트 파워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Creative Industry: 아시아의 美

(영화, 언론, 패션)

아시아 Creative Industry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인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뿐 아니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의 시장이 넓어지면서 소비자 또한 글로벌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와 드라마 같은 영상 콘텐츠 산업뿐 아니라, 패션과 문화는 대중의 사고와 美의 기준 사회원칙에 대해 영향을 주는 매체로 작용한다. 이 세션에서는 아시아인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인들의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와 패션뿐만 아니라 문화산업내면에 숨겨져있는 아시아인의 공통적인 취향과 문화적 특징을 토론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토론하였다.

- 아시아의 전통문화와 아시아의 성향을 어떻게 아시아인의 특징에 따라 구축하는가
- 아시아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역에 성공적으로 역수출되는가
- 패션과 영화산업이 아시아의 美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 좌 장

김동호(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 발 표

성필문((주)스테레오 픽처스회장)

위 동(북경보나영화 유한그룹회장)

이성래(한국예술원 KAI 겸임교수)

홍지아(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영화산업에서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서, 특히 중국은 무한한 시장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점차 현실화시키고 있다. 한국 역시도 기술과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적 콘텐츠를 가지고 나름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가 어떻게 헐리웃으로 대표되는 서구와 경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 보는 차원에서 본 회의가 구성되었고, 김동호 부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회 및 각계 영화감독, 제작자, 및 학계 인사 등의 패널 발표로 진행되었다.

성필문 스테레오 픽처스 대표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헐리우드 진출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3D 컨버팅 기술을 세계에 소개하여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존의 2D 콘텐츠를 3D로 변환함으로써 콘텐츠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색다른 시도를 했으며, 관련 기술이 헐리우드에서 크게 호평을 받았고, 준비 기간은 비록 15년이 걸렸지만, 불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장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장을 넓혀 나갈 계획인데, 그 이유는 이러한 작업이 지식인력기반 산업이므로, 아시아가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문명의 발전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아시아 국가 간, 특히 한중 양국 간의 협력을 기대했다.

이성래 한국 예술원 교수는 아시아의 미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시도하면서, 서구와 비교했을 때, 보다 포용적이고, 종합적이며 전통과 윤리를 중시하는 아시아 문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아시

아 감독과 영화제작들의 세상을 보는 독특한 관점이 영화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역설했다. 이들의 아시아적인 시선이 아시아적인 결과물로 온전히 재탄생할 때 서구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예술은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 수단이며, 아름다움의 본질과 영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를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라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위 동 북경 보나영화유한그룹 회장은 과거 10년 간 중국 영화의 발전 과정을 회고하고, 향후 10년 간 영화 발전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인구 대국 중국의 내수시장과 자본력은 중국 영화 발전에 커다란 원천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농촌으로 대표되는 영화산업의 불모지에서도 현재 무한한 가능성을 읽고 있다고 했다. 영화 콘텐츠의 디지털화도 시급한 문제인데, 무한한 중국의 콘텐츠 시장 발전 가능성이 영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현재 영화 산업에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홍지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한류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상이한 토양에서 형성된 문화적 콘텐츠가 어떻게 대중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크게는 문화적 근접성과 문화적 할인이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콘텐츠가 아시아에서 크게 소비되는 원인에 대해 사실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시사했다. 그 동안은 유교를 그 답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학생들은 자신의 뿌리를 유교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한류가 특정 연령대에서 각광받고

있음을 지적, 공감대라는 조건이 형성된다면, 이들은 지속적인 한류 소비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시아 영상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와 기술이다. 콘텐츠에서는 아시아적인 시선과 태도, 정서를 가지고 접근해야 서구 시장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이를 기술화하기 위해서는 2D에서 3D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리고 영상 산업에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소셜네트웍스 시대,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인터넷 언론의 발달, Microblog, Twitter 등의 보편적 사용 등 현대인의 생활패턴과 정보 취득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전통 언론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신문평론의 부적절함이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기존의 아시아 언론 들은 대부분 구미의 방식을 채택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아시아형 가치관과 생활패턴이 생성함에 따라 아시아인의 특유한 언론 협력이 필요하다.

- 사회 환경변화로 인한 기존 언론의 위기와 공동대응
- 한·중 양국 간 언론인의 마인드 전환 방법
- 아시아인의 언론 메커니즘

■ 사 회

홍지아(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발 표

김 진(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찬호(한국방송공사(KBS) 프로듀서)

샘 제임슨(일본 외신기자협회 회장)

천팅(타임메이 홍보회사 공동 출자자/대표)

이성현(코리아 타임스 베이징 특파원)

최우석(조선일보 차장)

인터넷 언론, 트위터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보취득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의 새로운 기술과 정보 혁신의 추세와 관련하여 최근 소셜 네트워크의 파급력이 강화되는 바, 제주포럼은 관련 세션을 구성하여 이러한 사조를 반영하여 홍지아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전통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아시아 언론의 메커니즘과 아시아 언론의 협력 필요성에 관해 토론하였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SNS혁명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예로 들며 “예전에는 중국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할 경우 관련 소식을 검색하지 못하도록 인터넷을 통제했지만 최근 방중의 경우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확산되면서 원자바오 총리가 김정일 방중을 인정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차에서 내리면서 김 위원장의 네 번째 부인 김 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찍힌 동영상을 중국의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언급하며 트위터 등을 통해 중국 네티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공감하는 인식이 확산되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했다.

천팅 타이메이 미디어 공동출자자/대표는 새로운 언론 시대의 분기점을 다루면서 “1.0시대 언론이 대중에게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2.0시대 언론은 독자들의 수요를 파악해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라며 수요가 다원화되면서 나타난 3.0시대에 소셜

네트워크가 미칠 파급력에 관하여 분석했고, 김찬호 KBS PD는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TV시청률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기성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존 TV가 디스플레이용이 되면서 TV 시청률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공중파 방송은 <신입사원>, <나는 가수다>, <위대한 탄생> 등 서바이벌 방송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샘 제이슨 일본 외신기자협회회장은 미국의 사례 등을 통해 매체가 발전하더라도 언론이 가져야 하는 도덕성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며 이성현 코리아타임즈 베이징 특파원은 베이징에서의 특파원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중국에 관해 잘 알지 못하고 중국을 해외토픽 감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우석 조선일보 차장은 SNS를 통해 중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기도 하지만, 트위터를 통해 유명인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에서 한 언론의 편집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문제가 된 경우를 예로 들며 조선일보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신문의 명예를 훼손시킬 내용을 SNS에 올리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시아 문화 퓨전과 공동체 건설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한류’로 불리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다. 당초 몇몇 연예인들의 활동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던 ‘한류’는 이제 아시아 문화트렌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류’의 성공비결은 단순한 한국적 문화의 지역·세계 진출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한류’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 아시아에 알리는 동시에, 아시아인의 공통적인 정서에 호소할 수 있었기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인 동시에 아시아인 공동의 자산이기도 하다. ‘한류’를 통해 확산된 아시아의 문화공동체를 문화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 문화공동체의 형성은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협력, 그리고 공동의 번영에 중요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아시아 속에서 ‘한류’의 위치와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아시아 지역의 문화 퓨전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과연 한류는 문화 퓨전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는가?
- 문화 퓨전이 공동체의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문화 퓨전과 공동가치관 형성의 함수관계는 어떠한가?

■ 사회

홍기원(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

■ 발표

고정민(홍익대학교 교수)

리우칭(중국국제문제연구소 미국연구소 소장)

박인택(㈜TOUCHSKY 대표이사)

정한용(엔터코리아 컴퍼니 대표이사)

한경아(쇼앤아츠 대표이사/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이번 세션에서는 아시아 문화퓨전공동체의 건설이라는 주제아래 1996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의 성장과 그 배경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가 어떻게 문화공동체를 건설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인택 터치스카이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류드라마라는 씨앗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소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한국드라마가 과연 어떻게 아시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찾고 원하는 콘텐츠가 되었는지는 간략히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한국드라마는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고 있다. 둘째, 한국드라마는 서양 할리우드 중심의 드라마나 영화에 비해 아시아가 추구하는 규범과 가치를 매우 잘 반영한다는 평가가 있다. 셋째, 할리우드와 비견할 만한 한국드라마의 탄탄한 스토리구조, 잘생긴 배우들, 부유한 집안환경, 가구, 라이프스타일, 영상미, 뛰어난 가수의 음악들인데, 무엇보다 기술적인 우수성과 예술성까지 더해져 한국 밖에서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대표이사는 아시아인들의 보편적 가치, 삶의 기준, 미래의 기술적 또는 문화적 수준의 것들을 충족시키는 한류드라마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앙아시아, 멀리 중동까지도 새로운 문화현상을 만들어내는 좋은 문화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우칭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미국연구소 소장은 한류가 왜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가에 대한 답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문화적 유사성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과 한국의 경제, 정치 관계의 변화가 문화적인 열망을 더 촉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매스미디어가 문화적 교류 촉진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넷째, 세계화인데 세계화로 인해 시·공간 개념이 사라졌고 문화적 교류에서 국경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서 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문화 콘텐츠는 그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우칭 소장은 세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중국과 한국 간에 문화교류를 지속시켜야 하고 한류는 문화적인 교류만으로는 불충분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더 많은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문화의 특성을 확산시켜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문화의 특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정한용 엔터코리아 컴퍼니 대표이사는 한류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핵심은 한국적인 요소 때문이고 한국드라마는 가장 한국적인 행동방식이나 생각이 강조될 때 성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류를 통해 우리의 것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생활방식, 의식주에서 한국의 전통을 다시 살려내고 현대화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하였다. 한류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므로 한류에 대한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적인 지원 보다는 보존하는 간접적인 지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고정민 홍익대학교 교수는 그리스, 로마, 프랑스, 영국, 미국에 이어 일본, 한국, 중국이 세계문명을 이끌 주도세력이 될 것이며 실제로 동아시아는 빠른 경제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과거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전통문화가 발전했지만 서구중심의 대중문화가 동아시아에서 융합이 되면서 지역화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지역화 주도현상의 예로 일본의 재패니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홍콩의 영화, 중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한류를 언급하였다. 고 교수는 아시아 문화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면 서구의 대중문화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문화산업의 협력형태를 민간차원에서 기능별로 분담하는 분업모델, 정부, 단체가 규모별로 담당하는 협의체모델, 국가 간 문화를 자유화 하는 자유무역협력모델, EU와 같이 여러 나라가 하나의 국가처럼 통합되는 연합체모델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모든 국가가 상생하는 구조여야하고 일방적인 문화교류 아닌 쌍방향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불법다운로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실질가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서로 간의 반목과 경쟁 때문에 협력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아시아 문화 교류 협력 통해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혼종, 크로스오버, 퓨전이라 불리는 ‘문화혼혈’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경아 쇼앤아츠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는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류의 변화양상을 언급하며 한류 열풍의 배경을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준 소셜미디어 덕분이라고 강조하였다. 한 교수는 한류의 확산은 모방문화현상이라 볼 수도 있다며 감상과 동경의 소비 형태에서 활동을 통한 모방과 커뮤니티로 확대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현지 콘텐츠화의 시도를 언

급하며 그 예로 게임의 경우 한국기업이 중국현지에 진출하면서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다국적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며 이제는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인 것이 되어야 할 시기라고 하면서 아시아 공통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콘텐츠를 통해 그 힘으로 아시아에서뿐 아니라 중동, 중남미와 유럽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신 문화 세력으로 부각되어 세계적인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신 한류의 한계점으로 스타위주의 콘텐츠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하며 철저하고 냉정한 판단을 주문하였다. 또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콘텐츠 판매관행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문화의 일체감 형성을 간과하지 말고 지속적인 콘텐츠 진출의 여건을 조성할 때 문화교류의 기반형성에 기여할 것이며, 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현지 프로덕션, 아티스트, 배급사 등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가들이 아시아 공감대의 중간지점을 찾아서 세계를 향해 같이 나갈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가적 지원과 제도의 완화 즉, 글로벌펀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국내외적인 투자와 협력 투자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바탕으로 할 때 한류가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특히 한류가 어떠한 배경으로 성장해왔는지 정리해볼 수 있었고 지금은 신 한류로 불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들이 다뤄졌다. 그리고 상호간의 이해와 쌍방적인 문화 교류를 통한 공동체 건설이 동아시아가 세계시장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길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중 예술관광

북미의 예술관광 허브가 뉴욕의 브로드웨이인 것처럼 서구유럽의 예술 관광 허브는 런던의 웨스트엔드이다. 아시아의 예술관광 허브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1,000만 외래관광객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에서 동아시아 예술관광의 허브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aSSIST 레저경영전문대학원 ‘레저 비즈니스 프로젝트’에서 그 해법을 제시하였다.

■ 좌 장

최석호(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대학원 원장)

■ 발 표

김경훈((주)에감 대표)

김기덕(ToCorea 대표)

김기술(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MBA 학생)

김종석(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한류예술경영MBA 학생)

박미랑(알래스카 관광청 대리)

박정열(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백민서(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MBA 학생)

천세진(세종나모여행사 부사장)

한병화(에감 대표)

이번 회의는 1,000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동아시아 예술관광 분야를 특화시켜 관광 허브를 조성하려는 비전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를 위한 레저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고민하고자 개최된 바, 최석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대학원장의 사회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을 전개했다.

천세전 세종나모여행사 부사장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앞서 “한국은 관광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국가 만족도는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저가 패키지로 관광을 하게 되는 특성상 호텔, 음식 등의 질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가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고, 한류를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국가경쟁력과 만족도를 함께 키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민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 MBA 학생은 발표를 통해 “쇼핑에 몰두했던 예전에 비해 개성화, 다양화에 따라 고급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강조하고 한류현상과 스타마케팅에 주력한 상품개발을 특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제안된 것은 아트(Art)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다. 한병화 예감 대표는 해외에서 큰 반응을 얻은 ‘점프’라는 콘텐츠를 통해 “국내 브랜드를 해외에 인지도시켜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0년 부산의 공연장을 제주도로 이전하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과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한류예술경영MBA 학생, 역시 3년 연속 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1위로 서울을 꼽았던 점을 착안해 ‘아트-테크(Art-TECH) 관광벨트’ 구성을 제안했다. 아트-테크 관광벨트는 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아트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테크를 결합해 한류콘서트, 점프 등 공연 기획과 세종벨트 등 아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관광벨트 권역 사이를 교통으로 연계해 이동만으로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아트-테크 관광벨트가 한국에 자리 잡으면 “뉴욕의 브로드웨이 같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수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특정 스타에 의존해 한국을 찾은 사람들의 여행 기대를 만족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임에 동감한 바, 여행 일정이 녹화장 방문, 공연장 방문 등 진부한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인 프로그램 기획,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을 재확인했다.

제주의 경우 중국과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바, 상기 예술관광 프로젝트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제6회 제주포럼 역할참가자 명단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유엔과 보호책임	사회	최 종무	유엔 거버넌스센터 원장
	발표	보리스 콘도흐 (Boris KONDOCH)	아시아평화안보센터 소장
	토론	조창범	한국유엔협회 부회장
	토론	크리스티안 바우레더 (Christian BAUREDER)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보호담당관
DMZ 평화·생태적 이용·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사회	이춘호	코리아DMZ협의회 상임대표 /DMZ미래연합 상임대표
	주제발표	김귀곤	코리아DMZ협의회 상임대표/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표	문성목	코리아DMZ협의회 남북분과위원 원장
	발표	손기웅	코리아DMZ협의회 사무처장
	발표	이재승	코리아DMZ협의회 국제분과위원장
	발표	함광복	코리아DMZ협의회 국내분과위원장
경제발전에 따른 국력에 맞는 선진원조 동향	사회	허영도	울산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백권호	영남대학교 사회교육원장/중국연구센터 소장
	주제발표	안충영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유엔글로벌컴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 (MDGs)에 기여 I	좌장	주철기	유엔글로벌컴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전 주프랑스 대사
	주제발표	김기석	서울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김 전	서울대학교 교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진 및 쓰나미 위험	사회	신호상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입학·학생처장
	주제발표	김재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두만강 개발계획과 동아시아 평화	사회	이수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장 /전 동북아시아대위원장
	발표	공계유	상하이 국제학연연구소 부소장
	발표	제임스 미어니크 (James MEERNIK)	노스텍사스대학교 톨루즈대학원 원장
	발표	주수 (ZHU, Shu)	두만강개발사무국 담당관
	발표	타가 히데요시 (TAGA, Hidetoshi)	와세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원장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발표	홍면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아시아 문화 퓨전과 공동체 건설	사회	홍기원	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
	발표	고정민	홍익대학교 교수
	발표	리우칭 (LIU Qing)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미국연구소 소장
	발표	박인택	(주)TOUCHSKY 대표이사
	발표	정한용	엔터코리아 컴퍼니 대표이사
	발표	한경아	쇼앤아츠 대표이사/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리딩 브랜드로의 도약: 국가/지역브랜드 현황과 미래	주제발표	김윤정	탐라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이남식	전주대학교 총장 /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유엔 글로벌컴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MD Gs)에 기여 II	사회	주철기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사회	김기석	서울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윤여창	서울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이도원	서울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이호영	서울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
거세어지는 기후변화와 강력해지는 재난, 대응책은 있는가	사회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박연수	소방방재청 청장
	토론	강은희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토론	박재범	서울신문 주필
	토론	이래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세계자연유산과 지질환경보존	토론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사회	유재건	한국 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
	발표	기 마티니 (Guy MARTINI)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
	발표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발표	이브라힘 코무 (Imbrahim KOMOO)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망 APGGN 공동의장
중국 기업의 한국 상장(上場)	발표	이용일	대한지질학회 회장
	발표	고낙섭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발표	노 광	삼성증권 과장
	발표	송해성	삼성증권(주) 이사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발표	최광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발표	추원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국 기업의 지속경영	사회	김재은	(사)산업정책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주제발표	송명식	유한킴벌리 부사장
	주제발표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저개발국 감염성질병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좌장	박상대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이사장
	주제발표	방연호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실 과장
	주제발표	앤써니 플린 (Anthony FLYNN)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주제발표	존 클레멘스 (John CLEMENS)	국제백신연구소 자원개발담당 사무차장
	발표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회장
	발표	조완규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상임고문
[전체회의 I] New Asia Standard	좌장	강효상	조선일보 보도본부장
	기조연설	려본푸 (LV, Ben Fu)	중국과학원 관리학원 상임 부원장
	기조연설	리웨이안 (LI, Wei An)	동북재경대학교 총장
	기조연설	상빙 (XIANG, Bing)	장강상학원 총장
	기조연설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기조연설	장이청 (JIANG, Yi Cheng)	세계화상협회 총회장
한·중 예술 관광	좌장	최석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대학원 원장
	발표	김경훈	(주)에감 대표
	발표	김기덕	ToCorea 대표/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한류예술경영MBA 학생
	발표	김기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MBA 학생
	발표	김종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한류예술경영MBA 학생
	발표	박미랑	알래스카 관광청 대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MBA 학생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발표	박정열	서울과학기술대학원 교수
	발표	백민서	서울과학기술대학원 레저경영MBA 학생
	발표	천세진	세종나모여행사 부사장
	발표	한병화	예감 대표
[전체회의 II] 세계지도자세션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사회	박 진	국회의원/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발표	글로리아 아로요 (Gloria Macapagal ARROYO)	전 필리핀 대통령
	발표	한승수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전체회의 III] G20 시대, 금융시장 체제 변화와 뉴아시아 전망	좌장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기조연설	버지니아 캄스키 (Virginia KAMSKY)	미국 캄스키 경영자문회사 대표
	기조연설	션 닝 (SHEN, Ning)	JP모건 아태지역 연구부 사장
	기조연설	진수형	한국거리소 부이사장
	기조연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
[개회식] 기조연설	개회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포럼 조직위원장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기조연설	김황식	대한민국 국무총리
	기조연설	자오지청 (ZHAO, Qi Zheng)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기조연설	글로리아 아로요 (Gloria Macapagal ARROYO)	전 필리핀 대통령
중국의 부상: 기회와 도전	사회	나얀 찬다 (Nayan R. CHANDA)	예일대학교 세계화연구예일센터 소장
	발표	모하메드 자와르 하산 (Tan Sri Mohamed Jawhar HASSAN)	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원 회장
	발표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소 소장/ 전 주중국대사
	발표	옌쉐통 (YAN, Xuetong)	칭화대학교 국제연구소 소장
	발표	존 아이켄베리 (G. John IKENBERRY)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발표	후나바시 요이치 (FUNABASHI, Yoichi)	전 아사히신문 주필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G20 과정의 금융규제개혁과 안전망	사회	박영철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석좌교수
	발표	마이클 헬벡 (Michael HELLBECK)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SC제일은행 부행장
	발표	요시노 나오유키 (YOSHINO, Naoyuki)	게이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	윌리엄 오버홀트 (William H. OVERHOLT)	하버드 케니디행정대학원 선임연구원
	발표	이장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발표	홍기택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식 재산 시대, 여성의 중요성	좌장	한미영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한국여성단체연합 수석대표
	발표	문승자	케이제이알텍(주) 대표
	발표	윤명희	(주)한국라이스텍 대표
	발표	정정례	(주)해누리 대표
	발표	예잉 (YE, Ying)	NALCO 글로벌 부총재
비즈니스 신세력: 아시아 청년 리더	좌장	최은수	매일경제 편집국 부장
	발표	리우저우웨이 (LIU, Zhou Wei)	21세기 경제보도 사장
	발표	부리카이 (BU, Li Kai)	남호국제여행사 사장
	발표	신용진	(주)뷰씨 대표
	발표	유길상	BCE원격평생교육원 대표
	발표	장여우량 (Zhang, You Liang)	북경건강축진협회 부사무총장
	발표	추광엽	비타민 하우스 상무
	발표	판준중 (FAN, Jun Zhong)	중청실업 사장/청뤼(Qing Lv)그룹 회장
G20 이후 도시경영의 새로운 도전	좌장	신철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김창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
	주제발표	멍첸 (MENG, Qun)	천진에코시티 개발회사 사장
	주제발표	메이더원 (MEI, De Won)	북경환경거래소 사장
	주제발표	이명노	새만금군사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주제발표	토마스 찬 (Thomas CHAN)	홍콩이공대학 공공정책연구소 소장
	주제발표	양쯔저 (YANG, Zhu Ze)	Director, Zhongxin Tianjin Eco-city Management Committee
	주제발표	허동옌 (HE, Dong Yan)	Chairman, Zhongxin Tianjin Eco-city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 Ltd
Green Mega Trends in Business and World	사회	이상호	경성대학교 교수
	발표	김성우	삼정 KPMG 지속가능경영본부 본부장
	발표	김용언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운영본부 책임전문위원
	발표	윤인모	닥터서비스 대표
	발표	한석희	린디자인아시아 대표
동아시아 비핵화는 가능한가? 그 기회와 제약	사회	피터 헤이즈 (Peter HAYES)	나우틸러스 안보지속가능성연구소 소장
	발표	가렛 에반스 (Gareth John EVANS)	호주국립대학교 총장
	발표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발표	아베 노부야수 (ABE, Nobuyasu)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군축·비확산축진센터 소장
	발표	최 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발표	판젠창 (PAN, Zenqiang)	중국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교수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회	문우식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시에 타오 (XIE, Tao)	북경외국어대학교 교수
	발표	존 던컨 (John B. DUNCAN)	UCLA대학교 한국학센터 소장
	발표	최현선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사업부 부장
	발표	크리스틴 리 (Christine RHEE)	와세다대학교 교수
전자상거래의WEB 3.0 전망, 온라인 게임	좌장	이학영	한국경제 편집부국장
	발표	린동량 (LIN, Dong Liang)	IDG 그룹 중국 창시자
	발표	민용재	YJM인베스트먼트 대표
	발표	왕슈텡 (WANG, Shu Teng)	DH gate.com 사장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발표	왕위 (WANG, Ying)	중국CCTV 애니메이션 유한회사 사장
G20 이후 국가와 도시경쟁력의 새로운 이슈	좌장	박영균	동아일보 국장
	발표	김원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발표	문영훈	행정안전부 지방경쟁력지원과 과장
	발표	야오왕 (YAO, Wang)	보아오아시아포럼 집행위원장/보아오아시아연구원 상임부원장
	발표	황요유이 (HUANG, You Yi)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발표	황주홍	전라남도 강진군 군수
G20 이후 다국적 기업의 세계성공전략	좌장	정찬배	YTN 차장
	발표	김중성	보스톤대학교 교수
	발표	김태영	(주)필립스전자 대표이사
	발표	란타 헤이키 (RANTA, Heiki)	카고텍코리아(주) 대표이사
	발표	로흐민 다후리 (Dahuri ROKHMIN)	Bogar Agricultural 대학교 교수/전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
	발표	박경미	에이온휴잇 대표이사
	발표	저우웨이민 (ZHOU, Wei Min)	중야 해외 회장
	발표	천진야 (CHEN, Jin Ya)	알코아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회장
	발표	후지모토 다카히로 (FUJIMOTO, Takahiro)	동경대학교 교수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上場)	좌장	강정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발표	김현영	대우증권 캐피탈마켓 본부장/상무
	발표	임병익	투자금융협회 박사
	발표	전병서	경희대학교 교수
동아시아 해양안보	사회	후나바시 요이치 (FUNABISHI, Yoichi)	전 아사히신문 주필
	발표	백진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발표	사투 리마예 (Satu LIMAYE)	워싱턴 이스트·웨스트 센터 소장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발표	옌쉐통 (YAN, Xuetong)	칭화대학교 국제연구소 소장
	발표	존 아이켄베리 (G. John IKENBERRY)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와 고등교육의 역할	공동사회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공동사회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가렛 에반스 (Gareth John EVANS)	호주국립대학교 총장
	발표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
	발표	리웨이안 (LI, Weian)	동북재경대학교 총장
	발표	세이케 아쯔시 (SEIKE, Atsushi)	게이오대학교 총장
	발표	톤누티 닌 (Ton-nu-thi NINH)	베트남 트라이비에트대학교 총장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협력	사회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발표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소 소장/ 전 주중국대사
	발표	스벤 살러 (Sven SAALER)	일본상지대학교 교수
	발표	옹 켈용 (ONG, Keng Yong)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책연구소 이사
	발표	피터 더즈 (Peter DUUS)	스텐포드대학교 명예교수
Creative Industry: 아시아의 美(영화, 언론, 패션)	좌장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발표	성필문	(주)스테레오픽처스 회장
	발표	위동 (YU, Dong)	북경보나영화유한그룹 회장
	발표	이성래	한국예술원(KAI) 겸임교수
	발표	홍지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국! 14억 시장으로 달려가자	사회	강미은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발표	김해선	(주)썬트랜스글로브 CEO
	발표	이선림	(주)디오홀딩스 대표이사
	발표	조태관	(주)새미르 종합건설 대표이사
	발표	허즈이핑 (HO, Chi Ping)	아시아문화포럼 주석/ 중화에너지재단 부주석/ 전 홍콩 민정국 국장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발표	저우웨이민 (ZHOU, Wei Min)	중야 해외 회장
	발표	리우저우웨이 (LIU, Zhou Wei)	21세기 경제보도 사장
아시아의 가치와 글로벌 리더십	좌장	김기용	카길 한국대표 회장
	발표	김성희	한국리더십연구소 소장
	발표	김영기	LG전자(주) 부사장
	발표	민복기	EXR코리아(주) 대표
	발표	이보균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이사 사장
그린에너지 응용기술과 신사업 기회	좌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발표	린동량 (LIN, Dong Liang)	IDG 그룹 중국 창시자
	발표	문승일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이 철	경일대학교 교수
	발표	최 열	환경재단 대표
	발표	허즈이핑 (HO, Chi Ping)	아시아문화포럼 주석 /중화에너지재단 부주석
[경영디자인] 기조연설	사회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기조연설	리처드 부캐넌 (Richard BUCHANNA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전체회의IV] 기조연설 한·중·일 협력	좌장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장/제주포럼 집행위원장
	기조연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이희범	STX에너지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기조연설	자오샤오강 (ZHAO, Xiao Gang)	중국남차그룹 회장
	기조연설	히로유키 아라이 (HIROYUKI, Arai)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 / 일본 신당개혁 간사장
[전체회의VI]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사회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이 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발표	마크 민턴 (Mark Clements MINTON)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발표	발터 클리츠 (Walter KLITZ)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소장
	발표	수창허 (SU, Changhe)	상해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대학 학장
	발표	에브게니 아파나시예프 (Evegeny AFANASIEV)	러시아 외교부 인사국장
	발표	마사오 오코노기 (MASAO, Okonogi)	게이오대학교 법정대학 명예교수
[경영디자인] 유럽·아메리카·아시아 경영의 흐름, 제주의 도시디자인	주제발표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그린 리 (Green LEE)	Vice President of Brand Experience and Strategic Design, USA
	주제발표	저스투스 다이너트 (Justus THEINERT)	Professor,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Darmstadt, Germany
산업보안 정책의 오늘과 내일	좌장	정진홍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장
	발표	성선제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발표	양승원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발표	이길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전체회의 V] 동양철학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지도자의 자선활동	사회	이의철	아시아경제신문 정치경제부 부국장
	발표	양원찬	김만덕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발표	마가렛 리우 (Margaret LIU)	국제백신연구소 부이사장
	발표	스이안다 (SHI, Yan Da)	소림사 감독관리원
	발표	이정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윤리경영연구소 소장
[외교관라운드테이블]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사회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발표	마크 토클라 (Mark TOKOLA)	주한 미국 부대사
	발표	스칸드 란잔 타얄 (Skand Ranjan TAYAL)	주한 인도대사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발표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
	발표	콘스탄틴 브누코프 (Konstantin V. VNUKOV)	주한 러시아대사
	발표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Tomasz KOZLOWSKI)	주한 EU대사
[경영디자인] 디자인경영의 교육에 대한 대학리더들의 토론	주제발표	이남식	전주대학교 총장/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주제발표	유르겐 파우스트 (Jurgen FAUST)	독일 CAO IED / Milan, MHMK Munich대 교수
	주제발표	모셰 포라트 (Moshe PORAT)	미 팩스 경영대학장
	주제발표	요네쿠라 세이치로 (YONEKURA, Seichiro)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혁신연구소장
융합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의 미래	사회	신호상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입학·학생처장
	발표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사례연구센터장
	발표	송원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발표	이현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도서관장
	토론	김신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기획협력처장
	토론	박정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토론	신중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여가학연구소장
제주의 미래비전	사회	이태식	STX에너지 고문/전 주미국대사
	발표	권병현	전 주중대사
	발표	모리스 스트롱 (Maurice Frederick STRONG)	북경대학교 명예교수/전 유엔사무차장
	발표	버지니아 캄스키 (Virginia KAMSKY)	미국 캄스키 경영자문회사 대표
	발표	스펜서 김 (Spencer KIM)	미국 CBOL 그룹 회장
	발표	알란 팀블릭 (Alan John TIMBLICK)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소장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발표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포럼 조직위원장
	발표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발표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회장
	발표	윌리엄 오버홀트 (William H. OVERHOLT)	하버드 케네디행정대학원 선임연구원
	발표	장시옌윈 (JIANG, Xian Yun)	중국 분마실업집단지단유한공사 회장
북한의 권력계승과 개방개혁 전망	사회	티 제이 펴펠 (T. J. PEMPEL)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정치학 교수
	발표	마사오 오코노기 (MASAO, Okonogi)	게이오대학교 법정대학 명예교수
	발표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교수
	발표	존 들러리 (John Patrick DELURY)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
	발표	존 스웬슨 라이트 (John Harold SWENSON-WRIGHT)	캠브리지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소장
	발표	진징이 (JIN, Jing Yi)	북경대학교 코리아연구센터 교수
세계무역, 통화전쟁, 자유무역협정: 보호무역주의인가, 자유무역주의인가?	사회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발표	에이미 잭슨 (Amy JACKSON)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소장
	발표	왕용 (WANG, Yong)	북경대학교 국제학대학 교수
	발표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평화연구의 최근 이슈와 과제	사회	이상환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학술지 책임교수
	발표	스캇 게이츠 (Scott GATES)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발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제임스 미어니크 (James MEERNIK)	노스텍사스대학교 교수
	토론	정기웅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여성, 창조성, 문화: She's Coming	사회	이혜경	서울국제여성영화 집행위원장/ 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주제발표	글로리아 스타이넴 (Gloria Marie STEINEM)	미국의 페미니스트 저널리스트
	토론	구어옌윈 (GUO, Yan Wen)	미국아시아협회 사무총장/상해재경대학 EXPO경제연구원 부원장
	토론	김홍희	전 경기도 미술관 관장
	토론	도성희	키위스톤 연구소장
	토론	장필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아시아여성학회 회장
	토론	정현경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 교수 /뉴욕 관음 선원 불교법사
	토론	조세린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미래: 디자인+신표준	좌장	현영석	한남대학교 교수 /코리아오토포럼 운영위원장
	사회	최우석	조선일보 차장
	발표	고상근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김기찬	전 (사)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한국중소기업협회 회장
	발표	김종식	타타대우상용차(주) 대표이사
	발표	서승우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순지엔 (SUN, Jian)	AT커니 글로벌 경영컨설팅(상해) 공동 출자자
	발표	쉬허이 (XU, He Yi)	북경자동차그룹 회장
	발표	양웅철	현대자동차(주) 사장
	발표	전광민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코리아오토포럼(KAF) 회장
[경영디자인] Workshop I: Collaboration	사회	유영진	미 템플대학교 폭스 경영대학원 교수
	발표	김원택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 전문 대학원 교수
	발표	제이머 헌트 (Jamer HUNT)	미 파슨스 디자인대학 교수
	발표	제니퍼 와이트 (Jennifer WHYTE)	영국 리딩대학교 교수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발표	마크 스틱돈 (Marc STICKDORN)	오스트리아 MCI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김미소	미 카네기 멜론대학 교수
	발표	정경원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 본부장/카이스트 산업 디자인학과 교수
	발표	김원택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제주프로세스와 동북아 디자인보체제 구축	사회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노다리 시모니아 (Nodari A. SIMONIYA)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 /전 IMEMO 소장
	발표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표	윤병세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발표	찰스 모리슨 (Charles E. MORRISON)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소장
	발표	판젠창 (PAN, Zenqiang)	중국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교수
[의료관광 I] 국내외 의료관련정책 및 성공사례 발표 및 토론	사회	표정호	순천향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이 철	연세의료원 원장
	주제발표	프렘 쿠마 나이어 (PREM, Kumar Nair)	레플츠병원 부원장
	토론	강창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토론	김민정	딜로이트 컨설팅 이사
	토론	이기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토론	조현준	현대메디스 이사
	토론	진수남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사업단장
	토론	한동우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정책팀장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회	고성준	제주국제협의회 회장/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강승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토론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토론	김부찬	전 대한국제법학회회장/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김성준	제주지방자치회회장/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김창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토론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토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토론	유지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자문대사
	토론	장성수	제주특별광역경제권 MICE인재양성센터장/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정대연	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한국정부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토론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장수기업	좌장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한국 지속경영학회 회장
	사회	안세연	서울대학교 박사
	발표	박영원	동경대학교 교수
	발표	비스와나트 기리쉬 (Viswanathan Gomathyamma GIRISH)	가톨릭대학교 교수
	발표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
	발표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한국경제학회 편집위원장
	발표	현승탁	(주)한라산대표/제주상공회의소 회장
	토론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토론	양오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상학부 연구교수
	토론	이경묵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소셜네트웍스 시대,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사회	홍지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발표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발표	김찬호	한국방송공사(KBS) 프로듀서
	발표	샘 제임슨 (Sam JAMESON)	일본 외신기자협회 회장
	발표	이성현	코리아 타임스 베이징 특파원
	발표	천팅 (CHEN, Ting)	타이메이미디어 공동 출자자/대표
	발표	최우석	조선일보 차장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경영디자인] Workshop II: Mutual Learning	발표	김태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발표	권유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발표	라스 레이드마체르 (Lars RSDEMACHER)	독일 메크로미디어 언론정보대 교수
	발표	MB 사카르 (MB Sarkar)	미 템플대 경영학과 교수
	발표	니콜라스 버렌트 (Nicholas BERENTE)	미 조지아대 교수
	발표	에린 조 (Erin CHO)	파슨스 디자인 스쿨, 디자인 경영학과 교수
	발표	신상 (XIN, Xiang)	중국 홍콩 폴리텍대학 교수
[외신기자라운데이블] 201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치변동 예측	사회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발표	마틴 팩클러 (Martin FACKLER)	뉴욕타임즈 아시아특파원
	발표	아르템 산지에프 (Arten SANZHEV)	로씨스까야 가제타 한국특파원
	발표	세바스티엔 팔레티 (Sebastien FALLETTI)	르 피가로 한국특파원
	발표	수미다 타쿠시 (SUMIDA, Takushi)	교도통신 한국특파원
	발표	이병종	전 뉴스위크 한국특파원
국제보호구역과 제주형 보전모델	사회	최청일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 의장
	발표	이병욱	세종대학교 교수/전 환경부차관
	발표	이상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한국습지학회 회장
	발표	조도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발표	윤용택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의료관광II] 제주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론	사회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주제발표	이동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 처장
	주제발표	김상훈	제주한라병원 대외협력처장
	토론	김형진	KPMG 상무
	토론	이상준	아름다운 나라 피부과 원장
	토론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토론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명지병원 이사장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토론	인요한	연세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토론	최 건	서울 우리들병원 원장
장수인의 비밀	좌장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박상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발표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발표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의원
[경영디자인] Workshop III: Convergent Education	발표	김원택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신수진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브리짓 보르자 드 모조타 (Brigitte Borja de MOZOTA)	프랑스 파리 파슨스대 교수
	발표	에린 조 (Erin CHO)	미 파슨스 디자인스쿨 교수
	발표	카자 투밍 부캐넌 (Kaja Tooming BUCHANAN)	클리블랜드 예술대학 교수
	발표	이기품	미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교수
	발표	최수신	미 신시내티대 교수
	발표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이순중	서울대학교 교수

